

## : 1964-2000

김달관(울산대)\*

- I. 가
- II.
- III.
- IV.
- V.

### I. 들어가는 말

2000년 7월2일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통령후보(PAN: 국민행동당)가 여당소속 대통령후보를 물리치고 멕시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로써 1929년 멕시코 혁명세력이 주축이 되어 만든 제도혁명당(PRI)이 71년(1929-2000) 동안의 대통령직을 야당에게 처음으로 인도해야 했다. PRI의 정치체제모니의 하락이 1997년 선거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되었지만 이렇게 빨리 나타날지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집계시스템붕괴”(la caída del sistema de cómputo) 이후 살리나스 대통령은 PAN의 선거승리는 인정하면서도 민주혁명당(PRD)의 선거승리는 인정치 않는 ‘선택적 민주주의’를 구사했다. 1994년 선거에서부터 선거지형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지방수준에서는 PRI-PAN 또는 PRI-PRD가 서로 경쟁하는 양당경쟁

---

\* Dal-Kwan Kim(University of Ulsan), “The Reform of Electoral System and Democracy in Mexico: 1964-2000”.

구도가,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PRI-PAN-PRD가 서로 경쟁하는 3당 경쟁구도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1997년 하원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분할정부가 탄생했다.<sup>1)</sup>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후보가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민주정치는 민의에 의한 정치이며, 시민의 대다수가 선거에 의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정치에서 선거의 정치적 의미는 유권자가 투표를 통한 의사표현으로 정치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데 있다. 또한 시민에 의한 정치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대의민주주의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개념의 핵심은 대표성이다. 대의민주주의란 시민이 선출한 대표가 시민의 뜻을 대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성은 정당으로 표현된다. 정당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집약된 이해의 묶음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특정 후보의 당선은 정당이 어떠한 사회적 이익을 대표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선거를 통한 정당의 정치권력에 대한 경쟁은 현대 민주정치체제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선거는 한 사회의 선호(preference)를 총합적으로 도출하는 사회적 선택이다(안순철, 2000: 16). 선거를 통한 시민들의 선택을 통해 결집된 대의성(代議性)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시민의 사회적 선택에 따라 민주주의는 운용된다.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가 표현되는 공간으로서 선거는, 투표행위로 나타나는 사회의 선호를 어떻게 의회에서 의식으로 전환하는가는 정치의 중요한 쟁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거제도에 관심이 대두된다.<sup>2)</sup> 민주화 이행을 경험한 많은 국가

1) 분할정부란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다른 정당에 의해서 장악되는 상황으로, 소위 ‘여소야대’ 정국이 바로 그것이다. 분할정부하에서 행정부 집권당인 여당은 의회의 다수당인 야당의 견제를 받게되어 이질적 가치들이 대립하게된다. 따라서 분할정부의 의미는 동질성에 바탕을 둔 통합보다는 이질성에 기초한 견제의 원리에 비중을 두는 것이다(조중빈, 1999: 298)

2) 선거제도가 일반적 개념이라면 선거체제는 특별히 투표가 의식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관련된 일련의 규칙이라 할 수 있다. 즉 선거체제란 시민의 투표를 대의기구의 의식으로 전환시키는 일련의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선거체제는 선거방식(electoral formula), 1선거구당 의석수(district magnitude), 투표구조(ballot structure), 진입비용(thresholds), 선거구획정의 불균형성(malapportionment), 진입비용(effective thresholds),

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실행되었고, 멕시코에서도 1977년 이래로 꾸준히 선거제도 개혁이 실천되고 있다.

정당은 선거를 통하여 정치권력에 도전하는 정치조직이다. 정당은 선거경쟁의 주체이고 선거제도는 선거경쟁의 규칙이다. 게임의 규칙은 모든 경쟁자들에게 공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경쟁자들에게 공평한 선거제도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거의 모든 선거제도가 상대적으로 어느 경쟁상대자에게 이롭고 다른 경쟁상대에게 불리한 것이 현실이다. 유권자의 지지율이 고정적인 경우에도 선거구의 경계 변경만으로 당선자와 낙선자가 뒤바뀌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선거법 협상은 언제나 격렬하고 합의가 어렵다. 협상의 결과는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정당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타협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광수, 2002: 83-84). 2003년 멕시코에서 비센테 폭스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하원 선거에서 야당인 PRI가 222석을 차지하여 하원의 46%를 구성하고, 여당인 PAN은 151석을 차지하여 하원의 30%를, 다른 야당인 PRD는 95석을 차지하여 하원의 19%를 구성하고 있다. 앞으로 3년후에 있을 2006년 대통령, 연방상원·하원선거는 멕시코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정표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멕시코의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와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멕시코는 어려운 고비마다 선거제도 개혁을 실천했는데, 1977·1987·1990·1993·1996년의 선거제도 개혁은 지금의 멕시코 정치지형과 맞아야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요인들이 PRD를 탄생케 하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새로운 정당의 출현과 PAN의 분발은 멕시코 정치지형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일으켰고, 1994년 선거에서 지방수준에서는 양당경쟁구도가,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3당경쟁구도가 구축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들은 멕시코 정당체제에 변화를 초래했다. 마침내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쾌거를 올렸

---

의회의 규모(assembly size), 대통령 선거의 효과(presidentialism), 정당간 선거연합(apparentment)의 허용여부를 언급한다(안순철, 2000:58; A. Lijphart, 1995).

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멕시코 선거제도와 정당체제는 멕시코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멕시코의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선거제도의 요소 중에서 정당의 수 변화와 관련이 있는 대표제와 선거구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정당체제가 양당제로 향하는지 다당제로 향하는지 기준은 선거결과에서 각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1964-2000년까지의 멕시코 하원 선거 결과이고, 분석단위는 집합적인 선거구이다. 분석방법은 주로 집합적인 하원선거 결과의 시계열적 비교분석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듀베르제의 가설인 다수대표제-양당제, 비례대표제-다당제 경향성이 멕시코 경우에 정합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멕시코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다.

## II. 정당과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일반적인 정당체제 분류법은 주요 정당의 수에 따라, ① 1당체제, ② 2개의 주요정당이 상호경쟁하며 존재하는 양당체제, ③ 2개 정당 이상이 상호 각축하고 있는 다당체제로 구분한다.<sup>3)</sup> 정당체제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거와 관련된 요인이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다. 그 이유는 한 국가 내에서 정당의 의미는 결국 시민

3) 사르토리(Giovanni Sartori)는 정당체제의 경쟁성 여부를 기준으로 7개의 정당체제 유형을 제시했는데 ①1당체제, ②패권정당체제, ③1당우위체제, ④양당체제, ⑤제한적 다당체제, ⑥극단적 다당체제, ⑦원자화체제로 구분하고 있다(Giovanni Sartori, 1976: 121-125). 블론델(J. Blondel)은 6개의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①무당적 체제, ②1당체제, ③양당체제, ④2.5당체제, ⑤1당우위 다당체제, ⑥대등적 다당체제이다(Jean Blondel, 1968: 164-166). 아몬드(G. Almond)는 ①권위주의적 정당체제, ②지배 비권위주의적 체제, ③경쟁적 양당체제, ④경쟁적 다당체제로 구분한다(Gabriel Almond, 1974: 40-41). 그밖에 라팔롬바라와 웨이너(J. Lapalombara & M. Weiner)유형, 맥도널드(Ronald H. McDonald)유형 등이 있다(Joseph Lapalombara & Myron Weiner, 1972: 33-41; Ronald H. McDonald, 1971: 17).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체제의 분류는 공통성보다 상이성이 더 크다. 이런 점에서 정당체제에 대한 정의와 유형들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분류기준을 정당의 수와 정당 간의 경쟁관계로 한정하고자 한다.

의 정치적 지지를 근거로 존립하며, 그러한 시민의 정치적 지지를 확인하는 방식이 선거이기 때문이다. 즉 시민이 선거를 통하여 정당 체제를 성립시키는 것이지, 정치엘리트들의 이합집산에 의해 정당체제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선거제도의 구체적인 측면에서 선거체제란 첫째, 비례대표제와 다수대표제 같은 선거방식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의 대표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군소정당에 유리한 것으로, 다수대표제는 양대 정당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소정당의 대표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다당제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양당체제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Duverger, 1951; Rae, 1967; Grofman & Lijphart, 1986). 둘째, 1선거구당 의석수도 선거체제의 중요한 또 하나의 차원이다.<sup>4)</sup> 셋째, 선거구의 유권자수의 차이이다.<sup>5)</sup> 이밖에도 논자들에 따라 다양하지만 역사적인 변화에 따라 구성요소도 다양해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방식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구분되는데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sup>6)</sup> 흔히 First Past The Post(FPTP)라고 불리는 단순다수대표제는 과반수의 득표가 되지 않더라도 먼저 제1순위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단순다수대표제는 일반적으로 불비례적(disproportionality) 메카니즘이다(안순철, 2000: 90). 단순다수대표제의 장점은 첫째, 단순하고 쉽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대표성을 보장함으로써 선거구 유권자들과 의원간의 친밀

4) 선거방식과는 별개의 차원으로 1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라 칭하고, 1선거구당 2-4인을 선출하는 경우 중선거구제라 칭하며, 1선거구당 5인 이상 선출하는 경우 대선선거구제라 칭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일반적이나 엄격한 구분은 아니다.

5) '1인1표1가치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각 선거구의 유권자 수는 동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6) 선거방식은 ①단순다수대표제(plurality formula), ②절대다수대표제(majority formula), ③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 ④준비례대표제(semi-proportional system) 및 혼합형(mixed system), ⑤추가의원석할당제(additional-member system) 등이 있다(M. Harrop & W. Miller, 1987: 2-4; R. Taagepera & M. Shugart, 1989). 이 논문에서는 단순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만 다루려고 한다.

도가 높게 유지된다. 셋째, 정치적 효율성과 안정성 역시 단순다수대표제의 장점이다. 높은 비례성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정부구성의 효율성과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느냐의 쟁점이 비례대표제와 다수대표제의 근본적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단점으로서 첫째, 소수대표현상이다. 즉 다수대표제는 의원들의 현실적 환경때문에 의원들이 지역서비스 위주의 활동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 불비례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구가 조밀한 도시와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1표가 동일한 가치를 같도록 하는 선거구획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셋째, 정치적 소수그룹의 대표성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안순철, 2000: 90-126). 비례대표제는 의석의 할당방법에 따라 명부식(list system)과 단기이양식(single transferable vote system)으로 구분된다.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대선거구의 입후보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유권자는 정당의 명부에 기표하게 되며 의석은 그 정당의 명부에 던져진 투표수에 비례하여 정당에 할당되는 방식이다(Vernon Bogdanor & David Butler, 1983: 16-17).<sup>7)</sup> 반면에, 단기이양식 투표제는 유럽식 비례대표제가 정당에 입각한 명부제라면, 단기이양식은 후보자 개인에 투표하는 것이다.<sup>8)</sup>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첫째, 높은 비례성을 통해 사회의 다양성을 의회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군소정당의 대표성보장, 여성과 소수그룹의 대표성보장, 새로운 정치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타협과 통합의 정치문화를 촉진한다. 각 정당은 이념적으로 온건한 중도적 유권자들에 가까워지기 위해 극단적 정치행태를 자제하기 때문에 정치안정에 기여한다. 셋째, 정당의 리더쉽이 강화되기 때문에 정당정치가 활성화된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첫째, 밀실야합과 정치적 거래를 통해

7)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①전국적 수준의 명부제이면서 전국적인 의석할당방법(이스라엘, 네덜란드), ②지역적 수준의 명부제이면서 전국적인 의석할당방법(덴마크, 스웨덴, 이태리, 서독), ③지역적 수준의 명부제이면서 지역적인 의석할당방법(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제도로 세분할 수 있다

8) 개인은 단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며 각 유권자는 선호표를 만들어 최초의 선호후보자에게 자신의 투표가 잉여표가 될 경우, 두 번째 선호후보자에게로 표가 이월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의 장점은 다수대표제와는 다르게,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표가 없이 이월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구성되는 것 자체가 유권자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것이다. 둘째, 높은 비례성이 군소정당을 난립하게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하기가 어렵고, 군소정당의 극단적인 정치행태는 정치적 불안 야기한다. 셋째, 정당 리더십의 권한이 커져 명부작성의 권리를 갖는 리더들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이용하기 때문이다(안순철, 2000: 158-188).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선거제도와 정치적 안정의 관계는 그 동안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왔다.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는 듀베르제(Duverger)가 1954년 그의 책에서 언급했다(Duverger, 1954). 이후 그의 가설에 대한 경험적 증명과 반대, 수정을 둘러싼 제논의가 이어져왔다. 그는 선거체제의 제요인 중 선거방식이 정당체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세 가지 경향성을 지적하였다. 첫째, 단순다수대표제 1회투표제(plurality single ballot methods)는 두 개의 정당당이 독립하여 정권교체가 일어나는 양당체제로 가는 경향이 있다. 둘째, 비례대표제는 다당체제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절대다수대표제 2차투표제(two ballot majority system)는 다당체제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다당체제는 서로 연합하는 경향이 있다(Duverger, 1954: 205). 이중 첫 번째 가설은 일반적으로 듀베르제의 제1법칙이라 칭하며 나머지 두 개는 가설로 논한다.

또한, 듀베르제는 그의 책에서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에 관한 3가지 경향성을 언급하면서 선거제도의 기계적 효과(mechanical effect)와 심리적 효과(psychological effect)를 지적했다. 기계적 효과는 제도적 과정으로서 큰 정당들이 득표율을 초과해서 의석을 점유하는 과다대표(over-representation) 현상과 군소정당들이 득표율에 훨씬 미달하는 의석을 차지하는 과소대표(under-representation) 현상으로 나타나 군소정당을 위축시키고 양당제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심리적 효과는 1석다수대표제 하에서 선거는 대정당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가 사표화하는 것을 염려하는 심리적 요인 때문에 군소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된다. 자신의 투표가 사표화하는 것을 원치 않은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당보다 당선가능성이

높은 대정당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투표심리가 양당제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비례대표제에서는 2단계 심리적 효과가 양극화에 역행하는 쪽으로 작용한다.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배분이 이루어지고, 의회구성에서 유권자의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군소정당의 지지자들은 소신에 따라 지지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득표율에 상응하는 의석을 얻게 된다. 따라서 1석 다수대표제에서와 같은 당선가능성에 따른 득표의 양극화와 의석의 과점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득표의 분산과 득표율에 비례하는 공평한 의석배분이 다당제를 낳게 한다는 것이다(Bogdanor & Butler, 1983: 49). 듀베르제 가설의 기계적 효과가 경험적으로 실증이 되었고, 심리적 효과도 기계적 효과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경험적으로 실증이 되었다(김광수, 2002: 231).

선거제도의 기계적 효과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율의 비례성 측면에서 나타난다. 선거제도의 결과를 토대로 비례성 또는 대표의 공정성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가 제안되었다. 그 중에서 득표수가 의석수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선거의 불비례성(disproportionality)이다. 선거의 불비례성은 정당의 의석 점유율이 득표율로부터 이탈한 정도를 말한다. 다당제 경향이나 다른 정당체제의 특징이 복잡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불비례성은 가장 직접적으로 현상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지표이다(Lijphart, 1995: 104-109).<sup>9)</sup> 또한 선거제도의 기계적 효과는 정당체제의 분절화(fractionalization) 또는 파편화(fragmentation)정도로 나타낸다(Rae, 1967: 55-56).<sup>10)</sup> 한편, 정

9) 본 연구에서는 John Loosemore와 Victor J. Hanby의 지수(D)와 Michael Gallagher의 지수(LSq)를 사용하려 한다. Loosemore-Hanby 지수(D)는 전체적인 일탈을 측정한다. 백분율을 단위로 할 경우에 0부터 100까지의 범위 내의 값을 갖는다.

Loosemore-Hanby의 지수  $D = \frac{1}{2} \sum |V_i - S_i|$  ( $V_i$ =득표율,  $S_i$ =의석율)

Michael Gallagher의 지수  $LSq = \sqrt{\frac{1}{2} \sum (V_i - S_i)^2}$  ( $V_i$ =득표율,  $S_i$ =의석율)

10) 만약  $V_i$ 가  $i$ 번째 정당의 득표율이라면, 정당들의 득표율에 근거한 정당체계 파편화 정도( $F_v$ )는 다음과 같다.

$F_v = 1 - \sum V_i^2$  ( $V_i$ = $i$ 번째 정당의 득표율)

$F_v$ 는 전체유권자들이 무작위로 상호 작용한다면, 유권자들이 정당의 선택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을 빈도이다. 순수한 일당체계의 파편화 정도는 0이며, 극단적인 파편화 상태에서 각 유권자가 그 자신의 정당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그때 파편화 정도는 1이라는 최대치를 갖는다. 또한 의석율에 기초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

당의 수와 관련하여 렉소(Markku Laakso)와 타게파라(Rein Taagepera)는 파편화 지수를 사용하여 ‘정당의 수’(effective number of parties)로 변경시켰는데, 이것은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에 기초하여 다시 계산될 수 있다(Lijphart, 1995: 114-119).<sup>11)</sup>

### III. 멕시코의 선거제도 개혁

멕시코에서 첫 번째 선거규정은 1857년에 공포되었고, 이후 1911-2000년 동안 대략 15번의 선거관련 법령 제·개정이 있었다(Villanueva, 1994: 142). 1911년 전까지 선거는 남성·보통·간접·비밀의 특징을 갖는다. 1911년부터 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선거에 직접선거를 도입했다. 1954년에 여성선거권이 도입되었고, 1971년에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었다(Villanueva, 1994: 143-144). 1964-2000년 동안 일관적인 멕시코 하원선거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1>

|      |         |      | 1 |     |       | (<br>+ )     |
|------|---------|------|---|-----|-------|--------------|
| 1964 | 직선·정당의원 | 소선거구 | 1 | 178 | 다수대표제 | 210 (178+32) |
| 1967 | 직선·정당의원 | 소선거구 | 1 | 177 | 다수대표제 | 211 (177+34) |
| 1970 | 직선·정당의원 | 소선거구 | 1 | 178 | 다수대표제 | 213 (178+35) |
| 1973 | 직선·정당의원 | 소선거구 | 1 | 194 | 다수대표제 | 231 (194+36) |

11) 정당의 득표율에 의거한 정당의 수는  $F_s = 1 / \sum S_i^2$  (S<sub>i</sub>=i번째 정당의 의석 점유율)  
 $N_v = 1 / \sum V_i^2$  (V<sub>i</sub>=정당의 득표율)  
 정당의 의석 점유율에 의거한 정당의 수는  $N_s = 1 / \sum S_i^2$  (S<sub>i</sub>=정당의 의석 점유율)

|      |           |      |   |     |                          |               |
|------|-----------|------|---|-----|--------------------------|---------------|
| 1976 | 직선 · 정당의원 | 소선거구 | 1 | 237 | 다수대표제                    | 277 (237+41)  |
| 1979 | 직선 · 비례대표 | 소선거구 | 1 | 300 | 지역구: 다수대표제<br>전국구: 비례대표제 | 431 (300+136) |
| 1982 | 직선 · 비례대표 | 소선거구 | 1 | 300 | 지역구: 다수대표제<br>전국구: 비례대표제 | 400 (300+100) |
| 1985 | 직선 · 비례대표 | 소선거구 | 1 | 300 | 지역구: 다수대표제<br>전국구: 비례대표제 | 400 (300+100) |
| 1988 | 직선 · 비례대표 | 소선거구 | 1 | 300 | 지역구: 다수대표제<br>전국구: 비례대표제 | 500 (300+200) |
| 1991 | 직선 · 비례대표 | 소선거구 | 1 | 300 | 지역구: 다수대표제<br>전국구: 비례대표제 | 500 (300+200) |
| 1994 | 직선 · 비례대표 | 소선거구 | 1 | 300 | 지역구: 다수대표제<br>전국구: 비례대표제 | 500 (300+200) |
| 1997 | 직선 · 비례대표 | 소선거구 | 1 | 300 | 지역구: 다수대표제<br>전국구: 비례대표제 | 500 (300+200) |
| 2000 | 직선 · 비례대표 | 소선거구 | 1 | 300 | 지역구: 다수대표제<br>전국구: 비례대표제 | 500 (300+200) |

\* 1964-1976년 동안 ‘정당의원’(Diputado de Partido: DP)이라는 제도를 사용해 왔는데, 지금의 비례대표제와 유사한 제도이다.

\*\* 하원규모 항목에서 1964-1976년 동안에는 ‘정당의원’수를 포함하는 숫자이다.

\*\*\* 자료는 Gómez Tagle(1997: 67-72)를 재구성했다.

멕시코에서 최근 30년 동안의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은 1977 · 1987 · 1990 · 1993 · 1996년에 시행되었다. 1977년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자유화를 통해 정당성을 회복하면서 통치안정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이성형, 1998: 148). 1977년 선거제도 개혁에서 헌법 개정과 새로운 “정치조직과 선거절차에 관한 연방법”(Ley Federal de Organizaciones Políticas y Procesos Electorales)이 제정되었다.<sup>12)</sup> 1977년 선거제도 개혁은 첫째, 선거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즉 선거과정에서 정당의 개입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도 선거과정에 참여를 허용하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부여했다(Orozco, 1993: 36-37). 둘째, 선거과정에 국가권력과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될 때,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대법원

12) 1977년 12월30일 연방관보에 공표되었다.

에 부여했다. 셋째, 기존의 “정당의원”(Diputado de Partido: DP) 방식을 비례대표제로 대체했다. 1977년 선거제도 개혁에서 비례대표제(Diputados de representación proporcional: DRP)를 도입하면서 의석도 예전의 41석에서 136석으로 확대되었다.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1964년에는 32명, 1967년에는 34명, 1970년에는 35명, 1973년에는 36명이 각각 정당의원 제도에 의해 하원의원이 되었으며,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던 1977년부터 136명에서 현재 200명으로 확대되었다. 넷째, 하원구성의 변화로서 총400석으로 그 인원을 고정하고, 그 중에서 300석은 최다득표제(Diputados de mayoría relativa: DMR)에 의해 하원의원으로 선출한다. 나머지 100석은 비례대표제(DRP)에 따라 각당의 비례대표명부에 의거하여 하원의원을 선출한다. 1977년 선거제도 개혁은 직접적인 요인으로 1976년 폐소화 평가절하에 따른 경제위기에서 촉발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면서 여권에서는 정치안정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로페스 보르띠요 대통령은 정치개혁(reforma del Estado)뿐만 아니라 도덕성 개혁(reforma moral)도 주장했다.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요인으로서는 1968년 학생운동도 1977년 선거제도 개혁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1968년 위기의 원인을 보면, 첫째 1954-1968년 동안의 경제성장은 농촌인구에 비해 도시인구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둘째 1960년대 후반에 자본축적 모델의 구조적 고갈현상이 심화되었다. 셋째 사적부문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국가의 자율성이 감소했으며, 반대로 사적부문의 중요성은 강화되었다. 넷째 이에 따라 중산층도 성장할 수 있었다. 1968년 위기로 개혁을 통한 정치참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68년 위기는 멕시코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포라티즘 지배공간의 재배치와 재편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1968년 학생운동 이후 1970년에 에체베리아 정부는 “동반발전”(desarrollo compartido)이라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추진했다. 전반적인 에체베리아 정부의 특징은 첫째, 교육받은 중산층 자녀흡수를 위한 빠른 관료제의 성장과 크게 확대

된 공공지출이다. 둘째, 가파른 임금상승을 허용하는 공공임금정책이다. 셋째, 인구성장, 농수산업의 애로, 실업·가난 등에서 발생하는 토지에 대한 상승된 욕구를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고임금정책, 확대공공지출정책, 적자재정운용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했고, 이러한 요인들은 1976년 경제위기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야당은 정부에 대한 정치불만의 표시로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후보를 출마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1976년 대통령 선거는 야당소속 대통령후보가 없이 여당인 PRI 후보 단독출마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1976년 경제위기, 야당 대통령후보 없는 대통령 선거 등은 통치엘리트에게 위기의 시그널을 보냈다. 다른 한편, 야당 대통령후보 없는 선거전에서 로페스 뽀르띠요는 정치개혁과 도덕성개혁을 주장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로페스 뽀르띠요는 통치안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정치개혁을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으로써 1977년 선거제도 개혁은 이해될 수 있다.

1987년 선거제도 개혁은 야당의 압력을 수용하면서도 구체적인 사항들은 정부의 불안심리가 배어있다고 할 수 있다(이성형, 1998: 155). 1987년 선거제도 개혁은 첫째, 하원구성에서 비례대표제에 의한 하원의원 선출은 100석에서 200석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하원규모는 총 400석에서 500석으로 확대되었다(Orozco, 1993: 76-80). 둘째, PRI를 강화시키기 위해 ‘통치안정조항’(candado de gobernabilidad)을 도입했다. 상대다수를 획득한 정당이 51%를 획득하지 못했을 때 표를 몰아주어 인위적으로 절대다수를 만들 수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의석수는 70%를 초과할 수 없다. 셋째, 선거소송재판(Tribunal de lo Contencioso Electoral)이 창설되었는데 이것은 사법적인 틀 내에서 정당에게 투명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소송 결과에 대한 신뢰를 구축했다. 이에따라 선거재판을 위한 연방선거법(Código Federal Electoral)을 제정했다(Orozco, 1993: 85-86). 넷째, 1977년 선거과정에서 정당의 참여를 인정했는데, 1987년에는 선거에서 정당재정지원 등 정당의 권리를 확대했다. 1987년 선거제도 개혁 배경에는 경제·정치·사회 전반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경제적인 측면에

서 첫째, 멕시코 석유가격하락은 수출에 의한 수입을 급격히 감소시켰다(Cárdenas, 1996: 141-142). 둘째, 멕시코 외채가 1970년 60억 달러에서 1982년 800억 달러로 증가해서 매년 29%씩 증가했다(멕시코 재무부, 1988: 24). 이에 따라 외채이자 지급은 멕시코 국제수지를 악화시켰다(Ogaz, 1996: 41-41; 멕시코재무부, 1988: 25). 이러한 경제상황은 폐소화 평가절하 압력으로 작용했고, 마침내 1982년 9월1일 로페스 보르띠요(López Portillo: 1976-1982)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은행을 국유화한다(López, 1982). 사회적으로는 1985년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Ortiz, 1997: 53).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노력으로 복구작업을 할 수 있었다. 반면에 정부의 준비부족과 부패를 관찰할 수 있는 계기를 시민들에게 제공했다(Cansino, 1998: 180-181). 1985년 지진사태에서 멕시코 시민사회는 정부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으로 복구작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Salazar, 1996: 55). 이후 많은 시민단체들이 결성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민일반으로 하여금 그들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조직을 해야하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었다(Sergio, 1996: 14-15). 1985년 지진사태는 1987년 멕시코자치주(D.F) 대표회의(Asamblea de Representantes del Distrito Federal) 창설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다른 한편,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1986년 당시 여당인 PRI 내에 비판적인 소장파 의원들은 대통령후보 선정과정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공정성을 요구하면서 “민주파”(Corriente Democrática: CD)를 구성했다(Meyer et al., 1989: 311). PRI를 탈당한 민주파 의원들과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민족민주연합”(Frente Democrático Nacional: FDN)을 결성했고, 이후에 “민주혁명당”(PRD)으로 공식출범했다(Rodríguez, 1991: 391-392; Zárate, 1995: 368-369). 여당인 PRI에서 민주파의 탈당은 1929년에 구축된 정치제도의 깊어져 가던 균열을 더욱 드러나게 했다(Garrido, 1993: 199).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6년에 이어 1982년의 경제위기와 경기침체, 1985년 지진사태로 인한 시민사회의 각성, 1986년 정치엘리트 간의 갈등은 1987년 선거제도 개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한 실천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역사상 가장 어려운 선

거가 예상되는 1988년을 대비하고 일정한 정치안정을 통하여 1988년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선거제도 개혁은 첫째, 선거개혁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새로운 “선거제도와 선거절차에 관한 연방법”(Código Fed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을 공포했다. 둘째, 선거 제반사항을 관장하는 “연방선거위원회”(Instituto Federal Electoral: IFE)를 창설했다. 연방선거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자율적, 상설적, 법인적 성격을 띠며 자체예산을 갖는 기관이다. 셋째, 선거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전문서비스’(Servicio Profesional Electoral)제도를 도입했다. 1990년 선거제도 개혁은 전반적으로 1987년 선거제도 개혁 당시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실시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데 라 마드리드(De la Madrid: 1982-1988)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심각한 상황에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1987년 증권폭락이 발생했다(Cárdenas, 1996: 153). 정치측면에서 1985년 지진사태는 1987년 멕시코자치주(D.F)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멕시코자치주(D.F) 정부와 시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Pérez et al., 1995: 311; Salazar, 1996: 202-293). 다른 한편, 1988년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시스템붕괴’로 인한 정권의 정당성 하락은 1990년 선거제도 개혁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90년 선거제도 개혁은 시민사회와 야당의 압력이 어느 때 보다도 상당히 작용했다.

1993년 선거제도 개혁은 첫째, 연방선거위원회(IFE)의 구성을 보다 민주화했다. 둘째,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통치안정조항’을 완화해서 야당은 최소 37%를 보장받게 되었다. 셋째, 선거소송과 관련하여 연방선거재판(Tribunal Federal Electoral)의 권한을 강화했다. 넷째, 연방선거 예비결과의 즉시적 공표를 위한 방법이 도입되었다. 이것은 1988년 선거에서 선거개표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한 전반적인 선거결과에 대한 의혹 때문에, 예비선거결과의 즉각적인 공표는 제도적 안정에도 기여했고 선거과정의 정당성도 강화시켰다. 1993년

개혁은 멕시코 사회의 전반적인 인구·사회적 측면에서 변화로 인해 정치참여 형태의 변화를 초래했다. 도시 중산층이 코포라티즘 협약에서 소외되었고 시민운동이 성숙해짐에 따라 기존 정치체제도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다(Villamil, 1995: 193-194). 이러한 상황에서 살리나스 대통령에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민주화, PRI 당내 민주화, 민주적인 선거법 등이 요구되고 있었다(Ramírez, 1995: 234-237). 1993년 선거제도 개혁은 1990년 때 보다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정치압력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살리나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추구로 인해 포괄적인 정치개혁과 정치안정이 요구되던 시기에 실시되었다. 그러나 살리나스의 개혁은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부분적이고 개인적인("estilo personal de gobernar") 측면에서의 대응이라 할 수 있다.

1994년 정치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와중에 세디요(Ernesto Zedillo)는 대통령에 취임했다. 세디요 대통령은 복잡하고 누적된 정치상황을 풀기 위해 정치개혁이 필요했고, 특히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여러 달 동안 야당인 PAN과 PRD, 시민대표들과 모임을 갖고 선거개혁을 위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González, 1996: 187). 이러한 합의에서 세디요 정부와 PRI가 추진해야 할 폭넓은 아젠다와 구체적인 사항 10개가 제시되었다(Villamil, 1998: 90-91). 이러한 과정에서 야당도 선거에 관한 핵심사안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을 통해 PRI로 하여금 합의된 내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야당의 새로운 분열에 의하지 않고서는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변경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Cansino, 1998: 36-37). 1996년 선거제도 개혁은 첫째, 연방선거위원회에서 행정부 대표위원직을 폐지했다. 이것은 야당에 의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사안으로써 전통적으로 총괄위원회(Conse General)를 주재하던 내무부 장관이 더 이상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정당의 조건부 등록제를 폐지했다. 따라서 기존의 확정 정당등록과 조건부 정당등록이라는 이원체제에서 일원체제로 단일화 되었다. 다른 한편, 정당이 정당등록과 등록에 따른 권리를 위해 최소득표율 1.5%에서 2%로 상향조정했다. 셋째, 국고의

재정지원으로서 전체국고보조금의 30%는 각 당에 균등하게 분배되고, 나머지 70%는 직전 연방선거 득표율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 분배된다. 무엇보다도 1996년 선거제도 개혁은 1994년의 전반적인 멕시코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첫째, 북미자유무역협정(TLC) 개시일이며 선거계절인 1994년 새벽벽두에 치아빠스에서 무장봉기가 발생했다. 치아빠스에서 농민들의 무장봉기는 멕시코 사회에서 갈등의 폭과 깊이를 볼 수 있게 했다. 치아빠스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 아닌 오랜 경제적·물리적 준비와 멕시코 사회의 구조적 갈등의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무장봉기 시점의 선택도 멕시코의 이해가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치아빠스 사건은 즉시 전세계로 전파되었다. 2003년 현재 치아빠스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고 정부의 저항도전략은 계속되고 있다. 둘째, 1994년 3월23일 멕시코 북서부인 로마스 파우리나스(Lomas Taurinas)에서, 1993년 11월27일 PRI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꼴로시오가 암살되었다. 꼴로시오의 암살은 멕시코 정치체제와 정치문화에서 전통적인 게임규칙의 단절을 의미한다. 1928년 대통령에 재선된 오브레곤 암살이후에 멕시코에서 어떠한 대통령 또는 PRI소속 대통령 후보자를 암살하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사실, 대통령 재선금지 조항도 이러한 사태를 피하려는 정치공동체의 노력이었다. 이로 인해, 살리나스정권 ‘동안’ 유입된 외국투자의 40%가 일시에 빠져나갔다. 셋째, PRI 사무총장인 루이스 마시우(José Francisco Luis Massieu)가 멕시코시(D.F)에서 1994년 9월28일에 암살되었다. 살리나스 대통령 여동생의 남편이며 전 게레로(Guerrero) 주지사였던 루이스 마시우는 PRI소속 상·하원 의원들, 정당지도부, 야당 등 정치공동체와 폭넓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미래에 충분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으나 암살되었다. 이것은 여당인 PRI가 권력공간에서 표현되는 갈등을 평화적이고 협상의 방식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넷째, 살리나스가 대통령직을 무사히 세디요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양한 20일쯤 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error de diciembre”). 멕시코 금융위기 파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남미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디요 대통

령은 정치개혁 필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시행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번의 선거제도 개혁이 시행되었고, 이러한 선거제도는 점진적이고 완만했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서 선거경쟁이 증가되었다. 특히, 1997·2000년 선거에서 정당들의 높은 경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PRD가 기존의 정당체제에서 출현할 수 있었고, PRD의 출현으로 PAN의 경쟁력을 자극하여 결과적으로 멕시코 정당체제에 변화를 초래했다. 멕시코에서 대부분의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엘리트에 의한 통치안정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치자유화의 한 방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선거제도 개혁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제도자체의 효과를 산출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들은 중국적으로 멕시코가 민주주의를 성취하는데 기여했다.

#### IV. 하원 선거결과 분석

본장에서는 선거분석을 위하여 2장에서 이미 언급한 불비례성과 정당수의 관점에서 분석하려 한다. 먼저 선거구와 관련하여 멕시코는 1선거구 1인선출의 소선거구제만을 채택해 왔기 때문에 1선거구 2인선출 중선거구제 등과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하원 총의석수 변화를 중심으로 불비례성과 정당수를 살펴보려한다. 두 번째는 다수대표제(지역구)와 비례대표제(전국구)에서 불비례성과 정당수를 살펴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멕시코는 실제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함께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멕시코에서 혼합형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1.

1) 지역구 총의석수와 불비례성

< 1> (LSq)

|            | (LSq) |
|------------|-------|
| 1964-1976년 | 3.6   |
| 1979-2000년 | 4.8   |

- \* 전국구(비례대표제) 제도가 불비례성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위 값은 지역구(다수득표제) 의석율을 기준으로 한다.
- \*\* 멕시코는 1선거구1인의 소선거구제만을 채택해 왔기 때문에 1선거구2인 중선거구제 등 1선거구당 의석수와 불비례성을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총의석수 변화를 기준으로 불비례성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려 한다. 1964-1976년(총지역구 의원수 300석 미만)을 하나의 범주로 하고, 1979-2000년(총지역구 의원수 300석 이상)을 다른 범주로 구분하려 한다.

<표 1>에서 1964-1976년 동안의 평균적인 불비례지수(LSq) 값은 3.6이고, 1979-2000년 동안의 평균적인 불비례지수 값은 4.8이다. 양 시기를 비교하면 총의원수가 300명 일 때(1979-2000)가 평균 총의원수 192명(1964-1976)일 때 보다 불비례지수 값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 2> 1964-1976 (LSq)

| 1964 | 3.68 |
|------|------|
| 1967 | 3.91 |
| 1970 | 4.07 |
| 1973 | 4.61 |
| 1976 | 1.91 |

1964-1976년 동안 계속해서 불비레지수가 상승하다가 1976년 불비레지수가 1.91로 매우 낮아졌다. 여당인 PRI가 1964년 86%를 획득해서 전체 지역구인 178석 모두를 차지했다. 1967년에도 PRI는 83%를 획득해서 전체지역구 177석에서 175석을 차지했다. 나머지 2석은 야당이 각각 1석씩 획득했다. 1970년에 PRI는 83%로 전체지역구 178석 모두를 차지했다. 1973년에는 77%로 전체지역구 194석에서 192석을 차지했고, 야당인 PAN이 나머지 2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1976년에 PRI는 85% 획득으로 예전과 비슷한 비율을 획득했으나, 전체지역구 237석에서 194석 밖에 획득하지 못했다. 나머지 43석은 야당에게 10석 정도씩 분포된다. 따라서 불비레지수가 1.91로 급격히 떨어졌다.

&lt; 3&gt; 1979-2000

(LSq)

| 1979 | 4.06 |
|------|------|
| 1982 | 4.85 |
| 1985 | 4.61 |
| 1988 | 5.06 |
| 1991 | 5.37 |
| 1994 | 6.11 |
| 1997 | 4.55 |
| 2000 | 4.08 |

전체지역구가 237석에서 300석으로 확대된 1979년 선거에서 PRI는 74% 획득으로 전체지역구 300석에서 291석을 획득했다. 1982년에는 69%로 전체지역구 300석에서 298석을, 1985년에는 68%로 289석을, 1988년에 51%로 233석을 획득했고 야당인 PAN이 38석, FDN가

29석을 획득했다. 1991년 61%로 290석을 나머지 10석은 PAN이 차지했다. 1994년 50%로 274석을, 1997년 23%로 239석을, 2000년 PRI는 36%로 147석, PAN은 38%로 137석, PRD는 18%로 12석을 차지했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비레지수는 1979년부터 1994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1997년을 기점으로 점차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멕시코의 다수대표제에서 총의원수 증가는 불비레성을 증가시켰다. 이것은 총의원수의 증가가 상당부분 PRI로 흡수되었음을 의미한다.

## 2) 총의석수와 정당의 수

< 표 4> ( )

| 1964-1976 | 7    | 1.4 |
|-----------|------|-----|
| 1979-2000 | 21.4 | 2.7 |

<표 4>는 총의석수 변화에 따라 구분한 두 시기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질적인 정당의 수(effective number of parties)와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1964-1976년 평균적인 정당의 수는 1.4이고, 1979-2000년 평균적인 정당의 수는 2.7이다. 따라서 다수대표제에서 총의석수 변화는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 때, 선거정당의 수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에서 가장 적은 선거정당의 수는 1.3이고, 가장 많은 선거정당의 수는 1.6이다. 두 번째 시기에서 가장 적은 선거정당의 수는 1.8이고 가장 많은 선거정당의 수는 4이다. 위 <표 4>는 선거정당의 수를(득표율기준) 기준으로 한 비교이며, 선거제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의석율을 기준으로 한 의회정당의 수를 보아야 한다. 즉 심리적 효과는 선거정당의 수를 통해 살펴볼 수 있지만, 기계적 효과는 의회정당의 수로 전환될 때 나타난다. 선거에서 유권자가 사표방지 심리에 의하여 군소정당에

지지를 보내지 않으므로 득표한 정당의 수(선거정당)는 줄어들지만 제도 자체의 효과는 득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의회내 정당수(의회정당)는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 5> ( )

|           |       |     |
|-----------|-------|-----|
|           |       |     |
| 1964-1976 | 5.61  | 1.1 |
| 1979-2000 | 12.95 | 1.6 |

첫 번째 시기의 평균적인 의회정당의 수는 1.1이고, 두 번째 시기의 평균적인 의회 정당의 수는 1.6으로 총의석수가 증가함으로써 정당의 수가 0.5 증가함으로써 평균적인 의회정당의 수가 약간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를 보면, 두 번째 시기의 의회정당의 수의 상승은 멕시코의 정치적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총의원수가 300명으로 증가된 1979-1994년까지 평균적인 의회정당의 수는 1.1로서 첫 번째 시기와(1964-1976) 평균적인 의회정당의 수는 동일하다. 따라서 지역구(다수대표제)에서 총의석의 증가는 실질적인 의회정당의 수에 영향을 약간 미쳤으나, 그러한 효과는 구체적인 사회의 상황에 따라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 총의석수 증가와 상관없이 1964-1994년까지 강력한 1당체제였고, 1997년 이후(1997년 3.7, 2000년 2.2) 평균 2.95로써 다당체제라 할 수 있다.

< 6>

|           |     |     |     |
|-----------|-----|-----|-----|
|           |     |     |     |
| 1964-1976 | 1.4 | 1.1 | 0.3 |
| 1979-2000 | 2.7 | 1.6 | 1.1 |

<표 6>을 보면, 지역구(다수득표제) 총의석수 증가는 선거정당수(득표율기준)에 영향을 미쳤으나, 의회정당수(의석율기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멕시코에서 다수득표제에 의한 총의석수 증가는 심리적 효과(선거정당수)는 있었으나, 기계적 효과(의회정당수)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 총의석수 증가에 따른 의회정당수의 변화는 기계적 효과라기 보다는 구체적인 멕시코사회의 제요인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 2.

멕시코에서는 단순다수대표제를 변경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수대표제의 효과를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이론의 적용을 통해 그 효과를 유추해 보자. 우선 멕시코의 선거결과가 “다수대표제는 일반적으로 양당제 경향을 띤다”라는 듀베르제 제1가설에 부합하는가를 살펴보자. 레이(D. Rae)에 의하면 양당체제란 득표율에 입각할 경우 제1정당의 득표율이 0.70이하이면서 ( $P_v < 0.70$ ), 양대정당의 득표율의 합이 0.90 이상이어야 한다( $W_v > 0.90$ ). 의석율에 입각할 경우는  $P_s < 0.70$ ,  $W_s > 0.90$  이어야 한다(D. Rae, 1967: 48-58).

< 7>

|     | 1964 | 1967 | 1970 | 1973 | 1976 | 1979 | 1982 | 1985 | 1988 | 1991 | 1994 | 1997 | 2000 |
|-----|------|------|------|------|------|------|------|------|------|------|------|------|------|
| 득표율 | 97.9 | 95.8 | 97.6 | 93.9 | 94.1 | 85.6 | 86.8 | 84.4 | 80.2 | 79.1 | 76.0 | 68.8 | 75.1 |
| 의석율 | 100  | 99.4 | 100  | 99.9 | 90.3 | 98.3 | 99.7 | 99.3 | 90.3 | 99.1 | 97.9 | 65.5 | 94.0 |

득표율과 의석율 모두에 입각해서 볼 때, 양당제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는 2000년 선거밖에 없다. 2000년 선거는 PAN이 38.24%로 지역구 의석의 49%인 147석을, PRI는 36.89% 득표로 지역구 의석의 45%인 137석을 차지하였다. 1964-2000년 전 시기 동안 득표율 평균은 85.8%이고 가장 높을 때는 1964년에 97.9%이며, 가장 낮은 때는

1997년으로서 68.8%이다. 또한 전 기간 동안에 의석을 평균은 94.9%이고, 가장 높은 때는 1964년, 1970년에 100%이며, 가장 낮은 때는 1997년 65.5%이다. 득표율 기준으로 멕시코 정당체제는 1964-1994년 동안 1개의 강력한 패권정당과 그밖의 군소정당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7-2000년 동안은 다당체제라 할 수 있다.

< 8>

|      | 1964 | 1967 | 1970 | 1973 | 1976 | 1979 | 1982 | 1985 | 1988 | 1991 | 1994 | 1997 | 2000 |
|------|------|------|------|------|------|------|------|------|------|------|------|------|------|
| 선거정당 | 1.3  | 1.4  | 1.4  | 1.6  | 1.3  | 1.8  | 2.0  | 2.0  | 2.7  | 2.5  | 3.0  | 4.0  | 3.4  |
| 의회정당 | 1.0  | 1.0  | 1.0  | 1.0  | 1.5  | 1.0  | 1.0  | 1.0  | 1.6  | 1.0  | 1.2  | 3.7  | 2.2  |

<그림 8>에서 의회정당수(의석율기준)를 기준으로 할 때 1964-2000년 평균은 1.4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1964-1994년까지 평균 1.1로써 1개의 패권정당이 존재하고, 1997-2000년 평균은 2.95로써 3당 정도의 다당제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 선거정당수를 기준으로 할 때, 1964-2000년 동안 전체 평균은 2.2이고, 1979-2000년 동안 전체 평균은 2.7로써 3당 정도의 다당제 성격을 보이고 있다. 특히 FDN의 출현으로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선거정당수 평균은 3.1로써 다당체제를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멕시코의 다수대표제는 선거정당을 기준으로 할 때 다당제이고, 의회정당을 기준으로 할 때 1994년까지는 1개의 패권정당체제였고, 1997년부터 다당제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 3.

이상에서 비교한 선거결과는 모두 지역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다수대표제와 정당체제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국구제도(비례대표제)의 변수를 통제했기 때문이다.

### 1) 전국구 제도와 불비례성

< 9> (LSq)

|     | 1964 | 1967 | 1970 | 1973 | 1976 | 1979 | 1982 | 1985 | 1988 | 1991 | 1994 | 1997 | 2000 |
|-----|------|------|------|------|------|------|------|------|------|------|------|------|------|
| 전국구 | 9.29 | 9.13 | 9.12 | 8.88 | 9.22 | 8.21 | 8.63 | 8.25 | 6.27 | 6.74 | 6.22 | 1.75 | 0.36 |
| 지역구 | 3.68 | 3.91 | 4.07 | 4.61 | 1.91 | 4.06 | 4.85 | 4.61 | 5.06 | 5.37 | 6.11 | 4.55 | 4.08 |

멕시코는 1964-1976년 동안 ‘정당의원’(Diputado de Partido: DP)제도를 운용하다가 1979년부터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1976년까지 ‘정당의원’ 시절에는 40명 정도를 비례대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의석수를 배분했고, 1979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100석 이상을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의석수를 배분하고 있다. <표 9>에서 전국구 제도와 지역구 제도의 불비례성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전국구에서 불비례성은 1964-2000년 동안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에서는 1964-1994년 30여년 동안 불비례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1997년을 기점으로 불비례성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특이한 점은 전국구의 불비례성이 지역구의 불비례성 보다 항상 더 높았으나, 1997년부터는 전국구의 불비례성이 지역구의 불비례성 보다 낮은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전국구 제도가 1997년부터 불비례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낳았으며, <그림 10>에서와 같이 정당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비례대표제의 총의석수가 증가됨에 따라 불비례성은 점차적으로 낮아졌으며, 특히 1997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낮아졌다.

### 2) 전국구 제도와 정당수

지역구 정당수(다수대표제의 정당수)를 보면, 1964-1994년까지 평균 1.1로서 1개의 패권적 정당이 존재하는 정당체제이다. 그러나 전국구 정당수(비례대표제의 정당수)는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1964-1976동안 평균 정당수는 2.5이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전국구 의석이 100-200석으로 증가하던 시기인 1979-2000년 평균 정당수

는 4.4이다. 이것은 비례대표제가 다수대표제의 불비례성을 줄이고, 정당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허약한 여러 군소정당에게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10> ( ) ( )

|     | 1964 | 1967 | 1970 | 1973 | 1976 | 1979 | 1982 | 1985 | 1988 | 1991 | 1994 | 1997 | 2000 |
|-----|------|------|------|------|------|------|------|------|------|------|------|------|------|
| 전국구 | 2.5  | 2.5  | 2.5  | 2.3  | 2.8  | 7.1  | 3.3  | 7.1  | 2.5  | 4.7  | 2.8  | 4.1  | 3.3  |
| 지역구 | 1.0  | 1.0  | 1.0  | 1.0  | 1.5  | 1.0  | 1.0  | 1.0  | 1.6  | 1.0  | 1.2  | 3.7  | 2.2  |

\* 정당수는 의석을 기준의 정당수(의회정당수)

4. ( + )

#### 1) 혼합형과 불비례성

멕시코의 선거제도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혼합형이다. 1964-1976년까지는 다수대표제 177-237석, ‘정당의원’ 32-41석으로 전체의석 210-277석이었다. 1979년에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의석수를 획기적으로 높힘으로서 400-500석으로 증가했다. 1964-1976년 동안 총의석수가 210-277석일때 평균 불비례성은 2.1이고, 1979-2000년 동안 총의석수가 400-500석일때 평균 불비례성은 2.4로서 총의석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비례성도 증가했다.

< 11> (LSq)

|           |     |
|-----------|-----|
|           |     |
| 1964-1976 | 2.1 |
| 1979-2000 | 2.4 |

## 2) 혼합형과 정당수

멕시코의 혼합형제도와 의회정당수를 보면 1964-1976년 동안 의회 정당수는 1.4에서 1979-2000년 동안 2.3으로 증가했다.

< 12>

|           |     |
|-----------|-----|
|           |     |
| 1964-1976 | 1.4 |
| 1979-2000 | 2.3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혼합형을 불비례성과 의회정당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표 13>에서 다수대표제의 평균 불비례성은 4.2이고, 비례대표제의 평균 불비례성은 7.4이다.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취하는 멕시코의 혼합제의 평균 불비례성은 2.2이다. 선거방식에 따른 불비례성 크기는 비례대표제 > 다수대표제 > 혼합제 순서이다. 따라서 멕시코의 혼합방식이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불비례성을 많이 완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13>

(LSq)

|           |     |     |     |
|-----------|-----|-----|-----|
|           |     |     |     |
| 1964-1976 | 3.6 | 9.1 | 2.1 |
| 1979-2000 | 4.8 | 5.7 | 2.4 |
| 전체평균      | 4.2 | 7.4 | 2.2 |

<표 14>에서 최근 20년(1979-2000) 동안 선거방식에 의한 의회정당수를 보면, 다수대표제는 1.6이고, 비례대표제는 4.4이며, 멕시코형 혼합제에서는 2.3이다. 1979-2000년 동안 멕시코 정당체제는 의회정

당수 기준으로 1.6~4.4 범위에서 다당제라 할 수 있다. 특히, 1997-2000년 선거결과에 따르면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회정당수는 확실히 다당체제임을 관찰할 수 있다.

< 14>

| 1964-1976 | 1.1 | 2.5 | 1.4 |
|-----------|-----|-----|-----|
| 1979-2000 | 1.6 | 4.4 | 2.3 |
| 전체평균      | 1.4 | 3.7 | 2.0 |

지금까지를 종합해보면, 멕시코의 다수대표제에서 총의원수의 증가는 불비례성을 증가시켰다. 이것은 총의석수의 증가가 상당부분 PRI로 흡수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수대표제에서 총의원수의 증가는 선거정당수에는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의회정당수에는 그 영향이 미약하다. 의회정당수의 변화는 총의원수 증가보다는 구체적인 사회의 제요인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 다수대표제는 선거정당기준으로 다당제이고, 의회정당 기준으로는 1997년부터 다당제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비례대표제와 불비례성과 관계는 총의석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비례성은 감소했다. 비례대표제와 정당수를 보면, 비례대표제는 정당수를 확대시켰다. 따라서 멕시코에서 비례대표제는 불비례성을 줄이고 패권적 정당체제의 모습을 다당제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허약한 군소정당에게 의석을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V. 맺는 말

선거제도는 정치적 권력관계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특정한 사회

그룹이나 정치집단이 기존의 확립된 사회·경제적 질서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특정한 방식의 선거제도를 관철하는 문제와 다양한 정치집단이 특정한 선거제도의 선택에 합의하는 문제는 정치적 세력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선거제도의 개혁은 사회계급과 정치집단들 사이의 대결과 타협의 산물이다. 역사적으로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시기적으로 보통·평등 선거권의 확산, 사회운동의 전개, 노동자 정당의 대두 등 전통적 정당의 재편성과 연관을 가지면서 진행되었다(황희곤, 1996: 138-139).

한 나라의 선거제도가 그 나라의 정당정치에 영향을 끼치며 반대로 정당관계가 선거제도의 형태를 결정한다. 선거제도와 정당정치와의 상관관계는 곧 선거제도와 정치의 안정과 불안정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다. 양당제란 그 사회 지도층이 만들어낸 이분법에 따라 국민의 생각과 행동을 정리해 내는 것으로 이른바 계도민주정치(guided democracy)에 해당한다. 이에 비하여, 다당제는 밑으로부터 국민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집결해 내는 대중정치(Mass politics)라고 할 수 있다. 양당제가 보편적 의사를 중시한다면, 다당제는 개별적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단순히 선거제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사회집단의 이해관계의 표출을 의회내로 유도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정치체도로 편입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다(Burke, 1961: 151; MacIver, 1964: 396). 그러나 이러한 비례대표제의 본래의 의도를 도외시한 채 여당의 승부조작책의 중요한 도구로 전락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본 논문의 결과에 의하면, 멕시코에서 다수대표제는 득표율(선거정당)을 기준으로 할 때 1988년을 기점으로 다당제의 특징을 보이고, 의석율(의회정당)을 기준으로 할 때 1964-1994년 동안 1개의 패권정당과 미약한 군소정당이 존재하는 정당체제이나, 1997년부터 실질적인 다당제의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듀베르제의 ‘다수대표제는 양당제 경향을 띤다’라는 가설은 멕시코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멕시코에서 다수대표제가 양당제 경향을 갖지 않는 것은 독특

한 멕시코의 역사, 정치문화, 정치구조와 관련이 있다. 즉 1994년까지 멕시코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와 자원을 독점했던 PRI의 존재와 강력한 대통령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멕시코에서 비례대표제는 의석율(의회정당)을 기준으로 할때, 1964-1976년 동안 평균 정당수는 2.5이고, 1979-2000년 동안 평균 정당수는 4.4이다. 따라서 멕시코에서 비례대표제는 듀베르제의 가설 ‘비례대표제는 다당제 경향을 띤다’라는 가설과 일치하고 있다. 선거제도의 효과에 따라 선거정당수가 의회정당수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N_v > N_s$ ). 그러나 멕시코의 비례대표제에서는 의회정당수가 선거정당수보다 많다( $N_v < N_s$ ). 따라서 멕시코에서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이 과다대표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멕시코 정당체제에서 PRI의 패권적 정당의 특징을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군소정당을 의회정당으로 흡수하여, 다당제로 보이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7월 현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의 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야당인 PRI가 제1당이 되었고, 여당인 PAN은 제2당이 되었다. PRD는 20% 미만으로 제3당에 위치한다. 2006년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었다. 2006년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멕시코 민주주의 공고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선거로 세계의 주목이 예상된다. 여기서 멕시코 민주주의라함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선호가 71년 동안 유지되었던 멕시코 권력구조에 질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즉, 시민의 정치적 의사가 투표를 통해 대통령, 상원, 하원, 주지사 등에 야당소속 경쟁자들을 당선시킴으로서 권력의 최고 정점 수준에서 권력교체가 이루어졌고, 또한 멕시코 권력구조에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변화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2003년 현재 약 7명 정도가 대통령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2003년 하원선거 결과를 보면, PRI 소속 대통령후보자의 당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선거돌풍이 발생한다면, 현재 멕시코시 시장인 PRD 소속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의 당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멕시코인들의 선택에 달려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Abstract

El presente estudio aborda las dimensiones y procesos por los que México ha tenido que pasar para llegar a ganar lo que todavía es hoy un espacio democrático titubeante, un espacio civil emergente, pero no plenamente configurado. Se ha elegido México porque en él se da una duplicidad muy relevante de los factores de cambio. Por un lado, hay una quiebra de la cohesión de la elite política que conduce a una liberalización política promovida por el propio régimen como medio de aliviar las tensiones internas que amenazan con destruirlo súbitamente: por otro, a raíz de los acontecimientos de 1968 se produce el nacimiento, titubeante al principio, arrollador tras los seísmos de 1985, de una sociedad civil dinámica y combativa que está llevado al país hacia una democracia real.

Este estudio analizará la relatividad entre el sistema electoral y el sistema del partido político en México con el fin de probar las hipótesis del Duverger M. sobre la representación de mayoría relativa = bipartidismo y la representación proporcional = multipartidismo. Por otro lado centrará su atención en las sucesivas reformas electorales que han permitido encauzar la democracia en México.

Key Words: Mexican Democratization, Political Change, Electoral Reform, Political Party System, Democracy / 멕시코, 민주화, 정치변동, 선거개혁, 정치체제, 민주주의.

논문투고일자: 2003. 10. 15

게재확정일자: 2003. 11. 14

&lt; 1&gt;

|      | Nv  | Ns   | Fv   | Fs   | D     | LSq  |     |
|------|-----|------|------|------|-------|------|-----|
| 1964 | 1.3 | 1.00 | 0.25 | 0.00 | 13.63 | 3.68 | 178 |
| 1967 | 1.4 | 1.04 | 0.31 | 0.04 | 15.36 | 3.91 | 177 |
| 1970 | 1.4 | 1.00 | 0.31 | 0.00 | 16.61 | 4.07 | 178 |
| 1973 | 1.6 | 1.04 | 0.39 | 0.04 | 21.37 | 4.61 | 194 |
| 1976 | 1.3 | 1.53 | 0.28 | 0.35 | 3.65  | 1.91 | 237 |
| 1979 | 1.8 | 1.06 | 0.45 | 0.06 | 16.52 | 4.06 | 300 |
| 1982 | 2.0 | 1.02 | 0.51 | 0.02 | 23.61 | 4.85 | 300 |
| 1985 | 2.0 | 1.08 | 0.52 | 0.08 | 21.30 | 4.61 | 300 |
| 1988 | 2.7 | 1.60 | 0.64 | 0.40 | 25.65 | 5.06 | 300 |
| 1991 | 2.5 | 1.08 | 0.61 | 0.08 | 28.90 | 5.37 | 300 |
| 1994 | 3.0 | 1.21 | 0.67 | 0.18 | 37.43 | 6.11 | 300 |
| 1997 | 4.0 | 3.70 | 0.75 | 0.73 | 20.79 | 4.55 | 300 |
| 2000 | 3.4 | 2.20 | 0.71 | 0.56 | 16.76 | 4.08 | 300 |

\* Nv: 선거정당수, Ns: 의회정당수, Fv: 득표율 기준 파편화율, Fs: 의석율 기준 파편화율, D: 불비례성, LSq: 불비례성

&lt; 2 &gt;

|      | Ns  | Fv   | Fs   | D     | LSq  |     |
|------|-----|------|------|-------|------|-----|
| 1964 | 2.5 | 0.26 | 0.60 | 86.36 | 9.29 | 32  |
| 1967 | 2.5 | 0.31 | 0.61 | 83.50 | 9.13 | 34  |
| 1970 | 2.5 | 0.31 | 0.60 | 83.38 | 9.12 | 35  |
| 1973 | 2.3 | 0.39 | 0.58 | 78.97 | 8.88 | 36  |
| 1976 | 2.8 | 0.28 | 0.65 | 85.16 | 9.22 | 41  |
| 1979 | 7.1 | 0.56 | 0.86 | 67.50 | 8.21 | 136 |
| 1982 | 3.3 | 0.45 | 0.70 | 74.62 | 8.63 | 100 |
| 1985 | 7.1 | 0.52 | 0.86 | 68.14 | 8.25 | 100 |
| 1988 | 2.5 | 0.64 | 0.60 | 39.42 | 6.27 | 200 |
| 1991 | 4.7 | 0.61 | 0.79 | 45.59 | 6.74 | 200 |
| 1994 | 2.8 | 0.67 | 0.65 | 38.89 | 6.22 | 200 |
| 1997 | 4.1 | 0.75 | 0.76 | 3.08  | 1.75 | 200 |
| 2000 | 3.3 | 0.71 | 0.70 | 0.36  | 0.60 | 200 |

&lt; 3 &gt;

|      | Nv  | Ns  | Fv   | Fs   | D    | LSq  |     |
|------|-----|-----|------|------|------|------|-----|
| 1964 | 1.3 | 1.4 | 0.25 | 0.30 | 4.57 | 2.13 | 210 |
| 1967 | 1.4 | 1.4 | 0.31 | 0.33 | 3.40 | 1.84 | 211 |
| 1970 | 1.4 | 1.4 | 0.31 | 0.32 | 4.84 | 2.20 | 213 |
| 1973 | 1.6 | 1.5 | 0.39 | 0.32 | 6.41 | 2.53 | 231 |
| 1976 | 1.3 | 1.5 | 0.28 | 0.35 | 3.65 | 1.91 | 277 |
| 1979 | 1.8 | 2.2 | 0.45 | 0.56 | 8.06 | 2.82 | 431 |
| 1982 | 2.0 | 1.8 | 0.51 | 0.45 | 7.51 | 2.74 | 400 |
| 1985 | 2.0 | 1.9 | 0.52 | 0.48 | 6.52 | 2.55 | 400 |
| 1988 | 2.7 | 2.6 | 0.64 | 0.62 | 2.47 | 1.57 | 500 |
| 1991 | 2.5 | 2.3 | 0.61 | 0.58 | 2.98 | 1.72 | 500 |
| 1994 | 3.0 | 2.3 | 0.67 | 0.58 | 8.29 | 2.87 | 500 |
| 1997 | 4.0 | 3.0 | 0.75 | 0.67 | 5.75 | 2.39 | 500 |
| 2000 | 3.4 | 2.8 | 0.71 | 0.65 | 7.94 | 2.81 | 500 |

- 김광수(2002), □선거와 정당□, 박영사.
- 김달관(2003), 「세디요정부를 통한멕시코 민주화연구: 1994-2000」,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지역연구, Vol. 12, No. 2, pp. 67-97.
- 박병수(2002), 「멕시코 정권교체의 정치적 함의」,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5, No.1, pp. 251-279.
- 송기도(2000), 「스페인 선거제도의 특징」, in 박찬욱편, □비례대표 선거제도□, 박영사, pp. 159-180.
- 안순철(2000), □선거체제비교□, 법문사.
- 유숙란(1991), 「선거제도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율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이성형(1998), □IMF 시대의 멕시코□, 서울대출판부.
- 조중빈(1999), □한국의 선거III□, 푸른길.
- 황희곤(1996),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 Almond, Gabriel A.(1974), *Comparative Politics Today: A World View*, Boston: Little, Brown & Co.
- Blondel, Jean(1968), *An Introduction to Comparative Government*,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Bogdanor, Vernon & David Butler(1983), *Democracies and Elec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rke, Edmundo(1961), "Thoughts on the Cause of Present Discontent", *Work*, Vol. 1, London: Henry G. Bohn, pp. 142-159
- Cansino, César(1998), *Después del PRI: las elecciones de 1997 y los escenarios de la transición en México*, México: Centro de Estudios de Política Comparada.
- Cárdenas, Enrique(1996), *La política económica en México, 1950-1994*.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El Colegio de México,
- Comisión Federal Electoral(1988), México.

- Duverger, M.(1951), *Political Partie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Harrop, M. & W. L. Miller(1987), *Elections and Voters: A Comparative Introduction*, New York: Meredith Press.
- Garrido, Luis Javier(1993), *La ruptura*, México: Editorial Grijalbo.
- Gómez Tagle, Silvia(1997), *La transición inconclusa: treinta años de elecciones en México*,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 González Sandoval, Juan Pablo(1996), *El año del vacío*, México: Editorial Océano.
- Grofman, B. & A. Lijphart(1986), *Electoral Laws and Their Political Consequences*, New York: Agathon Press, Inc.
- Instituto Federal Electoral(1997), *Estadística de las elecciones federales y estadísticas de las elecciones locales en el Distrito Federal de 1988-1997*, México.
- Lapalombara, Joseph & Myron Weiner(1972),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Partie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ijphart A.(1995), *Sistemas electorales y sistema de partidos*, Madrid: Centro de estudios constitucionales.
- López Portillo, José(1982), *VI Informe de Gobierno*, México, 1 de septiembre.
- MacIver, Robert M.(1964), *The Modern Stat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McDonald, Ronald H.(1971), *Party and Election in Latin America*, Chicago: Markcham Publish Company.
- Meyer, Lorenzo y José Reyna(1989), *Los sistemas políticos en América Latina*, México: Editorial Siglo XXI.
- Ogaz Pierce, José Abel(1996), *Deuda externa pública mexicana y el nuevo orden económico*, México: Instituto Politécnico Nacional.
- Orozco Gómez, Javier(1993), *El derecho electoral mexicano*, México:

Editorial Porrúa.

- Ortiz Pinchetti, José Agustín(1997), *Reflexiones privadas, testimonios públicos*, México: Editorial Océano.
- Pérez German, Castillo et al.(1994), *La voz de los votos: un análisis crítico de las elecciones de 1994*, México: Miguel Angel Porrúa.
- Rae, D.(1967),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lectoral Law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Ramírez Fuentes, Carlos(1995), *La transición democrática y sus prerequisites: la reforma institucional*, México: UNAM.
- Rodríguez, Octavio(1991), *La reforma política y los partidos en México*, México: Editorial Siglo XXI.
- Salazar Ham, Sonia(1996), *Transición a la democracia en el Distrito Federal: reforma política 1987-1995*, México: UNAM.
- Sartori, Giovanni(1976), *Parties and Party System: A framework for analysi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1988), *Deuda externa pública mexicana*,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Sergio, Aguayo Quesada y John Bailey(1997), *Las seguridades de México y Estados Unidos en un momento de transición*, México: Editorial Siglo XXI.
- Taagepera, R. & M. S. Shugart(1989), *Seats and Votes: The Effects and Determinants of Electoral Syste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Villamil, Jenaro(1998), *Los desafíos de la transición: escenarios del cambio político en México*, México: Editorial RAYA EN EL AGUA.
- Villanueva, Ernesto(1994), *Autonomía electoral en Iberoamérica, una visión derecho comparado*, México: Triana Editores.
- Zárate, Alfonso(1995), *Los usos del poder*, México: RAYA EN EL AGUA.

정혜주(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      |   |     |
|------|---|-----|
| I.   | 가 |     |
| II.  |   | : , |
| III. |   | :   |
| IV.  | 가 | :   |
| V.   |   |     |

## I. 들어가는 말

메소아메리카의 주요 문명 중의 하나인 마야 문명은 북위 약 14도에서 22도 사이에 위치한 열대 우림에서 발전하였다.

마야 문명 최초의 피라미드로 알려진 우악삭툰(Uaxactun)의 E 그룹의 건물에서 마주 보이는 피라미드 위로 동지, 하지와 춘 추분에 해가 뜨고, 최정점에 도달하고 지는 모습을 관측할 수 있다. 해와 달, 화성, 셋별 등 황도 12 별들은 공전 궤도면에 대하여 23.5도 기울어진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면서 태양을 공전하고 지구에서 보면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는 물론 태양의 고도도 계절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봄과 가을의 춘분과 추분 때는 해가 적도 바로 위에 있지만 겨울에는 남반구에 있어 지구의 남반구를 수직으로 비추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보면 해의 고도가 아주 낮아 보인다. 그러나 여름에는 해가 북반구를 수직으로 비추게 되어 해의 고도가 높아진다. 우악삭툰의

\* Heajoo Chung(Hangyang University), "Venus en la Civilizacion Maya".

피라미드 건설자는 이와 같은 현상을 관찰하고 동지, 하지와 춘 추 분에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점에 건물을 세워 놓은 것이다. 마야문명 최후의 발전기를 대표하는 치첸 이차(Chichen Itza)에서는 천문대로 알려진 카라콜(Caracol) 건물이 있다. 이 둥근 건물의 벽의 창에서도 역시 계절에 따라 햇빛의 최북단과 최남단의 출현점을 관측할 수 있다. 또한 이 유적의 상징인 쿠쿨칸(Kukulcan) 신전의 난간이 춘분과 추분을 전후하여 뱀이 내려오는 형상의 그림자를 이루는 것도 별들의 움직임을 아주 잘 알고 이용한 건축물이다.

< 1 >



▲ : 가 , .

이 모든 것들이 마야의 피라미드와 그 부속 건물들은 천체의 움직임과 연관을 갖고 지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야 문명이 그 발전의 절정기에 이르렀던 고전기에는 많은 비석이 세워지고, 날짜의 기록에서부터 시작되는 비문을 써서 남기고 있다. 비문에는 시간이 창조된 날부터 달의 위상 변화와 황도상에서의 달의 위치를 표시하였

고,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별들의 위치도 묘사되어 있다. 또한 왕의 탄생과 즉위, 결혼, 적장의 생포 등의 중요한 사건들과 별들의 위치와 연관된 날짜와 함께 기록되어 있어 마야 사람들의 천체의 움직임과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연관성을 중요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마야 사람들의 주기가 끝나는 것<sup>1)</sup>, 일식과 월식이 일어남에 따라 벌어질 불행한 사건을 예언한 것이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셋별인데, 셋별의 하늘에서의 위치와 그에 따라 일어난 여러 역사적 사건을 비문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마야문명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막연하게 알려진 피라미드와 천체의 관계, 특히 마야 사회를 움직였던 사상체계였다고 할 수 있는 셋별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조명해보고자 한다.

마야문명은 고고학적인 편의상 그 발전단계에 따라 전기고전기, 고전기, 후기고전기로 나뉜다. 전기고전기에는 마야문명의 중요한 요소들의 싹이 튼 시기라 하겠다. 고전기는 높은 머리장식을 가진 피라미드, 상형문자와 20진법의 달력 체계 등의 오늘날 마야문명이라 일컫는 모든 것이 가장 발전된 시기이다. 후기고전기는 고전기 마야문명의 개별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상체계가 무너지고 전체적이고 실용적인 사회현상이 나타났던 시기라 하겠다. 이 글에서는 세 시기에 따른 셋별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최초의 피라미드가 세워지게 된 배경에서부터 셋별전사로서의 왕의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고전기는 천체의 움직임에 따라 사회전체가 움직였던 시기로 셋별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였다. 고전기 마야문명의 거의 모든 비문은 별자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서 별의 움직임과 국가운영의 직접적인 관계를 암시한다. 따라서 가장 많은 자료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간략하게 다루었다. 대신에 셋별의 주기를 기록한 드레스덴 고문서의 다섯 가지의 셋별의 궤적과 그에 따른 의례의 형식은 본문과 함께 자세히 소개하였다. 고전기마야의 자료가 방대함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게 이 시기의 셋별의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후

1) 마야의 한 주기는 박툰(Bactun)이라고 하며 1.0.0.0.0으로 표시한다. 1박툰은 144,000일 이다.

기 고전기 역시 셋별은 전쟁의 상징이었고 왕은 이 일을 수행하는 대리자였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셋별의 움직임에 따른 전쟁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에 ‘쿠쿨칸 신전’, ‘셋별 광장’, ‘구기장’, ‘성스러운 샘’으로 이어지는 치첸 이짜의 구조와 드레스덴 고문서에 실린 노래와 같은 문장 형태로서 셋별과 나라운영의 직접적인 관계 보다는 종교체계로서 바뀌어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글은 아메리카의 고대문명이 한국의 학계에서 연구된 적이 없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논문 형식보다는 평이하게, 지금까지 연구된 (출판되지 않은 발표문 포함) 것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자 시도하였다. 마야어 원문이 있는 드레스덴 고문서외에는, 인용된 외래어 문장은 필자에 의한 번역만 실었다.

## II. 최초의 피라미드: 왕, 피라미드와 별의 관계

마야사람들이 최초로 세운 피라미드는 기원전 약 60년 경에 현재의 벨리췌(Belize)의 세로(Cerro)의 강가에서 발견되었다. 진흙을 단단히 말려서 지은 흙으로 된 3층의 비교적 단순한 것이지만 왕과 해와 셋별이 연관된 상징을 표현한 네 개의 얼굴이 돌을새김 되어 있었다.

낮의 열이 아직 남아있는 오후, 하얀 지붕의 그림자가 땅거미를 이루는 무렵, 마을 사람들은 담벽 그늘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멀리 해안으로부터 소라고동 소리가 들렸다. 무역선이 도착했다는 신호였다. 채색된 면직물의 옷을 입고 여러 장식을 단 나이가 많고 영향력이 있는 어른들이 앞서 나가고, 들판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해안으로 달렸다. 카누에는 화려하게 차린 방문객들과 마을의 어른들에게 갖고 온 선물들이 가득했다. 요란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그들이 무사히 도착했음을 신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귀와 팔에서 뽑은 피를 모은 종이를 태우는 엄숙한 의식이 갑판에서 행하여 졌다.

이윽고 모두들 배에서 내려왔다. 해가 서쪽 바다 속으로 떨어지고 지하의 세계로의 여행이 시작되자 어른들은 잔치를 시작했다. 꿀술이

든 마지막 옥수수 빵은 해와 그의 형제 셋별(새벽별)이 지하세계의 여행을 끝내고 동쪽바다로 다시 떠오를 때까지 손대지 않았다. 가장 나이든 방문객이 신의 얼굴이 조각된 다섯 개의 옥으로 된 자그마한 조상들을 꺼내었다. 모두 목에 걸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한 개는 다른 네 개보다 조금 더 컸다. 방문객은 왕을 상징하는 이 조상들을 그들의 왕국에서부터 들고 온 것이었다.<sup>2)</sup> 세로는 오랫동안 왕이 없이 지냈으나 이제는 그러기에는 너무 부유하고 강성했다. 이제 세로(Cerro)의 존장도 단순한 귀족에서 세상의 신성한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왕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했다. 세로의 존장은 이미 여러 전쟁에서 전사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보여 신들과 시발바(Xibalba)의 조상들에게 바치는 제례 의식에서 인정을 받았다.<sup>3)</sup> 방문객으로부터 이 조상들이 든 주머니를 받은 장로들은 그것들을 단지에 넣고 붉은 종으로 막은 다음에 기다렸다.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수락하자 점쟁이들과 그동안 기도와 인신공양을 해 왔던 무당들의 축복이 이어졌다.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을을 떠났다. 그들은 적이 될 것이나 마을은 새로 오는 사람들로 더욱 번창해 갈 것이다.

두 세대가 지나는 사이에 세로는 마을에서 아크로폴리스(acropolis)<sup>4)</sup>로 자랐다. 세로의 사람들은 도시를 재건했다. 그들은 살던 집과 쓰던 기물들을 모두 깨고 살던 곳 위를 새로운 광장으로 덮었다. 그들의 과거는 모두 광장 밑에 있게 되었다. 처음에 왕이 된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었으나 그가 남긴, 기원전 약 60년경에 세워진 흙으로 된 피라미드를 볼 수 있다. 피라미드는 세 층으로 되었고 각 층마다 두 개의 얼굴이 조각되어 두 층을 이루고 셋째 층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방의 모습으로 끝난다. 둘째 층까지는 각 층마다 4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졌으며 둘째 층에서 세 번째 층까지는 9계단으로 이루어졌다. 맨 위의 세 번째 층의 건물은 구조가 특이하다. 사람이 가운데 문으로 들어가면 벽면과 부딪친다. 뒤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른쪽으로 꺾어서 똑바로 가고 다시 오른쪽에 있는 작은 방을 돌아서 갔던 길을 되돌아 와야만 나올 수 있다. 각 층마다 양쪽으로 두개의 얼굴, 모두 4개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다. 네 개의 얼굴은 비슷해 보이나 조금씩 다른 장식 문양을 갖고 있다. 아래쪽의 얼굴은 넝름거리는 재규어의 혀

2) 마야 세계는 여러 도시국가로 나뉘어져 있었다. 아하우(Ahau)가 지배하는 큰 국가와 그 보다 낮은 급으로 카할(Kahal 또는 사할Sahal)이 국가가 있었다. 카할은 대개 강력한 아하우와 연관을 맺었다.

3) 시발바는 마야의 지하세계를 일컫는 말, 포폴루에 의하면 마야 사람의 최초의 선조는 시발바에서 살아 돌아왔다.

4) 아크로폴리스는 피라미드와 구기장, 궁성과 부속 건물이 모여 있는 제의식을 행하는 건물군으로 마야 사회의 도시 발전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다.

를 보이고, 위쪽의 두 얼굴은 천체의 운행과 관련된 우주 괴물의 특징인 긴 코를 갖고 있다. 귀의 양쪽도 조금씩 다르게 장식되어 있다. 각각의 머리에는 마야 왕이 쓰는 3개의 보석이 박힌 머리띠의 문양과 같은 띠를 두르고 있다. 마을의 장로들은 새로운 신전을 위한 제의식을 준비하였다. 의례의 음식을 담았던 접시를 깨뜨리고, 수선꽃<sup>5)</sup>을 신전 기초의 하얀 흙 밑에 묻었다. 그 모든 것들이 인간 세상과는 다른, 천상과 지하의 세계를 이 지점에서 가까이 하게 되는 길이었다.

(Schele & Freidel, 1990: 98-106)

벨리제의 쉼로에서 발굴된 유물과 피라미드에 남긴 것들을 재구성해 본 이야기로 □왕들의 숲□에서 발췌하여 간추렸다. 쉼로에서는 초기의 아크로폴리스(Acropolis) 구조의 건물군과 옥으로 된 조상들, 그리고 바닥 아래층에서는 전 시대의 토기 등 많은 유물이 나왔다. 네 개의 얼굴을 지닌 피라미드의 의미는 과테말라의 우악삭툰의 E 건물과 비슷한 시기의 피라미드들이 세워진 위치와 별들이 뜨고 지는 방향과 매우 일치한다는 것이 발견된 후, 돌을새김의 장식이나 얼굴 모습의 표현이 천체와 관련된 신화와 긴밀하게 연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미쳤다.

마야 사람들의 생각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포폴부(Popol Vuh)이다. 포폴부에서 처음 나오는 쌍둥이 주인공은 여명과 밤의 신의 아들인 쌍둥이 운 우나푸(Hun Hunapu)<sup>6)</sup>와 부쿵 우나푸(Vucub Hunapu)이다. 그들은 공놀이를 하며 세월을 보내다 어느날 공놀이의 소란스러움에 화가 난 지하세계 신들의 부름을 받았다. 그들은 네 갈래 길에 도달하여 지하 세계로 이끄는 검은 길을 택했다. 쌍둥이들은 어둠의 집, 호랑이의 집, 불의 집, 박쥐의 집, 칼날의 집 등 많은 곳에서 시험과 고통을 받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였다. 운 우나푸의 잘린 머리는 나무에 걸려 있었는데, 지하세계 신의 딸이 이를 보러 왔다가 아이를 갖게 된다. 그녀는 지상으로 나

5) 마야 사람들에게는 물에서 피는 수선은 지하 세계와 연관이 있으며 다시 태어나는 생명을 상징한다.

6) 마야어로 Hun은 하나, Vucub은 일곱, Hunapu는 사냥꾼, Xbalanque는 새끼호랑이를 의미한다.

와서 다시 쌍둥이 형제를 낳았다. 우나푸(Hunapu)와 스발란케(Xbal-anque)이다. 그들도 역시 공놀이를 즐기다 지하세계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들은 아버지와 삼촌이 받았던 지하세계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지하세계의 신들을 뜻을 간파하고 스스로 죽었다. 그러나 그들의 뺏가루를 강에 뿌리자 그들은 곧 청년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이들이 죽었다고 믿는 지하세계의 신들을 찾아가 계략으로 이 신들을 완전히 멸망 시켰다. 그들은 죽은 아버지와 삼촌에게 제사를 지내고 부활시켜서 마야 사람들의 조상이 되도록 하였고 그들 자신은 하늘에 올라가 해와 달이 되었다.

이야기의 중심은 제1세대에서 제2세대로 이어지는 쌍둥이와, 그와 함께 반복되는 사건의 전개이다. 마야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선조인 쌍둥이는 신의 아들이자 지상에 내려와 살다가 지하 세계로 불려가서 죽었다. 그러나 신비로운 방법으로 태어난 이들의 쌍둥이 아들들은 지하세계의 힘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아버지와 삼촌을 부활시키고 그들은 하늘로 돌아가 다시 신이 되었다. 이 제2세대 쌍둥이는 하늘의 힘(아버지)과 지하세계의 힘(어머니)이 합해져서 어둠의 세계를 통과할 수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같은 조건과 사건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쌍둥이라는 조건, 공놀이를 하였고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나 제2세대에서는 죽음으로써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 온 존재가 지하로 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순환이 있고, 같은 행동의 반복이 있다. 왜 꼭 공놀이를 하며 쌍둥이였을까? 최초의 피라미드가 천체를 관측하기 위하여 지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이야기도 별들과 관계있을 것이다.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마야 사람들이 관측한 별자리들은 여럿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해독된 것은 보남팍(Bonampak) 유적의 벽화에 그려져 있는 네 개의 별자리로서, 화성, 토성, 오리온자리와 쌍둥이자리로 밝혀졌다(R. Bricker & M. Bricker, 1992; Freidel et al., 1993; Miller, 1995). 겨울철에 특히 뚜렷이 보이는 오리온자리에서 쌍둥이자리를 바라보면 두 명이 어우러져

움직이는 듯이 느껴지는데, 수많은 별들이 둥글게 보이는 하늘을 움직이는 모습은 이들이 공을 차는 모습을 떠올리기에 충분해 보인다.

< 2>



▲ ( / , 2002 )

다른 한편, 마야 사람들은 하늘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존재로서 섯별과 해를 주목했다. 신화에서는 해와 달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이것은 에스파냐의 신세계 정복기 후 약간 왜곡된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섯별이 주목된 것은 바로 섯별이 해가 뜨기 전과 해가 진 직후에 가장 밝게 뚜렷이 보일 뿐 아니라, 한번 뜨면 지는 다른 별들과는 달리 새벽과 저녁에 나타나는 이중성 때문일 것이다. 섯별은 아침과 저녁에 나타남으로 해서 하나이면서 둘인 쌍둥이를 표현함과 동시에 이를 주기적으로 되풀이 하는 순환의 성격도 보여준다. 켄피의 피라미드의 조각들을 살펴보면, 아래쪽의 얼굴은 짧은 코에 혀가 நீ름거

7) 1521년 에르난 코르테즈가 이끄는 에스파냐 군은 아즈테카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어 숲 속에 남았던 마야 사람들을 정복했다. 포폴부는 입으로 전하던 마야의 전설을 정복 후 모아서 기록된 것으로 이미 유럽화 되어 왜곡된 부분이 더러 보인다.

리는 재규어가 나오는 모양이다. 뺨에는 해를 의미하는 킨(Kin)이 쓰여 있는데, 이로써 재규어는 태양신을 나타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라미드의 위층 얼굴은 셋별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즉 쌍둥이 중의 동생인 스발란케(새끼 재규어)가 태양을 상징하고 형인 우나푸(사냥꾼)는 셋별과 관련된다. 더욱이 이 얼굴들은 하늘에서의 운행과 관련된 우주의 괴물의 특징인 긴 코를 갖고 있다. 그들이 쓰고 있는 관은 마야 왕이 쓰는 3개의 보석이 박힌 머리띠의 문양과 같다. 왕관의 중요 상징은 가운데에 세 점이 솟아오른 산 모양의 장식이다, 이는 문자 체계에서 아하우(Ahau)라 읽는다. 머리띠의 위쪽은 우나푸이며 해(킨)의 문양이 있는 아래쪽은 아우인 스발란케이다. 즉, 세로의 장식은 우주괴물, 해를 나타내는 킨 글자, 왕을 나타내는 아하우 표시 등 천체와 왕권이 긴밀하게 연결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3 >



▲ (Schele & Miller, 1998 )

피라미드 건설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정상의 신전이다. 신전 앞에 서면 동 쪽에서 떠오르는 해와 서 쪽으로 지는 해를 볼 수 있다. 신전에는 네 기둥이 있다. 신전은 네모진, 창이 없는 어두운 공

간이다. 조각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색깔이 칠하여진 기둥은 우주의 네 귀퉁이를 상징한다.<sup>8)</sup> 이렇게 만들어진 성스러운 공간에서 왕은 우주의 한 요소가 된다. 신전의 앞문은 중앙에 있지만 네모진 신전은 가운데 벽에서 동쪽 끝으로 지어져 있다. 왕은 서쪽에서 통로를 따라 동쪽 끝에 있는 제단으로 간다. 이렇게 방을 들어갔다 나오기 위해 왕은 중앙의 정문으로 들어가서 서쪽을 돌아 뒤 쪽 통로의 중앙을 지나고 동쪽 끝에 있는 제단에서 조상들과 신들을 만난 뒤, 다시 서 쪽으로 돌아 나와야 한다. 즉 시계 반대 방향, 해가 동 쪽에서 떠서 서 쪽으로 지는 것과 같은 걸음을 하게 된다. 피라미드의 얼굴은 아침에서 밤이 되는 직선적인 시간과 밤에서 다시 아침으로 되 돌아오는 순환적인 시간을 보며 서 있다. 그리고 왕은 갔던 길을 되 돌아 나온다. 다시 말해서 왕은 순환을 반복하고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마야 왕권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었다. 즉, 마야의 왕들은 마야 사람들의 조상이 된 우나푸, 셋별의 후예로서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자 특권이였다.

### III. 셋별 전사: 마야문명을 이루게 한 것

대부분의 비문은 날짜 기록부터 시작하여 왕들의 태어남과 죽음, 결혼, 전쟁을 하여 몇 명을 포로로 하였는가를 기록한 연대기인데, 특이한 것은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날만이 아니라 그 때의 천체의 움직임이 어떠하였는지를 함께 기록한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것은 마야 문명<sup>9)</sup>이 가장 발전했던 시기에 여러 유적지에 세워진 비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8) 마야 사람들은 우주는 네 방향으로 나뉘고 가운데에 중심이 있다. 즉 포볼부에 나오는 네 방향의 길에 선 쌍둥이의 모습은 우주의 가운데에 있는 서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다.

9) 마야는 도시 국가 사회였다. 고전기 마야 문명이 발달하였던 과테말라의 페텐 지방, 온두라스, 멕시코의 우수마신타강 유역에는 카라콜, 티칼, 나랑호, 팔렌케, 보납팍, 등 크고 작은 도시 국가가 3000개 이상 있었다.

626년 5월 28일 (9.9.13.4.4),<sup>10)</sup> 카라콜(Caracol)의 왕 칸(Kan) 이세는 나랑호(Naranjo)를 총공격을 하였다. 이 날 셋별은 새벽별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 좋은 위치였다. 이 전쟁에서 잡힌 포로는 630년 10월 4일 공놀이가 벌어진 이 날 희생을 당하였다.

631년 12월 27일, 나랑호의 하늘에 셋별이 저녁별로서 처음 나타났을 때 카라콜의 칸 이세(Kan II)는 다시 나랑호를 공격하여 파괴하였다. 이때가 티칼(Tikal), 나랑호(Naranjo), 우악삭툰(Uaxactun)까지 카라콜의 승리의 희생이 되었다.

642년 12월 6일(9.10.10.0.0), 카라콜의 지배자는 나랑호에서 잡혀 온 포로들에게 피라미드를 세울 것을 강제했다. 세운 후에는 공놀이를 하여 그들을 희생했다.

645년 7월 5일(9.10.12.11.2), 도스 필라스(Dos Pilas)의 부싯돌-하늘-K신(Flint-Sky-God K)이 왕으로 즉위했다. 그는 정복이라는 역동적인 전통을 계승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은 664년에서 684년에 이르기까지 주위의 나라들을 공포로 밀어 넣었다. 부싯돌-하늘-K신은 카라콜을 물리치는 한편 같은 편이었던 칼라크물의 재규어-발(Jaguar-Paw)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부싯돌-하늘-K신은 재규어-발의 즉위식에 참석하는 등 협약을 맺었다. 나랑호에는 딸 왁-차닐-아하우(Wac-Chanil-Ahau)를 담배피는-다람쥐(Smoking-Squirrel)에게 시집보냈다.

658년 6월 22일(9.11.5.14.0), 카라콜의 B18파면에 "연기-두개골"의 왕위 계승이 있었다. 셋별은 새벽별로서 황소좌와 나란히 45.4도에 있었다.

658년 2월 11일(9.11.5.7.9), 큐도시(site Q)의 비문 2에서는 쿡 아하우(K'uk Ahau)의 왕위 계승이 있었는데 이때의 셋별은 저녁별로서 양좌와 나란히 46.2도에 위치하고 있었다.

667년 9월 19일 (9.11.15.2.16), 큐도시(Site Q) 비문 9에는 칼라크물(Calakmul)왕의 형제인 착납칸(Chak Nab Kan)이 왕위를 계승하였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저녁별로서의 셋별이 전갈좌의 머리 부분과 나란히 46.7도에 있었다. 또한 큐도시는 668년 9월 10일(9.11.16.2.3), 도스 필라스(Dos Pilas)를 상대로 싸운 기록이 있다. 이때는 새벽별로서 천칭좌와 나란히 45.6도에 위치하였다.

나랑호의 담배피는-다람쥐(Smoking-Squirrel)은 우카날(Ucanal)을 상대로 그의 정복 전쟁을 시작하였다. 693년 6월 20일은, 이 다섯 살짜리 왕이 즉위한 지 20일째 되는 날 이었다. 그것은 하지 전 날이었고 저녁

10) 마야의 달력 체계, 긴 주기는 13.0.0.0.(144,000일 x 13)이다. 시작하는 날은 13.0.0.0.0 4 이하우 8 쿨쿠, 기원전 3114년 8월 13일이다. 그 다음 날은 0.0.0.0.1 4 아하우 9 품이 된다.

별은 그 마지막 빛을 비추고 새벽별이 되기 위해서 그의 사라짐을 시작하였다. 그의 첫 번째 포로는 키니치-캅(Kinichil-Cab)이었다.

693년 9월 14일, 담배피는-다람쥐가 아직 다섯 살에 불과한 고로 그의 어머니가 포로 방패-재규어(Lord Shield-Jaguar)를 밟고 서 있다. 즉 그의 권력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나왔다. 이때부터 전쟁의 별은 나랑호를 위하여 빛났다. 담배피는-다람쥐(Smoking-Squirrel)도 그 옛날에 카라콜(Caracol)의 지배자가 했던 것처럼 셋별의 위치에 전쟁과 의식의 시간과 날짜를 맞추었다. 그는 아래쪽 함이 일어나기 전, 즉 셋별이 공중을 떠돌아다니는 동안 셋별 전사로서의 그의 왕권을 선언했다. 그의 첫 번째 전쟁은 셋별이 하지 전날 저녁에 해와 같은 시간에 지는 때에 시작했다. 그는 정확히 한 주기(Cycle) 후, 셋별이 새벽별로서 태양과 함께 뜰 때 우나칼(Ucanal)에 대해 두 번째 승리를 거두었다.

710년 3월 23일, 담배피는-다람쥐(Smoking-Squirrel)은,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 도스 필라스(Dos Pilas)의 부싯돌-하늘-K 신과 칼라크몰(Calakmul)의 재규어-발이 전에 행동했던 것처럼, 약스하(Yaxha)를 공격하였다. 이 날 셋별은 새벽별로서 마지막으로 보였고, 목성과 토성은 그들의 두 번째 움직이지 않는 점에서의 합을 이루었다.

97일 후 6월 8일, 하지가 막 지난 뒤, 목성, 토성, 화성과 셋별, 그들은 하늘에서 더욱 장엄하게 정렬했다. 이 때 담배 피는-다람쥐는 약스하(Yaxha)에서 온 포로를 희생하는 의식을 행하였다.

일년 후, 711년 4월 12일, 셋별이 다시 새벽별로서 나타났을 때 담배 피는-다람쥐는 Yaxha 근처의 사크납(Sacnab)으로 다시 한 번 전쟁에 나갔다.

200일 뒤, 712년 6월 22일 우카날의 방패-재규어가 다시 제전에 나타났다. 잡힌 뒤 18년이 지난 이날 비로소 그는 생을 마친듯하다. 이날은 셋별이 저녁별로서 가장 오랫동안 보였다.

담배피는-다람쥐는 포로를 살려두고 여러 번 제의식에 불리냄으로써 나랑호의 실력을 전 페텐(Peten) 지방에 과시하는 한편 약스하(Yaxha)호수 근처를 평정함으로서 나랑호(Naranjo)와 도스 필라스(Dos Pilas) 사이의 길의 위험을 없앴다. 담배피는-다람쥐는 셋별의 움직임에 따라 전쟁을 하였다. 셋별의 움직임에 의한 그의 행위는 또한 하늘을 재정렬하여 그 자신의 선조, 첫 번째-지배자의 패배를 상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557년에서 692년 사이에는, 티칼(Tikal)의 방패-두개골(Shield-Skull)은 북쪽 아크로폴리스와 동쪽 광장 등, 티칼의 재건을 시작하였다. 부싯돌-하늘-K 신(Flint-Sky-God K)과 그의 딸, 왁-차닐-아하우(Wwac-Chanilhau)를 나랑호(Naranjo)에 시집보낼 때 방패-두개골(Shield-Skull)의 아들, 이흐-카카우(Ah-Cacaw)는 티칼의 왕위를 이어 받았다. 신전33의 건축은

695년 3월 3일(9.13.3.0.0)에 끝났다. 158일 후, 아흐 카카우(Ah Cacaw)는 칼라크물(Calakmul)의 재규어-발(Jaguar-Paw)을 잡았다. 이것은 카랄콜(Caracol)이 나랑호(Naranjo)에게 한 전쟁, 68년 후 담배피는-다람쥐가 우카날(Ucanal)에서 한 전쟁과 같은 유형의 전쟁이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전쟁은 천체적인 의미가 훨씬 많이 있었다는 점이다. 해가 천정점을 지나간 뒤 이틀 후, 아흐-카카우는 폭풍치는-하늘(Stormy-Sky)의 전쟁의 13번째 카툰(Katun)을 기념하는 내용을 31번 비석에 남겼다. 13일 후 그는 포로에게 의식을 행하였다. 포로는 재규어-발의 동료였거나 신하였던 아흐-볼론-바킨(Ah-Bolon-Bakin)이었다.

즉 이흐-카카우(Ah-Cacaw)는 칼라크물(Calakmul)에 대한 전쟁을 13번째 카툰(13x20= 260일)<sup>11)</sup>에 시간을 맞추었다.

(Schele & Freidel, 1990; Schele & Grube, 1994)

비문에는 섯별의 움직임 기록과 여러 도시국가의 왕들이 이김과 짐을 되풀이하며 포로를 희생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그 전에 했던 것과 같은 전쟁을 되풀이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서의 별이 움직임이 그 일이 일어났던 때와 같은 상태가 반복되었다는 것에 따른 것이다. 왕은 하늘의 움직임을 지상에 나타내는 존재였다. 그리하여 일식과 월식도 기록되어 있으나, 별들의 정렬과 혜성, 특히 섯별의 움직임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즉 해의 움직임에 따라 섯별이 어떻게 보이는가, 섯별이 저녁에 보이는가, 아침에 보이는가. 어느 때에 섯별이 보이지 않는가. 섯별이 특정위치에 있을 때 다른 별들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특히 전쟁에 관한 한 섯별의 움직임은 절대적이다. 비문에 의하면 저녁별로서 보일 때는 왕위 계승 등 왕권의 변화가 많았던 반면 새벽별로 나타날 때는 승리의 좋은 징표라 하였다. 마야 사람들이 섯별의 움직임에 가장 관심을 둔 또 다른 이유는 섯별이 지나는 독특한 주기성 때문인 것 같다. 섯별은 236일 동안 아침에 동쪽에서 보인 후 태양과 매우 가까이 뜸으로 해서 8일간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저녁별로서 서쪽에 뜬다 이 기간은 250일간 계속 된 뒤 90일간, 역시 태양과의 근접 현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584일이 지남으로

11) 마야의 여러 달력 체계중의 하나로 20일과 13달을 잇는 260일을 한 주기로 하는 종교력.

해서 셋별의 한 주기가 끝나고 다음 주기가 같은 공식으로 반복된다 (애브니, 1997: 202-8). 장대한 긴 주기의 날짜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천문 관찰은 기본이었다. 실제로 그들은 천문학적인 숫자를 정확히 쓸 수 있는 마야 달력 체계를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력에 맞추기 위하여 왕이 태어난 날 등 실제 일어난 날짜를 왜곡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즉 남아있는 기록은 실제에 사용된 것보다 왕이 하늘의 일의 대리자로서 행했던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다. 8, 236, 250, 90의 주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전사로서의 왕의 움직임은 결정되었다. 이렇게 셋별전사로서의 왕의 전쟁 수행이 가장 격렬하게 표현된 곳은 아마도 보남팩(Bonampak)일 것이다.

< 4 >



▲

(Miller, 1995

)

보남팩의 왕이었던 찬 무안 이세는 776년 6월 11일에 등극하였다.

셋별과 화성의 회합이 6월 2일, 즉 9일 전에 관측됨으로써 신들이 동의한, 축복 받은 즉위였음을 확인했다. 이때부터 그는 왕으로서의 일을 시작했는데 비문과 여러 건물을 세우고, 가장 중요한 일, 즉 달력주기를 기념하는 일을 수행했다. 아호 호 책(Ah Ho Tzek)과의 싸워 그를 787년 1월 8일에 포로로 하였다는 것이 찬 무안 이세의 첫번째 기록이다. 바로 전, 787년 1월 4일에도 싸움이 있었는데, 그는 동서인 약스칠란(Yaxchilan)의 과갈 발람 이세(Pacal Bahlum II)와 함께 소츠 아호 쿠(Zotz Ah Cu)를 사로잡았다. 그들이 전쟁을 수행했던 동안에는 해가 셋별의 위로 가장 근접해서 떠 있어서 셋별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셋별이 새벽별이 되는 때가 가까웠음도 의미 하였다. 즉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보일 때가 8일 남았다. 또 다른 일은 792년 11월 11일 찬 무안 이세가 카사 세이스 마르(Casa Seis Mar)를 헌정할 때였다. 이 때도 역시 해가 셋별의 위로 가까이 떠있어서 셋별이 보이지 않았고, 전쟁은 792년 8월 2일에 있었다. 찬 무안 이세가 아호 호 치바(Ah Hok' Chiwa), G1<sup>12</sup>)의 머리칼을 잡고 있는 모습이 현정된 건물의 벽에 그려져 있다. 여기에는 해가 셋별 바로 아래 있는 때가 시작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9일간의 사라짐이 시작된 것이었다.

(Arellano, 2001: 36-41)

이 전쟁은 찬 무안 이세의 즉위 15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벌어졌는데 등장인물들이 100명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누구를 공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보남팍의 전쟁 기록은 셋별이 사라졌던 날에 있었고 기록을 남긴 날은 셋별이 다시 나타났던 날이다. 즉 그들에게는 정복 대상이 누구였는가 보다는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셋별이 어떤 모습으로 하늘에 있었는지, 왕이 전쟁을 하여 희생을 바침으로 해서 어떻게 천체의 운행을 제대로 돌려놓았는지가 더 중요했다. 건물 1의 두 번째 방의 벽화에는 찬 무안 이세의 다리에 셋별을 상징하는 문양이 그려져 있어 그 자신이 셋별로서 싸웠다는 것을 알리는 한편, 같은 건물의 첫째방의 벽화에 그려진 축하의 행렬에서 눈이 별로 표현된 여러 신들과 옥수수의 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로써 찬 무안 이세의 행위가 별들을 나타내는 여러 신들로부터 추앙 받았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또한 벽화의 맨 위에 쌍

12) 팔렌케에서 확인된 마야의 주신인 G1, G2, G3중의 하나이다.

둥이좌의 멧돼지, 화성, 토성, 거북이로 표현되는 오리온좌의 4개 성좌가 걸려 있는 것은 이 장면이 하늘에서 벌어졌던 일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상에서의 전쟁은 하늘에서 벌어진 일의 반영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해석된다.

포볼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셋별과 관련되어 일어났던 일을 반복하며 왕권을 지속하던 마야의 역사는 후기에 와서 조금 양상이 바뀌었다. 더 이상 비문을 세우지 않았다. 대신 고문서를 제작하였는데, 여기에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숫자의 나열과 함께 사람과 비현실적인 동물의 그림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형상들로 별들의 움직임과 변화를 기록하였다.

#### IV. 다섯가지 움직임의 셋별: 새로운 사회로의 시도

드레스덴 고문서는 마드리드, 파리, 글로리에르 고문서와 함께 전해지는 고대 마야 문명의 유산으로 전해지는 책이다. 이 고문서에서는 해와 달의 주기, 일식의 관찰, 그리고 셋별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마야 상형문자로 주기를 나타내는 숫자와 그에 연관된 내용이 쓰여 있고 그림도 덧붙여 있다. 1950년, 유리 노로조프가 마야의 상형문자가 음절로 되었다는 기초 위에 드레스덴과 마드리드의 고문서의 내용을 해석하고 숫자를 계산한 바를 발표하였다(Knorozov, 1982). 완성본은 1982년 뉴욕에서 출간 되었다. 내용은 해, 달, 셋별의 주기의 관찰과 그에 따른 파종, 수확, 한발, 우기 등 농작의 순서와 여러 재해에 관한 내용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1992년과 1997년에 있었던 마야 상형문자 워크숍에서<sup>13)</sup>, 린다 쉘리와 니콜라이 구르브도 역시 음절에 기초하여 읽었으나, 내용을 상당히 다르게 해석하였다, 새로운 해독을 요약한 1997년의 텍사스 노트북에는 드레스덴 고문서의 내용이 해와 달의 일식과 월식 주기표와, 또한 셋별의 주기

13) 린다 쉘리와 니콜라이 구르브가 이끈 것으로 어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에서 열렸다.

에 따라 다섯 형태의 셋별을 상징하는 신이 다른 신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쉴리와 구르브의 해석을 받아들인다. 셋별에 대한 내용은 고문서 45쪽에서부터 50쪽까지 볼 수 있다. 왼쪽에는 세 단으로 나누어진 부분에 셋별의 주기율표가 마야 숫자 체계로 적혀져 있다. 오른쪽에는, 역시 세 단으로 나누어졌는데, 맨 위에는 하늘의 모습이, 두번째 단에는 셋별이 공격하는 모습이, 세번째 단에는 피해를 입는 존재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각각의 단에 마야 상형문자로 설명이 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셋별의 주기율표는 생략하고 오른쪽의 이야기만 해석하였다. 다음은 셋별에 대한 내용을 왼쪽에는 마야어로 읽은 원문을, 오른쪽에는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다. 여기에는 하늘에서 움직임이 있어(별자리의 이동) 신이 들어서고, 신의 뜻을 받아 셋별이 지상에 행동한다, 불행히도 그 신의 뜻은 지상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온다. 쓰여진 형식은 시적으로, 같은 단어와 말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고, 각 장의 구성도 똑같다. 이는 수많은 셋별과 관련된 제의식에서 읽혀졌을 것이다.

< 5>





▲

46

50

(Codice de Dresde, 1993

)



45쪽

4 Ahau 8 Kumku  
 yok(동사), [...]¹⁴)  
 [...] li Chak Ek'  
 lak'in k'alah  
 Chack Ek' K'an Pawahtun  
 Chack Ek' Na Ahaw Uh  
 Chack Ek' Hun Ahaw  
 Chak Ek' Ain  
 Chak Ek' Kimi  
 U muk kab  
 U muk u kun  
 U muk winik  
 Xul, K'in  
 Xul habs  
 Hun Kanal  
 Ah Tzuk Ahaw

4 Ahaw 8 Kumku  
 yok  
 God L  
 Chak Ek'  
 Lahun Chan  
 Chak Ek'  
 Yah k'awil  
 Yah Chak Boloy  
 Yah Nal  
 Yah [...]  
 Yah [...]

4 아하우 8 쿼쿠  
 들어섰다, [?] 그의 근원 또는 시작  
 [...] 도착했다[?]¹⁵), 셋별이  
 동쪽에 매였다  
 셋별, 4 과와흐툼  
 셋별, 성스러운 달 숙녀  
 셋별, 1 아하우  
 셋별, 악어  
 셋별, 죽음의 신  
 땅에게 나쁜 예언  
 옥좌에게 나쁜 예언  
 사람들에게 나쁜 예언  
 날의 마지막  
 해의 마지막  
 하나의 하늘  
 텍수염 신

4 아하우 8 쿼쿠  
 들어섰다  
 L 신  
 셋별  
 10 하늘  
 셋별  
 카윌의 다침  
 착볼로이의 다침  
 옥수수 신의 다침  
 개구리 신의 다침  
 신의 다침[?]  
 (Schele & Grube, 1997: 142)

동사 욱(yok)은 발을 놓다 또는 기저를 의미하거나, 들어오다 또는 무엇이 되다는 뜻이다. 즉 별이 하늘에 나타남을 보인다. 동쪽에 매였다는 것은 셋별이 동쪽으로 뗏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저녁별이

14) [...]는 고문서가 훼손되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시 하였다.

15) [?]은 해석에 불확실한 경우를 표시 하였다.

다. 동사 야(yah)는 상처를 입히다, 손상을 입히다는 뜻.

45쪽은 다음 쪽에 일어날 사건들의 전체적인 대략을 보여주고 있다. 4아하우 8쿰쿠는 마야의 전설에서 세상이 시작된 날이다. 즉 하늘의 움직임이 시작된 날에 다섯 셋별 신의 도착과 하늘에 서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4 과와흐툼은 지상의 세계를 받치는 네 명의 신들이며, 1 아하우는 달력이 시작하는 첫 날이다. 악어는 대지를 상징하며 생명을 표현하기도 한다. 달은 풍요를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죽음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다시 반복하게 하는 원리이다. 이렇게 셋별이 지상의 근본적인 것을 상징하면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인간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을 느끼게 한다. L신과 10하늘(라훈 찬)로 묘사된 셋별은 카윌, 착 볼로이, 옥수수신, 개구리신,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다른 신을 다치게 한다. 이로써 셋별의 등장은 지상에, 왕들에게,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징조임을 보인다.

## 46쪽

|                                 |                     |
|---------------------------------|---------------------|
| [...] [...] nal                 | [...] [...] 옥수수     |
| [...] yah kanul                 | [...] 앓은 자들에게 재난    |
| [...] yah ch'ok                 | [...] 짧은이에게 재난      |
| K'alah nah ulum Chak Ek'        | 셋별이 북쪽 칠면조에 매인다     |
| K'alah chik'in sinan Chak Ek'   | 셋별이 서쪽 전갈에 매인다      |
| K'alah nohol Chak ?? Chak Ek'   | 셋별이 남쪽 큰?? 매인다      |
| K'alah lak'in Kimi Chak Ek'     | 셋별이 동쪽 죽음의 신에 매인다   |
| K'alah lak'in                   | 동쪽으로 매인 것은          |
| God L Chak Ek'                  | L신 셋별               |
| K'awil u hul                    | 카윌은 창에 찔렸다          |
| Yah? K'al, yah winik            | 20에게 재난, 사람에게 재난    |
| U muk hun ka yax K'an           | 그것은 예언, 2-과랑-노랑     |
| Yah Nah, yah wilil              | 옥수수신에게 재난, 음식에 재난   |
| Ain tzeni Chak Ek' lak'in       | 까마귀는 셋별을 동쪽에서 먹인다   |
| Ulum tzeni Chak Ek' nah         | 칠면조는 셋별을 북쪽에서 먹인다   |
| Shan tzeni Chak Ek' chik'in     | 전갈은 셋별을 서쪽에서 먹인다    |
| Chak [...] tzeni Chak Ek' nohol | 큰[...] 셋별을 남쪽에서 먹인다 |

|                     |                    |
|---------------------|--------------------|
| Ka uh winik ʔ u muk | 두번의 달들(달력)의 달이 묻혔다 |
| Pop tz'am u muk     | 명석과 왕좌가 묻혔다        |
| Mach 'ab si Ahaw    | 평평해진 것은 왕들         |
| Mach'ab si ch'ok    | 평평해진 것은 왕자들        |

(Schele & Grube, 1997: 146)

한 신이 두 개의 별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두 겹의 하늘띠 위에 앉아 있다. K신, 즉엡(Eb)해<sup>16)</sup>의 수호신의 머리가 하늘 띠의 왼쪽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애브니(1999: 184)에 의하면 셋별의 운행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사라졌던 셋별이 다시 새벽하늘로 돌아오는 시기이다. 셋별과 해의 출현 시간이 거의 일치하는 사건은 셋별의 신이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날짜는 10.5.6.4.0. 1아하우(Ahau) 18카얍(Kayab),<sup>17)</sup> 936년 6월 21일, 하지로써 셋별은 저녁별로서 보이고 있다 (R. Bricker & M. Bricker, 1992). L신은 상인들의 늙은 신이다. 이 쪽에는 L신이 셋별을 나타내는데 세번째 단의 번개의 신인 카윌을 공격한다. 카윌 신이 창에 찔림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평평해졌다’고 표현된 왕족들이다.

첸(Tzen)은 먹인다, 누구를 유지시킨다는 뜻으로 번역된다. 체니(Tzeni)는 어린이를 키운다는 뜻이다. 즉 1(운) 아하우에게 영양이 주어졌다. 옥수수의 신은 칼라흐(ka'lah)의 요소로 언급되었다. 칼라흐(K'alah)가 매인다는 뜻으로 동쪽에서 뜨는 저녁 셋별이라고 생각하면, 체니(tzeni)는 먹인다는 뜻으로 서쪽에서 지는 셋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즉 k'alah는 별이 나타나는 모습, tzeni는 별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항상 네 개의 별들의 위치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 셋별이 떠오를 때 주위에 있는 별들은 칠면조, 전갈, 큰새[?],

16) 마야의 달력 체계의 하나로 일년의 이름이다. 즉 음력의 양의 해, 호랑이의 해 같은 것이다. 세 개의 체계 중, 이 고문서에서는 고전기에 사용하였던 "엡-카반-익-마닉"을 썼다.

17) 마야의 달력 체계, 앞의 다섯 숫자로서 현재 태양력의 년, 월, 일을 알 수 있고, 뒤쪽의 둘은 마야의 종교력이다. 현재와 비교하면 예를 들어 2003년 3월 3일(다섯숫자), 삼짓날(종교력)이라 할 수 있다.

죽음의 신이고 셋별이 질 때 있는 별들은 칠면조, 전갈, 까마귀, 큰 새[?]이다. 셋별의 나타남과 관련 있는 별들은 전갈, 쌍둥이, 수병, 사자와 아리에스인데 이들이 칠면조, 까마귀, 전갈 등 본문에 나오는 어떤 별들과 합치되는 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47쪽

|                                     |                                   |
|-------------------------------------|-----------------------------------|
| [...] u muk te to'k ba              | 별에 대한 예언                          |
| [...] Hun Kanal (Tzek Ahaw)         | 1 하늘 수염 난 신                       |
| K'alah nah bird Chak Ek'            | 셋별이 북쪽의 큰새[?]에 매인다                |
| K'alah chik'in [...] Chak Ek'       | 셋별이 서쪽 신[?]에 매인다                  |
| K'alah nohol oxlahun Kan Chak Ek'   | 셋별이 남쪽 13하늘에 매인다                  |
| K'alah lak'in Kan Pawahtun Chak Ek' | 셋별이 동쪽 4 파와흐툼에 매인다                |
| K'alah lak'in                       | 동쪽으로 매인 것은                        |
| Lahun chan chak Ek'                 | 라훈 칸                              |
| Chak Boloy u hul                    | 재규어는 창에 찔렸다                       |
| U muk yol                           | 덮힌 것은 ? 신의 구멍                     |
| K'u yah si way ahaw                 | (신); 태어난 나왈 <sup>18)</sup> 신에게 재난 |
| Ox k'uhul yah ??                    | 3 구멍내는 자들이[?]에게 재난을               |
| Kimi Chak Ek' lak'in                | 까마귀는 셋별을동쪽에서(먹인다)                 |
| ? bird Chak Ek' nah                 | 큰새는 셋별을 북쪽에서 (먹인다)                |
| ??? Chak Ek' chik'in                | 신(?) 셋별을 서쪽에서 (먹인다)               |
| oxlahun Kan Chak Ek' nohol          | 13 하늘 셋별을 남쪽에서(먹인다)               |
| Hun u tun [...]                     | 한 해 [...] 나쁜 바람                   |
| Tok'bate yah tzul ahaw              | 흑요석칼의 전쟁, 개신에게 재난                 |
| U muk k'anawah                      | [외국인에 대한 ?] 예언                    |
| Yah muk kakatunal                   | 무덤[?]에 재난 카카투날                    |

(Schele & Grube, 1997: 146)

새해 달력은 카반(Kaban)해의 수호신으로서 재규어가 묘사되었다. 937년은 카반(Kaban)해이다(R. Bricker & M. Bricker, 1992).

셋별 라훈 칸이 행동할 때는 나쁜 바람이 불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셋별이 떠오를 때에 보이는 별들은 큰 새(?), 서쪽

18) Nahual, 메소아메리카에서 모든 사물이 각각 지니고 있는 정령 같은 것이다.

신, 13 하늘, 4 파와흐툰이다. 셋별이 사라질 때 보이는 별들은 까마귀, 큰 새, 신(?), 13 하늘이다. 착볼로이는 재규어를 의미하는 것 같다. 재규어는 마야에서 왕권을 상징한다. 즉 어떤 의미로든지 왕권이 위태로워질 것을 말하고 있다. 흑요석 칼은 인신공양 등에서 사용되는 신성한 칼이다. 고든 위터커는 카카투날(Kaktunal)을 멕시코 고원의 신으로, 역시 셋별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다.

## 48쪽

|                                     |                    |
|-------------------------------------|--------------------|
| [...] ahaw le ox wi il              | 지배함, 많은 음식         |
| nikil sak huk                       | 꽃들, 하얀 줄무늬         |
| [...]                               | [?]                |
| puchil ti [...]                     | [?]으로부터의 독즙은       |
| u muk winik                         | 사람을 위한 예언이다        |
| K'alah nah K'in Ahaw Chak Ek'       | 셋별이 북쪽 태양신에 매인다    |
| K'alah chik'in Wak Yich Chak Ek'    | 셋별이 서쪽 6 이치에 매인다   |
| K'alah nohol Ak'ab Ahaw Chak Ek'    | 셋별이 남쪽 밤의 신에게 매인다  |
| K'alah lak'in Ixik Uh Ahaw Chak Ek' | 셋별이 동쪽 숙녀달 신에게 매인다 |
|                                     |                    |
| k'alah lak'in                       | 동쪽으로 매인 것은         |
| tawisikal Chak Ek'                  | 틀라우이스칼판테쿠틀리 셋별     |
| Nal u hul                           | 옥수수신은 창에 찔렸다       |
| u muk lak'in                        | 그의 무덤은 동쪽에         |
| tu kab tu kun                       | 그의 땅에, 그의 옥좌에      |
| u muk kunal                         | 그의 옥좌의 무덤          |
| tzeni Kan- Pawahtun lak'in          | 4 파와흐툰을 동쪽에서 먹인다   |
| tzeni K'in Ahaw nah                 | 태양신을 북쪽에서 먹인다      |
| tzeni Wak Yich chik'in              | 6 이치를 서쪽에서 먹인다     |
| tzeni Ak'ab Ahaw nohol              | 밤의 신을 남쪽에서 먹인다     |
|                                     |                    |
| Ox ti uh, ox tu winik               | 세달, 세달[달력?]        |
| U muk k'antenal                     | 칸테날의 무덤            |
| Ahaw u muk                          | 아하우, 무덤            |
| Lak'in wuk h'anal                   | 동쪽의 7 샘에서          |

(Schele & Grube, 1997: 146)

938년은 익(Ik)해로, 옥수수신은 익(Ik)해의 수호신이다. 옥수수 신이 창에 의해 찢리고 있다(R. Bricker & M. Bricker, 1992).

셋별이 떠오를 때에 보이는 별들은 태양 신, 이치, 달의 신, 숙녀 달 신 4 파와흐툼이다. 셋별이 사라질 때 보이는 별들은 4 파와흐툼, 태양 신, 이치, 밤의 신이다.

고든 위테이커는(1985)는 셋별을 멕시코고원의 신인 타위스칼(Tawiskal)로 썼다고 했다. 셋별은 동쪽으로 들어왔다. 즉 저녁별이다. 이 모습으로 나타난 셋별은 옥수수로 대표되는 농작물 보다는 마야인의 최초의 조상인 옥수수신에게 영향을 주어,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성스러운 장소인 칸테날에 나쁜 영향을 준다.

## 49쪽

|                                 |                     |
|---------------------------------|---------------------|
| [...]                           |                     |
| u muk tz'ak ahaw                | 계승왕의 무덤             |
| ahay tok' te ba                 | 패배와 별               |
| [...]                           | [?]                 |
| u muk                           | 무덤의                 |
| yan kab                         | 지구에 재난              |
| yah [...] winik [...]           | [?] 사람[?]에게 재난      |
| K'alah naj ??? Chak Ek'         | 북쪽의 칠면조에 매였다        |
| K'alah chik'in death Chak Ek'   | 서쪽의 전갈에 매였다         |
| K'alah nohol K'awil Chak Ek'    | 남쪽의 큰[?]에 매였다       |
| K'alah lak'in Hun Ahaw Chak Ek' | 동쪽의 죽음의 신에 매였다      |
| k'alah lak'in                   | 동쪽에 매인 것은           |
| Chak Xiwitel Chak Ek'           | 착 시위텔, 셋별           |
| k'an a [...] u hul              | (신은) 창에 찢렸다         |
| u muk K'in ahaw                 | 태양신의 무덤             |
| u muk K'awil                    | 카윌의 무덤              |
| u muk wak yaxil winik           | 처음의 여섯 사람들의 재난      |
| Tzeni Ixih Uh Chak Ek' lak in   | 셋별이 동쪽에서 달의여신을 먹인다  |
| Tzeni [...] Chak Ek' nah        | 셋별이 북쪽에서[?] 먹인다     |
| Tzeni Kimi Chak Ek' chik'in     | 셋별이 서쪽에서 죽음의 신을 먹인다 |
| Tzeni K'awil Chak Ek' nohol     | 셋별이 남쪽에서 카윌을 먹인다    |

|                    |         |
|--------------------|---------|
| wuk ti uh          | 7 달     |
| wuk winik          | 7 월     |
| wa[.] nal kan[...] | [?]     |
| u muk [...]        | 무덤의     |
| u muk yahaw su     | 수 신의 무덤 |

(Schele &amp; Grube, 1997: 147)

셋별이 떠오를 때에 보이는 별들은 칠면조, 전갈, 큰새(?), 죽음의 신이다. 셋별이 사라질 때 보이는 별들은 달의 여신, [?], 죽음의 신과 카윌이다. 순서대로 본다면 마닉(Manik)해일 것으로 창에 찢린 신은 마닉해의 수호신일 것이다.

태양 신, 이치, 달의 신 칼 토베는 시위텔(Xiwitel)을 멕시코 고원의 시우테쿠틀리(Xiutecutli)와 연관하여 셋별로 읽었다. 셋별 신은 눈가리개를 하고 있고 또 피부는 표범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새벽에 나타나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                               |                 |
|-------------------------------|-----------------|
| 50 쪽                          |                 |
| Hun Ahaw Chak Ek'             | 1 아하우 셋별        |
| K'o Kun k'in ahaw             | 위 둘 태양신         |
| Xul K'in                      | 날의 마지막          |
| Xul Hab                       | 해의 마지막          |
| U muk Kan[.].                 | 4의 불길한 예언       |
| K'a wah ha [...]              | 음식과 물을 너무 먹었다   |
| Sak Hun [...]                 | 하얀 머리띠          |
| U muk kunal                   | 옥좌들에 대한 예언      |
| K'alah nah Nal Chak Ek'       | 북쪽의 옥수수의 신에 매였다 |
| K'alah chik'in God L Chak Ek' | 서쪽의 L신에 매였다     |
| K'alah nohol wuk'[...]        | 남쪽의 다람쥐에 매였다    |
| K'alah lak'in ain Chak Ek'    | 동쪽의 까마귀에 매였다    |
| K'alah lak'in                 | 동쪽으로 매인 것은      |
| Kakatunal Chak Ek'            | 카카투날, 셋별        |
| Tz'u-[...] u hul              | Q신(?)은 창에 찢렸다   |
| U muk k'u                     | 묻힌 것은 신들이다      |
| U muk tz'ak ahaw              | 묻힌 것은 왕족들이다     |

|                                |                    |
|--------------------------------|--------------------|
| U muk Nal                      | 묻힌 것은 옥수수신이다       |
| Tzeni Hun-Ahaw Chak Ek' lak'in | 셋별이 1아하우를 동쪽에서 먹인다 |
| Tzeni Nal Chak Ek' nah         | 셋별이 옥수수신을 북쪽에서 먹인다 |
| Tzeni God L Chak Ek' chik'in   | 셋별이 L신을 서쪽에서 먹인다   |
| Tzeni Wuk-[...] Chak Ek' nohol | 셋별이 다람쥐를 남쪽에서 먹인다  |
| Lahun uh winik                 | 열달-월               |
| U muk                          | 그의 무덤,             |
| Ka yax K'an u muk              | 2 [?] 무덤의          |
| Sak ta-ba [...] u muk          | 하양[?] 무덤의          |
| Tz'ul chik'in                  | 서쪽으로부터 온 외국인       |

(Schele & Grube, 1997: 147)

셋별이 떠오를 때에 보이는 별들은 옥수수 신, L 신, 다람쥐, 까마귀이다. 셋별이 사라질 때 보이는 별들은 1 아하우, 옥수수 신, L 신, 다람쥐이다.

마지막에 묘사된 재앙은 매우 충격적이다. 하얀 머리띠는 죽음을 의미한다. 신, 왕족과 옥수수 신이 묻히는 것으로 마야 사회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45쪽에는 다음 쪽들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대략이 쓰여 있다. 왼쪽에는 셋별 주기율표가 오른 쪽에는 사건이 쓰여져 있다. 46쪽에서 50쪽까지의 공통점은 셋으로 나누어진 첫 단은 사람 모습의 존재가 하늘의 띠<sup>19)</sup> 위에 앉아 있는 것이다. 해석하면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리하여 셋별이 움직이게 되었다. 즉 다섯 셋별신의 등장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신들은 하늘의 띠를 상징하는 의자 위에 앉아있다. 그들이 쓴 관과 손에 든 것, 얼굴의 모습으로 보아 셋별 자신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각각의 쪽에서 등장하는 셋별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본다. 두 번째 단에는 다섯 가지의 다른 모습의 셋별이 공격하는 모습이다. 애브니(1997: 75)에 의하면

19) 별, 달, 월식, 쪼개짐 등을 반복적으로 그려진 띠로서 팔렌케의 석판의 부조 장식으로 확인되었다.

셋별은 다섯 가지의 다른 움직임의 궤적을 갖고 있다. 세 번째 단은 공격을 당하는 자의 모습과 그 결과가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인다. 동사 야(yah)는 상처를 입히다, 손상을 입힌다는 뜻인데, 46쪽부터 50쪽의 가운데의 그림들이 창을 찌르고 있는 셋별신이 다른 신들을 다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셋별의 등장은 창으로 공격하는 전사로서 지상에, 왕들에게,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징조임을 보인다. 앞 장에서 본 비문에서도 셋별이 특정한 위치에 있었던 날 왕위 계승이 있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로써 셋별의 변화는 왕좌의 변동을 일으켰다고 해석된다.

첫째 단 두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단 두 번째 문단에는 옆에 그려진 셋별주기율 위에 쓰여진 내용도 번역하였다. 매인다와 먹인다의 동사로 반복되는 이 문장들은 셋별이 움직이는 다른 주위의 성좌의 움직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매였다는 셋별이 뜰 때의 다른 성좌들의 위치를 나타내고 먹인다는 셋별이 질 때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보인다. 셋별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네 별자리들을 확인한다면, 칠면조, 전갈, 까마귀 등등으로 표현된 마야의 별자리가 어떤 별을 뜻하는 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 번역 하지 않은 주기율표(모두 숫자이다)의 첫 번째 열은 새벽별로서의 셋별의 마지막 보이는 날을 기록한다, 두 번째 열은 저녁별로서의 첫 번째 나타남을 세 번째 열은 저녁별로서 마지막 보이는 날을 취급한다. 네 번째 열은 새벽별로서의 첫 번째 나타남을 보인다(Schle & Grube 1997: 144-5). 즉 8, 250, 90, 236일의 간격이 시작 또는 마지막의 날짜이다. 애브니(1999: 179)는 1)셋별이 새벽에 출현하는 기간(마야 사람들은 이 기간을 236일로 잡았다) 2)해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 기간(90일) 3)저녁에 출현하는 기간(250일) 4)해에 다시 가려지는 기간(8일)으로 설명하고 있다. 모두를 합하면 584일로 셋별의 한 주기가 된다. 동시에 이 네 열이 다섯번 반복되어 셋별의 5회합주기, 2920일을 기록하고 있다.

기록에서의 셋별은 모두 동쪽으로 들어온다. 위치로 보아 저녁별을 상징한다. 이들은 각각 L신, 10하늘, 타위스칼, 착 시위텔, 착 카

카투날로 불린다. 처음 둘은 마야 이름이나 나머지 셋은 멕시코 고원 문명의 표현(타위스칼, 시위텔, 카카투날)과 마야어(착)가 섞여있다. 앞 장에서 전쟁에 이길 때는 셋별이 새벽별일 경우이었다. 즉 저녁별일 경우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왕좌에 변동이 있었음을 보았다. 카카투날이나 시위텔이 서리 또는 새벽의 추움을 나타내는 것을 보아 농작물에게 좋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6쪽과 47쪽은 각각의 해의 수호신(카윌과 재규어)이 셋별 전사의 희생물로서 가운데 단에 묘사되었다. 즉 이 해에 일어날 나쁜 일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운스베리(F. Lounsbury)는 천문학적 관찰에 의하면 셋별 주기표는 10세기 후반에 최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애브니(1999: 192)는 드레스덴의 셋별주기표는 만들어질 당시를 기준으로 지난 2세기 동안 축적된 관측자료 들을 한데 모아 재구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마야 고문서가 후기 고전기에 작성되고, 멕시코 고원 문명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도, 발견된 지역이 후기 고전기의 중심 유적지인 치첸 이차 근처였다고 추정되는 것과 매우 연대가 일치한다. 그렇게 되면 마야 관찰자들은 셋별 주기표를 구성, 교정하는 작업을 200년 이상동안 하였을 것이다.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셋별이 동쪽하늘에 나타나는 시기를 정확하게 예견하는 일이었다. 이것이 정확해야만 셋별이 가져오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주기율표는 셋별 전사로서의 일을 수행하기 보다는 셋별의 공격을 예상하고 경고하고 있다. 재난을 대비한다는 것을 피할 방법을 찾기 위함일 것이다. 즉 드레스덴 고문서의 셋별의 이야기는 고전기 마야에서 하늘을 열심히 관찰한 이유와는 달리 비록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 있으나 실용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V. 맺는 말

셋별은 달 이외에 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는 별로서 아침과 저녁에 가장 일찍, 또 가장 늦게 까지 보이며, 해가 셋별의 위로 뜨는 경우와 아래에 뜨는 경우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간이 있는 독특한 주기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다섯 종류의 다른 주행방식을 보이고 있다. 셋별의 사라짐이 실질적으로 마야 사람들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는 아직 좀 더 연구하여야 할 과제이나, 이와 같이 변화무쌍한 셋별의 움직임은 마야 사람들에게 관찰되었고, 농작물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삶에 영향을 주는 셋별의 운동은 신들의 움직임으로 해석되었다. 셋별 신이 지구에 창을 던져 한발, 농작물의 잃어버림, 늙은이, 어린이와 주권자의 죽음 또는 특정한 동물의 죽음을 일으키곤 하였다고 믿어졌다. 마야사회에서는 셋별의 움직임에 따라 왕권의 계승 등, 국가의 중요한 일이 이루어졌고, 셋별이 보이지 않는 불행한 시기에는 전쟁을 통하여 포로를 잡아 인신공양을 함으로써 별의 운동을 바로 잡고자 했다. 왕은 하늘의 별들의 운행이 제대로 됨으로써 지상의 모든 일도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하는 자였다. 그는 별의 일을 하는 존재였다. 별의 일을 하는 왕의 절대성은 시대에 따라 바뀌었다.

마야 사람들의 최초의 이야기는 셋별과 해의 모험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들의 삶은 우나푸와 스발란케로 알려진 신들의 등장에서 비롯된다. 마야 사람들은 이들을 기리는 피라미드를 세움으로써 문명을 시작하였다. 왕은 셋별로 상징되는 우나푸의 후계자이며 지상에서 그들의 일을 대신하는 존재였다. 즉 왕은 셋별의 대리자였다. 왕들은 셋별을 상징하는 문양을 장식으로 쓰며 왕으로서의 일을 수행할 때 표적으로 사용하였다.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일은 천체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전쟁과 제전의 수행과 기록, 그에 따른 피라미드와 부속물의 건축이었다. 이렇게 고전기 마야의 복잡한 체계로 발전한 사회는 그러한 왕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 따랐다. 그러나 약 10세기 경 유카탄 반도의 중부와 과테말라의 페

텐(Peten)을 중심으로 하여 변성하였던 고전기 마야 문명이 기울어지고 문명의 중심부는 유카탄 반도의 북쪽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발전을 시도하였다. 후기 고전기에 와서도 셋별의 중요성은 계속되었다. 한편 그들은 좀 더 실용적인 쪽으로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 때에는 첫 문장을 날짜로 시작하는 비문의 제작은 거의 하지 않으나 문서로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식, 월식과 셋별의 주기표를 만들어 남겼다. 주기율 표는 언제 재난이 올 것인가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즉 단순히 별을 관찰하는 것 이외에 예측과 지배를 지배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왕권은 더욱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의 셋별은 단순한 조상신에서 날개-뱀(쿠쿨칸)신으로 바뀌었다. 날개와 뱀이 상징하는 하늘과 땅의 지배는 고전기 마야와는 다른, 좀 더 조직적이며 전체적인 사회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시대에 따라 준 영향은 달랐을지라도 셋별의 움직임은 마야 사회의 전체를 흔들었다. 그들은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하여 피라미드를 세웠으며, 관찰한 별들의 운동을 기록하기 위하여 문자를 만들었고, 마침내는 사회 자체가 별의 움직임에 따라 좌우되었다. 마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천체의 움직임의 관찰에 모든 것을 쏟았을까? 별의 움직임은 계절적인 비와 마야 사람들의 주식인 옥수수 경작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들이 이렇게 셋별의 움직임을 주시하게 된 데에는 이런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실제적인 이유로 하늘을 관찰하는 가운데 끝없이 변화하는 하늘의 세계를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하늘을 보았지만, 또한 언제인가는 똑 같은 지점에 되돌아오는 것도 보았을 것이다.

## Abstract

La civilización maya tiene muchos registros del acontecimiento astral. Especialmente los mayas observaron el movimiento del Venus. Ellos hicieron el primer pirámide decorado por las caras que simbolizan el Sol

y el Venus. Los reyes mayas realizaron el ritual imitada de la trayectoria astral y dirigieron las guerras por la desaparición y la aparición del Venus. El Venus creó la civilización de Maya Clásica. La importancia del Venus continuó al periodo Posclásico. Se crearon las tablas de eclipse del Sol y la Luna, y de Venus, Aunque los reyes utilizaron los símbolos del Venus ya no se encuentran los registros de la guerra.

Key Words: Civilización Maya, Acontecimiento Astral, Venus, Guerra, Códice Dresden / 마야문명, 천체현상, 섯별, 전쟁, 드레스덴고문서

논문투고일자: 2003. 10. 15

게재확정일자: 2003. 11. 14

- 에브리, 앤토니(1997), *□별을 향한 길*□, (박병철 역), 영림 카디널.  
 광영직/김충섭(2002), *□별자리*□, 여사이언스북스.  
 토베, 칼(1998), *□아즈텍과 마야 신화*□, (이웅균/천경효 역), 범우사.  
 □마야인의 성서: 포폴부□(1999), (고혜선 역), 문학과 지성사.  
 Arrellano Hernandez, Alfonso(2001), “Guerras Venusianas entre los Mayas”, *Arqueología Mexicana*, No. 47, pp. 36-41.  
 Bricker, Victoria R. & Harvey M. Bricker(1992a), “A Method for Cross-Dating Almanacs with Tables in the Dresden Codex”, in Anthony Aveni(ed.), *The Sky in Mayan Literature*, pp. 43-86.  
 \_\_\_\_\_(1992b), “Zodiacal References in the Maya Codices”, in Anthony Aveni(ed.), *The Sky in Mayan Literature*, pp. 148-182.  
*Códice de Dresde*(1993),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Freidel, David et al.(1993), *Maya Cosmos: Three Thousand Years on the Shaman's Path*, New York: William Morrow.  
 Grube, Nikolei(ed.)(2001), *Maya: Divine Kings of the Rain Forest*, Germany: Konemann.  
 Hammond, Norman(1985), “The Sun is Hid: Classic depictions of Maya Myth”, in Merle Green Robertson & Elizabeth Benson(eds.), *Fourth Palenque Round Table*, San Francisco: The Pre-Colombian Art Research Institute, pp. 167-174.  
 Hendrickson, Carol(1989), “Twin Gods and Quiche Rulers: The relation between divine power and kingly rule in the Popol Vuh”, in William Hanks & Don Rice(eds.), *Word and Image in Maya Culture*, Salt Lake City, USA : University of Utah Press, pp. 129-139.  
 Knorozov, Yuri(1982), *Maya Hieroglyphic Codices*, New York: Institute for Mesoamerican Studie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Albany.
- Miller, Mary(1995), "Bonampak", *Arqueología Mexicana*, No. 16, pp. 48-55.
- \_\_\_\_\_(2002), "Reconstrucción de los Murales de Bonampak", *Arqueología Mexicana*, No. 55, pp. 44-55.
- Miller, Virginia E.(1985), "The Dwarf Motif in Classic Maya Art", in Merle Green Robertson & Elizabeth Benson(eds.), *Fourth Palenque Round Table*, San Francisco: The Pre-Colombian Art Research Institute, pp. 141-154.
- \_\_\_\_\_(1989), "Star Warriors at Chichen Itza", in William Hanks & Don Rice(eds.), *Word and Image in Maya Culture*, Salt Lake city, USA : University of Utah Press, pp. 287-305.
- Pérez Suárez, Tomás(2000), "Pintores y escultores del Mundo Maya", in *Arqueología Mexicana*, No. 42, pp. 60-67.
- Pickand, Martin(1980), "The First Father legend in Maya Mythology and Iconography", in Merle Green Robertson(ed.), *Third Palenque Round Table*, Austin, Texas: University of Texas Press, pp. 124-137.
- Rivera Dorado, Miguel(1987), "Una Interpretacion del mito de Hunapu e Xbalanque", in Mercedes de la Garza(ed.), *Memoria del Primer Coloquio Internacional*, Mexico D.F.: UNAM, pp. 1115-1132.
- Schele, Linda & David Freidel(1990), *A Forest of Kings: The Untold Story of the Ancient Maya* New York: Quill William Morrow.
- Schele, Linda & Nikolai Grube(1994), *Tlaloc-Venus Warfare: The Peten Wars 8.17.0.0-9.15.13.0.0*, Notebook for the 18st Maya Hierglyphic Forum at Texas, Austin: University of Texas.
- Schele, Linda & Nikolai Grube(1997), *The Dresden Codex*, Notebook for the 21st Maya Hierglyphic Forum at Texas, Austin: University of Texas.
- Schele, Linda & Mary Ellen Miller(1986), *The Blood of Kings: Dynasty*

*and Ritual in Maya Art*, London: Thames and Hudson Inc.

Schele, Linda & Peter Mathews(1998), *The Code of Kings: The Language of Seven Sacred Maya Temples and Tombs*, New York: Scribner.

Tedlock, Dennis(1992), "Myth, Math, and the Problem of Correlation in Mayan Books", in Anthony Aveni(ed.), *The Sky in Mayan Literature*,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47-274.

Tedlock, Dennis(1993), *Popol Vuh: El libro Maya del albor y de la vida y las glorias de Dioses y Reyes*, Mexico D.F.: Editorial DIANA.

\*

김우성(부산외국어대학교)\*\*

I. 가  
II.  
III.  
IV.  
V.

## I. 들어가는 말

스페인의 신대륙 정복과 함께 이식된 스페인어는 중남미 국가들의 독립 이후에도 이들 간의 정신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복 초기 중남미에 들어온 스페인어는 정복자들의 출신지역, 각 지역의 사회·문화적인 상황, 식민지 본국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식민사업이 진행되면서 각 지역별로 약간씩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중남미 국가들이 스페인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면서 각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데, 현재에도 이들 국가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를 보면 그들이 독립 후에 겪은 정치·사회적 변동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흔히 일반화시켜 얘기하는 ‘중남미 스페인어’는 이 지역에

\* 이 논문은 2002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Uh-Sung Kim(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enguaje e identidad nacional de los argentinos”.

서 쓰이는 스페인어를 가름하는 명칭 이외에 구체적인 지시대상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다. 이는 중남미 국가들을 구분하는 차이만큼이나 스페인어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멕시코 스페인어 혹은 아르헨티나 스페인어처럼 각 지역의 화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말이 구체적인 실체를 갖는다는 것이다. 가령, 우리가 쉽게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를 구분할 수 있듯이, 그들이 말하는 스페인어 역시 서로 구분되는 특징들이 있어서 쉽게 이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이 식민지 시대에는 지방색을 드러내는 요소로서 기능을 해왔으나, 식민지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는 단일규범 즉, 본국의 규범과 다르기 때문에 장려되고 유지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 정확한 스페인어를 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대상이었다. 그러나 중남미가 스페인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이룩한 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식민 지배를 겪었던 모든 국가에서처럼, 중남미에서도 정치적 독립과 함께 문화적인 독자성(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 되었다. 이를 위한 노력 중의 중요한 부분이 언어에 관한 문제인데, 이 지역에서는 식민 통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스페인어가 국가의 공용어로 이미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식민통치 이전에 존재했던 다른 언어를 복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다시 말하면, 표준어로 기능해왔던 본국의 언어규범을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그동안 지역적 방언 정도로 취급되었던 자국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를 채택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각 국가의 대응은 그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의 확립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멕시코나 페루와 같이 식민지 기간 동안 스페인의 문화적 전통이 단단히 뿌리를 내린 국가들에서는 별다른 논쟁을 유발하지 않고 자국의 스페인어를 규범으로 채택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이러한 문화적 전통이 미미했던 나라들,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독립 이후 자신들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인 요인들로 인해 정치적 독립과 함께 언어적인 독립을 주장하는 그룹과 이를 반대하는

그룹으로 나뉘어 극심한 혼란을 겪는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만의 독특한 언어 인식이 형성되어 현재까지도 언어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경향이 어느 여타 국가보다 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사이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있어서 제기된 언어문제는 무엇이고, 언어와 관련하여 각 시대별로 아르헨티나의 식자층이 가졌던 인식을 중심으로 그 시대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결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II. 정치적 독립과 언어문제

19세기 초엽의 중남미는 스페인 식민체제의 단절과 이로 인한 여러 독립국가들의 출현으로 특징된다. 이러한 해방의 분위기는 새로운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과 사상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 이들 사회의 지식층들로 하여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독립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을 부추긴다. 정치적 독립이 달성되자 이와 함께 문화적인 독립의 요구가 강렬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3세기에 걸쳐 유지되어온 스페인과의 문화적 유대감이 정치적인 그것처럼 하루아침에 단절될 수는 없었다. 특히, 언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에서 스페인이 남긴 다른 문화적 전통들과 분리하여, 스페인과 중남미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 간의 정신적인 유대를 위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여, 단절을 막고 계속해서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식민지 본국인 스페인의 표준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독립초기에 스페인어의 단일성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대표적인 지식인은 중남미 언어학의 시조로 추앙 받는 안드레스 베요(Andrés Bello)이다. 그는 중남미의 독립을 새로운 것의 탄생이 아니라 로마제국의 붕괴 때와 유사한 파괴 행위로 간주하고, 스페인이 물려준 스페인어를 가능한 한 순수한 형태로 유지함으로써 스페인어의 분화

가능성을 막아보려 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고전주의 작가들과 18, 19세기 유명 작가들의 작품에 토대를 둔 스페인어 단일규범 제정에 강한 집착을 갖게 된다. 그는 스페인어가 스페인이 물려준 값진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계승, 발전 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또한 당시 중남미 국가의 분열과 중남미 지식인들에 대한 프랑스 영향의 증대로 인한 프랑스 어휘의 많은 유입을 지켜보면서 중남미에서 언어분화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따라서 모든 중남미 국가들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매개체를 스페인어에서 찾고 단일규범의 도입을 통한 분화과정의 억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이러한 소망을 실현하고자 그는 □중남미인을 위한 스페인어 문법□(*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destinada al uso de los americanos*)을 펴내게 된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나는 이 책을 스페인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나의 형제들인 중남미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다”(Bello, 1984: 32)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책의 제목이나 서문에서 밝힌 것과는 달리 그는 이 문법서를 통해 중남미 스페인어의 규범을 만들 생각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가 중남미 사람들을 위해 문법서를 쓴 것은 이 지역에서 스페인어의 분화 가능성이 아주 높았기 때문이었고, 이 책에서 의도했던 바는 중남미 사람들이 분열을 딛고 언어의 통일성을 위해 그가 주장한 단일규범을 따랐으면 하는 것이었다(김우성, 1997).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독립 초기에는 스페인의 언어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소설가인 후안 바렐라(Juan Varela)는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스페인 전통에 기반을 둔 규범, 사상 그리고 가치 등을 옹호하면서, 언어에서도 스페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언어를 순수한 형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당시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스페인어의 잘못된 사용에 대한 비판에서 엿볼 수 있다.

아주 뿌리 깊이 박힌 습관들이 있다. 일반 좌담이나 심각한 토론, 문어, 법원에서도 일상적으로 언어가 아주 잘못 사용되고 있다.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는 아주 잘못된 발음을 지금 고치도록 하자.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곳을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단어의 적절한 사용, 문장의 정확성에서 광범위하게 언어에 대한 무지가 드러난다.(Fontanella de Weinberg, 1988: 75에서 재인용)

이러한 보수적인 태도는 스페인 식민지 전통으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찾으려는 열망이 강렬하게 나타나는 1830년에 이르면 보다 급진적인 언어 독립의 요구로 바뀐다. 이러한 요구는 후안 마리아 구띠에레스(Juan María Gutiérrez), 후안 바우티스타 알베르디(Juan Bautista Alberdi), 에스페반 에체베리아(Esteban Echeverría) 등으로 대표되는 37세대의 낭만주의 작가들에 의해 표출된다. 이들은 우선 과거에 대한 단죄로부터 출발하여, 국가 독립은 당시까지 지배적이었던 식민지 시대의 가치나 전통에 대한 비판을 통해 공고화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스페인 유산에 대한 청산을 시작한다. 또한 독립 후 처음으로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할 새로운 가치체계의 확립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로써 정치적 독립이라는 이상에 이를 보완하고 완성하는 요소로서 문화적 독립이라는 이상이 더해지게 된다. 이들의 스페인 식민지 전통의 완전한 청산과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하려는 열망으로 인해,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서 언어가 낭만주의자들의 검토대상이 된다. 이들은 언어가 민족정신을 표현하고 형성시킨다는 조안 헤더(Johan Herder)(Fishman, 1972)나 훔볼트(Humboldt)(Marcellesi & Gardin, 1978)의 영향을 받아 언어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언어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스페인어를 이미 정치적 관계를 단절한 스페인과 동일시하여 이를 부정한다. 다시 말하면, 스페인어는 스페인이라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결점과 결함이 있으므로 식민지 시대의 유물인 스페인어를 청산하고 스페인어와 다른 언어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sup> 이와 관련하여 알베르디(1955)는 낭만주의자들 중에서

1) 언어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언어민족주의적 개념에서는 자신들의 언어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통한 정체성 확립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르헨티나의 37세대의 언어 민족주의에서는 당시 자신들이 물려받은 언어인 스페인어를 본국인 스페인과 동일시하여 이 언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를 계승해야 할 대상이 아닌 청산의 대상으로 간주한 것이 특징이다.

도 가장 극단적인 입장을 견지해, 스페인어를 버리고 프랑스어를 채택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스페인어라고 말하는 것은 아르헨티나 법률이나 관습이 아르헨티나의 것이 아니고 스페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언어적 독립이 없이 정치적 독립만 가지고는 국가의 독립이 완성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아르헨티나 낭만주의자들은 언어에 대한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독립 후에도 계속해서 스페인의 언어규범을 따르는 것은 독립의 이상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언어주권에 대해 알베르디(1955)는 국민이 법률을 제정하듯이 언어를 제정하며 이런 점에서 독립, 주권국가라 한다면 정치에서 법률이 다른 국가가 아닌 자신으로부터 나오듯이, 언어 역시 다른 나라가 아닌 자신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37세대의 주류를 이루는 것인데 스페인 문화에 대해 프랑스와 같은 다른 유럽국가의 문화에 비해 낙후되고 새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이를 대표하는 언어 또한 국가의 발전에 걸림돌이라 여겨, 새로운 사상이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스페인어와 단절하고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2)</sup> 그러나 모든 낭만주의 작가들이 이러한 급진적인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다. 에체베리아는 스페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중 중남미인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언어이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Echeverría, 1958). 이는 그가 다른 낭만주의 자들과는 달리 언어의 단절을 주장하지 않고 스페인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다양한 규범의 존재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3)</sup>

2) 구띠에레스는 이에 대해, “우리는 아직 언어라는 강력하고 긴밀한 고리를 통해 스페인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이 고리는 우리가 유럽 선진국들과 지식을 교류함에 따라 점차 느슨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외국어에 친숙해져야 하며 이들 언어 속에 들어 있는 좋고, 흥미롭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데 상시적인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Fontanella de Weinberg, 1988: 76에서 재인용)라고 말한다.

언어에 대한 주권재민, 언어적 독립과 같은 주장은 37세대들과 동 시대에 칠레에서 망명생활을 했던 사르미엔토(Sarmiento)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그는 철저한 반 스페인적 입장을 취한 대표적인 중남미 의 언어적 독립의 주창자로, 당시 독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남미 국가들이 스페인의 규범과 다른 독자적인 별도의 문어체 스페인어를 만들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들만의 단어를 만들고, 일상어에서 온 형태나 표현을 받아들이고 토착어에서 언어재료를 차용할 수 있는 권 리가 있다고 옹호했다.

민주주의 신념이 강하고 낭만주의 사조의 영향을 받은 그는 한 언 어권 내의 소수의 전문가들에게 교양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결정 권이 있다는 베요의 주장을 배격하고, 이러한 결정은 다수로 이루어 진 합의체가 위임받은 권한을 사용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기 로 합의한 것을 추진하면 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언어를 사회와 같이 역사적 사건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 회적 실체로 간주해서, 상황의 변화로 해서 언어의 변화가 필연적일 경우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소수의 의지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언어 순수주의자들이 언어의 변화를 막거나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도록 하려는 노력은 소용없는 것이라 보았 다. 따라서 당시 중남미의 사회·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스페 인의 언어규범을 중남미에서 유지하려 했던 언어 순수론자들의 입장 을 강하게 비판했다.

언어의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스페인 한림원에 대해서도 사르미엔 토는 이미 오래 전에 쇠퇴한 스페인 절대주의 시대의 잔재로 간주하 여, 중남미에서의 그의 영향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언어의 자연스런 변화를 막고 단일규범을 내세우는 한림원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 다. 또한 신조어의 무분별한 도입은 단일규범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졌던 Bello와는 달리, 그는 스페인어 초창기부터 항 상 그래왔듯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

3) 이러한 에체베리아의 생각은 현재 스페인어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복수규 범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왔다. 그리고 문화면에서 스페인이 옛 식민지보다 나을 입장이 되지 못하므로 중남미 국가들은 유럽의 선진국으로부터 그들의 문화와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를 표현하는 어휘의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의 언어적 독립에 대한 생각은 1848년에 그가 제안한 철자 개혁안인 □중남미 철자법 연구□(*Memoria sobre ortografía americana*)에서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sup>4)</sup> 그가 제안한 철자는 중남미에서 사용되는 발음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이 개혁안이 갖는 의미는 지금까지의 언어 연구가 스페인어의 순수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비해 이것은 중남미 사람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또한 스페인어 언어 정책에 스페인의 표준규범이 아닌 중남미의 언어현실을 반영시키라는 최초의 요구였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사르미엔토는 이 개혁안에서 중남미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스페인에서만 사용되는 발음을 나타내는 철자인 ‘z’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중남미에서 사용되는 ‘seseo’가 잘못 사용된 오류가 아니라 중남미 스페인어의 특징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결국 언어독립을 주장한 사르미엔토와 37세대의 낭만주의 작가들은 스페인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이를 표현하는 스페인 스페인어를 거부하고 중남미 상황에 맞게 변형되고 유럽 선진국의 언어의 영향을 받아 풍부해진 새로운 언어의 창조를 생각하고 있었다.

1870년대 들어오면서 국가적인 상황이 안정을 찾게되고 제도적인 정비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낭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문화적인 독립의 열기도 점차 식어갔다. 이러한 시점에 스페인 한림원은 중남미 지부 결성을 결정한다. 이러한 상황은 또 다시 아르헨티나에서 언어주권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는데, 이에 대해 낭만주의자들은 언어와 문화에 있어서 이룩한 독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언어규범에 있어서 스페인 한림원의 권위를 단호히 거부한다. 이에 대해 알

4) 미국의 경우에도 독립 직후 언어를 통한 정체성 확립의 일환으로 철자법 개혁이 제안되었다(Simpson, 1986).

베르디는 “이는 중남미에 다시 스페인의 언어규범을 유지시키겠다는 책략으로 이를 기화로 스페인 한림원이 중남미에 들어와 외교나 무력을 통해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실현하려고 한다. 이것은 다름 아닌 반혁명이고 중남미에 스페인의 문학적 주권을 복원시키려는 것이다”(Blanco, 1991: 35에서 재인용)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낭만주의자들은 초기에 가졌던 언어 독립과 같은 극단적인 언어 민족주의적 입장을 누그러뜨린다. 특히, 사르미엔토와 알베르디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중남미의 언어주권을 강조하면서도, 스페인과 중남미가 똑같이 스페인어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공용어로서의 스페인어를 인정하게 된다. 또한 언어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스페인어를 다른 언어와 구별시켜주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아르헨티나 국어로 초창기에 주장했던 스페인어와 다른 새로운 언어가 아닌 아르헨티나 상황에 맞게 변화된 스페인어를 생각했다. 또한 이들은 민족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으나 유럽문화, 특히 프랑스 문화 및 외국어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으며, 언어와 국가를 동일시했음에도 언어 순수주의 뜻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외국어와 접촉을 통해 스페인어가 풍부해진다고 생각했다.

### III. 유럽 이민자들의 유입과 언어 민족주의

낭만주의자들의 이러한 유럽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보다 선진적인 문화를 가진 유럽인들의 유입으로 국가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1880년부터 아르헨티나에 대규모의 유럽 이민자들의 유입이 시작된다. 그러나 이민자들의 문화적 수준이 낮고 대부분이 농업 및 목축업에 종사한 사람들이어서 당시 이들의 유입으로 많은 발전을 바랐던 지배계층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토지제도의 한계로 인해 이들이 농촌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대다수가 라플라타강(Río de la Plata) 유역과 같은 지역으로 몰려들었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 인구 구성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질적인 인구구성 분포를 보인다. 또한 낭만주의 시대부터 시작된 사회의 프랑스화와 일부 지도층의 세계주의적 경향(cosmopolitismo)이 심화되고, 이민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사회구조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언어에서도 복잡한 상황을 초래하는데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에서는 스페인어 외에 여러 언어가 사용되는 다중 언어상황이 생겨난다. 당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언어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인구조사가 부재한 까닭에 어떤 언어가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알 수는 없으나, 인구조사 대상자의 국적을 토대로 하여 그들이 사용한 모국어를 개략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도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이민자 중 스페인어와 다른 언어를(이태리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영어 등) 구사하는 사람들이 시 전체 인구의 52.6%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복잡한 언어상황을 잘 말해준다.

| 아르헨티나  | 205,334 | 47.4% |
|--------|---------|-------|
| 이태리    | 139,166 | 32.1% |
| 스페인    | 39,562  | 9.1%  |
| 프랑스    | 20,031  | 4.6%  |
| 기타     | 29,882  | 6.9%  |
| 총 외국인수 | 228,641 | 52.6% |

(Fontanella de Weinberg, 1982: 79)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당시 이민자들 중 이태리 출신들이 가장 많았고 전체 인구의 32.1%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태리어의 어휘가 아르헨티나 스페인어에 많이 들어온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sup>5)</sup> 또한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의 언어적 유사성으로 인해 이들이 스페인어를 비교적 쉽게 배워 의사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두 언어가 혼합된 중간언어 격인 꼬폴리체(cocoliche)가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형태는 이민 2세대에 가면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 시기에 일어났던 커다란 사회적 변혁으로 인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는 대도시 특유의 범죄적인 분위기가 생겨나는데, 언어 면에서도 범죄자들의 언어인 룬파르도(lunfardo)가 형성되어 후에 많은 부분이 스페인어의 일상어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은 바로 정체성의 위기를 불러온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두 가지 상반된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난다. 하나는 1910년 이후부터 아르헨티나 사회를 지배한 이념인 지배층의 민족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이민의 결과로 형성된 사회의 중간 계층의 민족주의가 그것이다. 이 두 이념간의 차이는 전자가 이민자의 유입으로 초래된 사회 변화에 맞서 보수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표방하면서 스페인 본국과의 관계 및 전통의 재평가를 통해 스페인적인 것을 복원하자는 주장을 펴는데 비해, 후자는 전통과 새로운 것, 아르헨티나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 중남미적인 것과 스페인적인 것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모두가 바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고 또한 진정한 아르헨티나적인 표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Barbero y Devoto, 1983).

언어적인 면에서도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전자의 경우에는 친 스페인적인 언어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띠어 언어를 국가를 상징하는 신성한 요소로 간주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국어로 스페인의 언어규범이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아르헨티나인의 뿌리와 새로이 태동된 이민자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상실돼 가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를 연결시켜주는 고리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은 식민

5) 그러나 당시 이태리 이민자들의 낮은 교육수준과 당시 이탈리아어의 사용범위의 한계로 인해 이탈리아어에서 들어온 어휘는 음식(peta, ricota, peseto... 등), 가족(pibe, nona... 등), 일상의 용어(chau, laburo, lungo... 등)에 집중되었다.(Fontanella de Weinberg, 1988: 80)

지 시대에 사용되었던 스페인 언어규범이 언어의 순수한 형태를 보존한 유일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상황에 의해 변화된 스페인어는 타락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언어 변화는 곧 정체성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여겨 언어 순수주의를 고집했다. 이들은 이민자들의 유입을 언어가 타락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체성의 해체 신호로 받아들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스페인의 언어규범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 시기의 상황을 칼 솔베르그(Carl Soberg)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대규모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있었던 시기에 아르헨티나에서 사용된 스페인어가 겪었던 급속한 변화는 많은 지식인들에게 국가적 정체성의 혼란을 상징하는 것이었다.(Soberg, 1970: 139)

이렇게 해서 아르헨티나에 이전의 37세대가 주장한 언어민족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보수적인 언어민족주의가 출현하게 된다. 이는 칼릭스토 오유엘라(Calixto Oyuela), 에르네스토 께사다(Ernesto Quesada), 알베르토 델 솔라르(Alberto del Solar), 라파엘 오블리가도(Rafael Obligado) 등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이들은 당시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사회, 경제, 정치, 문화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자연스런 언어변화를 민족성의 퇴보로 간주하여, 스페인어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이 정체성의 혼란을 막는 길이라 생각했다. 이들은 아르헨티나라는 국가를 독립된 실체로서가 아니라 스페인 전통이라는 보다 더 일반적인 구조의 한 부분이라고 간주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친스페인적인 경향을 띠었고, 아르헨티나의 독자성을 부정했다. 이는 1910년에서 1920년 사이에 아르헨티나의 문화, 정치 영역에서 나타난 정신, 전통, 스페인 뿌리라는 삼위일체를 근간으로 하는 이념적 민족주의의 단초를 제공한다(Blanco, 1991). 이들은 이전의 낭만주의자들이 주장한 언어 민족주의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스페인어를 민족혼이나 국민정신을 나타내는 표상, 다시 말하면 국가의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으로 간주하여 민족이나 전통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언어를 순수하고 이상적인 상태로

보존할 목적으로 언어의 자연스런 변화과정을 억제하려는 언어 순수주의 입장을 취했다.

한편, 이 새로운 언어 민족주의는 언어 면에서 앞에서 언급한 37세대 낭만주의자들이 제기한 언어 독립에 대한 주장에 동조했다. 이들도 언어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스페인의 언어규범의 유지를 주장한 친 스페인 언어 민족주의자들과 달리 스페인어의 아르헨티나화에 그 목표를 두고 있었고, 궁극적으로 스페인어와 다른 아르헨티나 고유의 언어를 만들려고 했다. 1920년대 말에 가면 이들은 스페인의 어휘와 아르헨티나의 어휘 차이의 분석에 토대를 둔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아르헨티나 스페인어와 다른 아르헨티나 고유의 언어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Rossi, 1928)<sup>6)</sup>. 이들은 언어독립을 주장한 낭만주의자들처럼 언어가 각 민족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을 통해 아르헨티나에 형성된 새로운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상인 언어 또한 다른 나라의 그것과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우리는 스페인 규범의 유지를 주장하는 전통주의자들이나 아르헨티나 독자적 언어를 주장하는 언어 독립주의자들 공히 언어문제를 통한 아르헨티나의 정체성 추구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는 스페인의 문화적 유산을 복원,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스페인 규범의 순수성을 보존할 것을 주장했고 후자의 경우에는 국가의 정체성이 스페인어의 아르헨티나적인 실현, 다시 말하면, 외래어와의 접촉, 아르헨티나의 풍속과 관습에 의해 변형된 -그들 생각으로는 다른 언어인-스페인어의 한 변이형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유럽 이민자들이 아르헨티나 스페인어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이들은 서로 상반된 시각에서 해석한다. 언어의 순수성을 주장하는 전통적 민족주의자들은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한 외래어와의 접촉이 언어변화를 유발한 제 일차적인 요인으로 보고, 그로 인해

6) 이들이 말하는 아르헨티나의 독자적인 언어란 일반 대중의 스페인어를 근간으로 이태리어, 불어, 영어 등에서 온 어휘들이 혼재한 언어를 말한다.

언어가 타락했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나, 언어 독립주의자들은 외래어와의 접촉이 아르헨티나 스페인어를 독특하게 변화시킨 근본적 원인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 IV. 아르헨티나 표준규범의 정립

1920년대를 기점으로 아르헨티나에는 앞에서 본 언어 순수주의와 언어적 독립 주장 사이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지식인들이 나타난다. 이들은 스페인어 내에 지역적인 색깔을 갖는 변이형들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복수규범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보르헤스(Borges)는 복수규범의 관점에서 언어 순수주의와 언어적 독립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을 가한다.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영향이 아르헨티나 스페인어에 대해 작용하고 있다. 하나는 아르헨티나 스페인어가 하층민들의 말을 근간으로 형성되었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의 완결성과 그것으로부터의 이탈은 불경스럽고 무용하다고 믿는 순수주의자 혹은 스페인 숭배주의자들의 영향이다(Borges, 1994: 136).

이러한 주장은 보르헤스 이외에도 페드로 엔리케스 우레냐(Pedro Henríquez Ureña), 알베르토 Zum 펠데(Alberto Zum Felde), 에르네스토 사빠또(Ernesto Sábato) 등에 의해 제기되는데 이들은 아르헨티나 언어의 문제를 중남미 문화가 갖는 일반적인 문제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아르헨티나의 정체성과 아르헨티나 문학, 나아가서 중남미 문학의 독창성 추구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이들은 언어의 순수주의를 주장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물려받은 스페인어 내에서 중남미 각 국가의 표현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리카르도 로하스(Ricardo Rojas)는 이것을 아르헨티나 문학에서의 언어문제와 결부시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러한 언어문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아르헨티나 문학은 아르헨티나어로 쓰여져 있지 않다.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언어로 책을 펴내지는 않는다. 우리는 식민자들이 중남미에 가져온 스페인어를 물려받은 사람들이다(Rojas, 1924: 45).

그는 이어서 중남미에서 언어에 대해서 갖는 세 가지 잘못된 태도를 지적한다. 하나는 국민문학이 있기 위해서는 국어가 별도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페인어가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면 이들은 하나의 개별적인 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이며, 마지막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중남미 국가들은 이 언어를 물려준 스페인의 문학적 식민지이다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스페인어와 같이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는 공용어인 경우, 각 국가 문학의 새로운 내용, 감수성의 지역적 색깔, 변화과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어휘, 문장구성, 의미에 있어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모습을 갖게될 언어 내의 다양한 복수규범의 존재를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보르헤스 역시 스페인어 규범의 통일성 속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스페인의 스페인어와 아르헨티나의 스페인어 사이에 어떠한 극복하지 못할 거리가 존재하는가? 서로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서로 다른 뉘앙스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 또한 언어의 완전한 소통을 방해하지 않을 만큼 아주 은근한 것이고 조국의 목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주 선명한 것이다(Rojas, 1924: 146).

이와 관련하여, 슐 펠데는 □중남미 문화의 문제□에서 중남미와 스페인의 서로 다른 현실을 토대로 스페인 스페인어와 아르헨티나 스페인어가 동일한 것이 될 수도 없고 또한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남미 각 국가의 역사적인 요인들에 의해 변형되고 풍부해진 이 지역 스페인어의 독자성을 주장한다.

우리가 물려받은 언어는 스페인어이다. 그래서 다른 언어가 될 수가

없다. 또한 그렇게 될 이유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중남미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가 스페인의 스페인어와 같으라는 법도 없다. 아니 같을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스페인사람들과 같지도 않으며 같고 싶지도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페인어가 같을 수가 없다(Zum Felde, 1943: 229).

또한 사바또도 중남미 및 아르헨티나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사한 입장을 견지한다. 그는 언어가 인간의 삶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굴곡이 심한 변화를 받는 것이 자연스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아르헨티나의 사회·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voseo<sup>7)</sup>와 같은 아르헨티나 스페인어의 차별적인 특징들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voseo는 이미 우리 국민의 피와 살이 되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소설이나 연극에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작가들은 결코 자신이 속한 상황의 심층적인 진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그가 사용해야 하는 언어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고통받고, 절망과 죽음의 순간에 울부짖고,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웃음과 눈물 그리고 불행과 희망이 섞여있는 그런 언어이다. 그것은 어린 시절 우리가 젖을 먹던 언어이다. 또한 우리가 했던 놀이들, 우리 주위에 있었던 새들과 개들, 우리가 꾸었던 꿈들 그리고 악몽까지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언어이다(Sábato, 1968: 163).

스페인어 내에서 아르헨티나의 독자적인 언어규범을 주장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앞에서 본 언어에 대한 극단적인 두 가지 입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슐 펠데(1943)에 따르면 언어 순수주의는 중남미의 진정한 시각에 반하는 식민지 시대의 보수적인 조바심에 지나지 않고, 반대로 언어를 천박하게 만들어 그 차이점을 부각시키려는 노력 역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인위적인 모든 것은 역효과만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7) voseo란 현재 스페인어권에서 2인칭 대명사로 널리 사용되는 tú 대신에 vos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들은 스페인어에는 각국의 교양계층의 말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표준 규범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제기되어온 언어의 순수성을 고집하거나 언어적 독립을 주장하는 극단적인 입장과는 다른, 언어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지고 아르헨티나 스페인어를 하층 계급의 말과 교양계층의 말로 구분하여 후자를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표준규범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언어 인식은 현재까지도 일반 언중들에게 영향을 미쳐 최근에 이루어진 아르헨티나인의 언어태도에 대한 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카를로스 솔레(Solé, 1992)에 따르면, 1982년에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양계층을 상대로 실시한 언어 태도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스페인어가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여, 스페인 한림원의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문화 및 전통, 언어, 종교를 들고 있으며 이 중 문화 및 전통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51%), 다음으로 언어(44%) 그리고 종교라고 응답한 사람은 5%에 불과했다. 이는 언어와 문화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며, 문화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르헨티나인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스페인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교양계층의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 요인이 나타난다. 첫째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스페인어가 ‘좋은 스페인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페인 한림원의 규범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이를 아르헨티나의 표준어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둘째 자신들의 스페인어의 특징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의미와 어휘를 들고 있고, 셋째 자신들의 언어규범이 스페인의 한림원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한림원에 의해 국민들의 언어현실에 맞춰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하고 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스페인어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zeísmo*<sup>8)</sup>나 *voseo*의 사용과 관

런해서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보다 더 차별적인 언어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 V. 맺는 말

지금까지 본 것처럼 아르헨티나 대부분의 역사적 단계마다 국가의 정체성 확립이 항상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곧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인 언어문제로 이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서로 상반되는 언어 민족주의적인 이념이 생겨났다. 하나는 스페인 규범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독립을 완성하기 위해 언어적 독립을 주장한 낭만주의 계열의 지식인들과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된 이후에 형성된 사회 중간세력의 언어 민족주의가 그것이다. 이들은 보수적인 언어 순수주의자들에 맞서 아르헨티나의 독자적인 언어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언어를 통한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공통적인 면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움직이게 한 언어 인식에는 차이가 있어, 전자는 대규모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파생된 사회 변혁의 과정에서 스페인적인 전통의 복원을 통해 국가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고, 따라서 스페인어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곧 스페인 전통에 기반을 둔 정체성의 유지를 가능케 한다고 믿었다. 반면에 언어적 독립을 주장한 후자는 새로이 형성된 사회에서는 스페인어와는 다른 자신들 특유의 언어규범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 언어적 독자성을 제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이전의 스페인 규범의 순수성의 주장이나 언어적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가라앉긴 했으나, 새롭게 탄생한 이민자들로 구성된 사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스페

8) zeísmo란 스페인어 철자 y나 ll를 스페인어권의 일반적인 발음인 [y]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의 [dʒ]처럼 하는 음성현상을 말한다.

언어와 다른 별개의 언어가 아닌 아르헨티나적인 특성이 배어있는 스페인어를 표준규범으로 하는 독자적인 언어규범의 추구로 나타나고 있다.

## Abstract

En la Argentina, la búsqueda de la identidad nacional es un rasgo que ha caracterizado a la mayoría de las etapas de la historia. Esta búsqueda de una definición de su identidad siempre se ha entroncado con la cuestión idiomática, ya que la lengua es un marcador relevante de identidad.

En los momentos inmediatos a la emancipación, la posición de América Latina en materia idiomática es atenerse a la norma peninsular con una actitud casticista, lo cual está en conflicto con su ideal político emancipador.

Pero la generación romántica del 37, imbuida por las primicias del nacionalismo lingüístico, realiza crítica y revaloración del pasado inmediato en su búsqueda de lograr la identidad nacional. La lengua es identificada entonces con la nación española, con la que se ha roto el vínculo político de pertenencia y por ello es rechazada. Algunos románticos, adhriendo a los principios de soberanía popular y emancipación lingüística, intenta crear una lengua nacional distinta del español.

Frente a los procesos de cambio generados por el aluvión inmigratorio que empiezan desde fines del siglo XIX, surgen dos corrientes opuestas de nacionalismo: nacionalismo hispanista y nacionalismo del grupo criollo-inmigratorio. En lo que se refiere a la materia lingüística, ambas corrientes muestran las diferencias en la variedad lingüística a la que dirigen sus valoraciones positivas que es, en el primer caso, la norma

peninsular y en el otro, la variedad nacional. Estos dos corrientes nacionalistas comparten la búsqueda de la identidad nacional a través de la lengua, realizando sobrevaloración del idioma como marcador de identidad. Sin embargo, mueve al primero el móvil de la revitalización de los valores y tradiciones hispánicos; por ello la conservación de la lengua implica la conservación de la identidad nacional tradicional de raíces hispánicas. En el caso del nacionalismo criollo-inmigratorio, la variedad lingüística propia distinta de la norma española, los conduce a proclamar la independencia lingüística, la ruptura de la unidad idiomática como modo de afirmar el nuevo identidad nacional nacido en las nuevas clases criollo-inmigratorias.

A partir de 1920, empiezan a aparecer algunas manifestaciones de una posición eclética frente al problema lingüístico, y postulan la existencia de un matiz regional, de una modalidad argentina dentro de la lengua española, reconociendo la existencia de rasgos peculiares y propios del español en la Argentina.

Key Words: Español, Nacionalismo Lingüístico, Emancipación Lingüística, Identidad, Norma, Argentina, Romanticismo / 스페인어, 언어 민족주의, 언어독립, 정체성, 언어규범, 아르헨티나, 낭만주의

논문투고일자: 2003년 10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3년 11월 14일

- 김우성(1997), 「중남미 국가들의 독립과 중남미 스페인어: 새로운 언어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서어서문연구, No. 11, pp. 3-18.
- Alberdi, Juan Bautista(1955), *Fragmento Preliminar al Estudio del Derecho*, Buenos Aires: Hachette.
- Barbero, María Inés y Fernando Devoto(1983), *Los nacionalistas*, Buenos Aires: Centro Editor de América Latina.
- Bello, Andrés(1984),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Madrid: Colección EDAF Universitaria.
- Blanco de Madero, Mercedes Isabel(1991), *Lenguaje e identidad. Actitudes lingüísticas en la Argentina. 1800-1960*, Bahía Blanca: Gabinete de Estudios Lingüísticos, Departamento de Humanidades, Universidad Nacional de Bahía Blanca.
- Borges, Jorge Luis(1994), *El idioma de los argentinos*, Buenos Aires: Seix Barral.
- Echeverría, Esteban(1958), *Dogma socialista de la Asociación de Mayo*, Buenos Aires: Perrot.
- Fishman, Joshua(1972), *Language and Nationalism*, Massachusetts: Newbury House.
- Fontanella de Weinberg, María Beatriz(1988), “Cuatrocientos años del español bonaerense. Un esbozo de su evolución histórica”, *Actas del VI Congreso Internacional de la Asociación de Lingüística y Filología de la América Latina*, México: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pp. 61-94.
- Guitarte, Guillermo L.(1991), “Del español de España al español de veinte naciones: La integración de América al concepto de lengua española”, en *El español de América. Actas del III Congreso Internacional del Español de América*, Valladolid:

- Junta de Castilla y León, pp. 65-86.
- Marcellesi, Jean y B. Gardin(1979), *Intrducción a la sociolingüística*, Madrid: Gredos.
- Rojas, Ricardo(1924), *Eurindia*, Buenos Aires: Librería de La Facultad.
- Rosenblat, Ángel(1984), *Estudios dedicados a la Argentina*, Caracas: Monte Ávila Latinoamericana C. A.
- Rossi, Vicente(1928), *Idioma nacional rioplatense*, Río de la Plata: Imprenta y Encuadernación Popular.
- Sábato, Ernesto(1968), *Itinerario*, Buenos Aires: Sur.
- Sarmiento Domingo F.(1889-1909), *Obras Completas*, Santiago de Chile /Buenos Aires/París: Imprenta de Berlín Sarmiento.
- Simpson, David(1986), *The politics of American English*,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olberg, Carl(1970), *Inmigration and nationalism, Argentina and Chile(1890-1914)*, Austin: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University of Texas Press.
- Solé, Carlos A.(1992), “Actitudes lingüísticas del bonarense culto”, en Elizabeth Luna Trail(ed.), *Scripta Philologica in honorem Juan M. Lope Blanch*, México: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pp. 773-822.
- Zea, Leopoldo(1986), *América Latina en sus ideas*, México: Siglo XXI.
- Zum Felde, Alberto(1943), *El problema de la cultura americana*, Buenos Aires: Lautaro.

< >  
\*

김용호(서울대)\*\*

I.  
 II. 1970  
 III. :□ □ □ □  
 IV. < > :□ □ □ □  
 V.

## I. 서론

내 생각에 비평은 일종의 근대적 형태의 자서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평가는 그의 독서행위를 기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의 인생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 비평가는 그가 읽은 텍스트의 내면에 그의 삶을 재구성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비평은 프로이트 이후의 일종의 자서전인 것입니다. 이데올로기를 갖고있는 이론적.정치적.문화적 자서전 말입니다. 내가 비평을 자서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비평이 명확한 장소와 구체적인 상황에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Piglia, 2000a: 13).

예술은 항상 동일한 예술일 뿐이다. 따라서 새로운 예술이란 있을 수 없다. 오직 새로운 예술가들이 있을 뿐이며 ... 오직 예술작품이 있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KRF 2002-072-AL2010).

\*\* Yong-Ho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Los aspectos de la resistencia y de los recuerdos de <la guerra sucia> argentina".

을 뿐이다. 이 스케치는 살아 있는 그 자체이며 ... 새 예술가는 필히 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그 자신이어야만 한다. 그는 창조자이어야만 하고 과거의 어떤 전통도 받아들임 없이 전적으로 홀로 기초를 세워야만 한다(김광우, 2003: 318).

19세기말부터 로사스(Rosas) 등 수많은 독재자와 군부쿠데타의 고통이 끊이지 않던 아르헨티나 정치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최근의 기억은 아마도 <더러운 전쟁>에 대한 기억일 것이다. 1976년에서 83년 사이에 자행된 이 추악한 행위에 대해 군부 통치자들은 <국가 재건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더러운 전쟁>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큰 차이를 형성한다. <국가 재건 과정>과 <더러운 전쟁>이라는 용어의 차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선택되는 기억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선택적 기억들이 거의 그러하듯, 어떤 기억들이 그 시대의 맥락에서 벗어나 특권화하는 과정에는 언제나 현실의 특수한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게 마련이다. 약 2만 명에 이르는 실종자 숫자와 200만 명에 이르는 망명자 숫자, 그리고 영.유아 탈취라는 희대의 범죄행위까지 자행한 잔혹한 군부의 장막 뒤에는 오늘 아르헨티나의 특권정당의 하나인 페론당과 그 지도자들의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과거가 놓여있으며, 지나간 시대를 기억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아르헨티나 일반 민중들의 자기책임 또한 빠져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시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가해자들은 만성적인 정치적.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매주 목요일 광장집회를 통해 책임자 규명 및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가해자가 없는 사회 아니 가해자는 있되 가해의식은 없는 사회, 그렇기에 오직 피해의식으로만 뭉친 사람들이 집단을 이뤄 증오로 대립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사회는 불행한 사회인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더러운 전쟁> 시기의 문학과 그를 기억하는 문학들에 대한 재조명은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문화정체성 형성에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과거사에 대한 망각과 식상함을 극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자신들에 대한 성찰을 심어주는 것만

이 새로운 비극의 탄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비나스(Las Malvinas) 전쟁 패배의 책임을 지고 군부가 퇴장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아르헨티나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알폰신(Raúl Alfonsín) 정권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은 실패했으며, 메넴의 신자유주의 정책 또한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했기에 아르헨티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만 한다. 그런데 세계는 점점 더 보수화와 우익화의 길로 나아가며, 이로 인해 테러리즘과 바바리즘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기에, 아르헨티나의 비극은 재현될 수도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독립을 선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833년부터 시작된 아르헨티나의 술한 독재의 역사와 1930년, 43년, 55년, 62년, 76년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된 군부쿠데타 역사를 돌이켜본다면 그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그러므로 지나간 비극적 시대에 대한 기억과 재조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역사에서 배운 과거의 경험을 성찰한 뒤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세워야만 반복되는 역사의 비극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II. 1970년 이후 아르헨티나의 역사적 상황과 문학적 양상

독재정치는 억압을 조장하고, 노예근성을 조장하며, 잔혹함을 조장한다. 그러나 더욱 고약한 것은 독재정치가 어리석음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말을 못하게 강압적인 싹들, 총통의 화신들, 미리 정해진 삶과 죽음들, 선전문구들로 장식된 벽들, 일사불란한 의식들, 단순한 규율들이 광휘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렇게 슬프도록 단조로운 것들과 싸우는 것이 작가의 많은 의무들 중의 하나이다(Orgambide, 1999: 276-277).

30년 뒤에 본인이 어떤 일을 하게될지 모른 채 친구들과 나눴던 보르헤스(Borges)의 말로써 이 글을 시작하는 것은 삶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보르헤스는 페론 정권의 진보적 정책에 반대하여 이 말을 했지만, 정작 본인은 1976년 군사정권의 독재정치를 옹호하는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1973년 선거에서 보수 반동

적인 정당인 ‘새로운 힘’(Nueva Fuerza)에 투표했던 보르헤스에게 비델라(Jorge Rafael Videla)를 필두로 한 군부의 쿠데타는 카톨릭의 도덕적 가치와 서구적 삶의 방식을 수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적극 지지할 만한 것이었다. 그에겐 군사정권의 학살행위도 동료문인들의 납치 및 행방불명도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기에,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자처하며 전 세계를 여행하고 수많은 강연회를 통해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다녔다.

내 생각에 독재정치는 비난받을만한 것이 못됩니다. 전쟁도 비난받을만한 것이 못돼구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야만 하거든요(Orgambide, 1999: 324).

독재정치는 억압과 노예근성과 잔혹함 그리고 어리석음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이 작가의 의무라고 주장했던 보르헤스가 30년 뒤에 전 세계를 여행하며 독재정치를 옹호할 정도로, 페론과 페론주의는 아르헨티나의 복잡한 사회.문화.정치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Corbatta, 1999: 15). 부르주아 계층의 사람들에게 그는 국가주의에 빠진 파시스트 독재자로 간주되며 하층민들에겐 포퓰리즘적인 진보주의자로 여겨진다. 1930년과 43년 등 거듭된 군부의 극우 철권통치<sup>1)</sup>에 신임하던 일부 지식인들과 노동자 계층이 또 다른 군출신인 페론에게서 역사의 희망을 발견했다는 것은 아르헨티나 역사의 아이러니다. 1945년 10월 17일 처음 정권을 획득해 10년 동안 권좌에 있었던 그는 재임기간 중 수많은 노동자우대 정책을 폈고, 이는 보수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55년 군부의 쿠데타에 의해 실각하고 망명길에 오르게 된다.

이러한 좌파적 모습의 페론은 가르델(Gardel).체게바라(Che Guevara) 등과 함께 아르헨티나의 중요한 신화소를 구성하며, 극우적인 군부의 철권통치를 극복할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아

1) 아르헨티나 군부는 1930년부터 1943년, 55년, 62년, 66년, 76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세력중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르헨티나엔 이미 68년부터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다섯 개의 무장단체2)가 존재했는데 점차 카톨릭에서 출발한 무장혁명단체인 몬토네로스3)와 고전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민중 혁명군 양대 세력으로 재편되게 된다. 하지만 군부에 저항하는 그들의 목표에는 차이가 없었기에, 73년 선거에서 연합전선을 펴게 되며, 그 결과 65%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를 거둬 페론을 권좌에 복귀시킨다(Jordán, 1993: 15). 국가주의적인 몬토네로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불안한 동거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지만 늙고 병든 페론과 이사벨은 갈등을 조정할 능력도 정치적 비전도 지니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페론주의를 혁명에 도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간주했던 민중혁명군이나, 국가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했던 몬토네로스 양자 모두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협 등 정치적 수단보다는 암살.납치.방화 등 폭력적인 수단에 의존하며, 이로 인해 74년 6월부터 이듬해인 75년 말까지 양측에 의해 희생된 숫자가 약 1,500명에 이르게 되며 (Corbatta, 1999: 21), 이러한 부정부적인 상태는 다시 아르헨티나 정치의 단골이었던 군부의 개입을 부르게 된다.

55년부터 83년까지 약 30년 동안 모두 여덟 차례의 군부 쿠데타가 발생할 정도로 정치적 혼란이 극심했지만, 그 중에서도 호르헤 비델라를 필두로 한 1976년 3월 24일의 쿠데타 세력의 통치는 매우 잔혹하고 억압적이기로 유명하다. 군사정권은 만성적인 정치적 위기와 ‘아르헨티나 병’이라고까지 불리던 반복적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재건 과정>(Proceso de Reorganización Nacional)을 내세웠고, 이를 위해 자신들의 정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납치.고문.살해하거나 실종자로 만들었다. 군사정권과 다른 생각을 갖고있는 노동계급과 청년층을 탄압하기 위해 그들은 군대.경찰.정보기관 등 공식적인 국가기관을 총동원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2) 다섯 개의 무장조직은 혁명군(FAR).페론주의 군대(FAP).해방군(FAL).몬토네로스(Montoneros).민중 혁명군(ERP)을 일컫는다.

3) 몬토네로스는 70년대 페론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좌익무장단체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상 그 출발은 우익 카톨릭 집단을 기반으로 한다. 그렇기에 그들에게선 반제국주의적 사회정의실현과 함께 국가주의적인 색채도 강하게 나타난다.

아르헨티나 반공 동맹(*Alianza Anticomunista Argentina*)으로 대표되는 극우 무장 세력들까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였다. 탄압 대상과 형태도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어, 활동가 본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납치·고문·구타·암살·폭탄 테러·재산 강탈 등의 범죄행위들이 끊임없이 자행되었으며, 심지어는 영·유아 탈취라는 희대의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 시기 실종된 숫자만도 최소한 약 20,000 명에 이르게 된 것이다.<sup>4)</sup>

프란시네 마시예요(*Francine Masiello*)는 이 시기 독재정권의 정치적 전략을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그것은 민중들이 검열·감시·무차별 테러에 대한 절대적 공포를 느끼도록 해 외부의 일에 침묵하도록 만드는 것과, 월드컵·포클랜드 전쟁 등 대외적인 사건을 통해 국내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 아니 더 나아가 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파했다(*Masiello, 1988: 11-29*). 군사정권과 다른 생각을 갖는다는 것만으로도 범죄행위에 해당했으며, 이는 어떠한 회생을 치러서라도 치유해야만 될 사회적 병으로 간주됐다.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 민중들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어두운 사회, 감옥 같은 사회에서 살게 됐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선 망명길에 오르는 수 밖에 없었다. 옛날엔 가장 큰 형벌로 간주되던 망명 즉 유배생활을 스스로 택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태어난 고향을 버리고 떠난 사람만 자그마치 200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Corbatta, 1999: 28*).

공포를 통해 강요된 침묵은 모든 아르헨티나 민중들을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특히 지식인들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다. 우리들의 뇌에는 부러진 연필과 굉장히 큰 지우개밖에 없다는 마리아 엘레나 왈쉬(*María Elena Walsh*)의 79년도 언급은 거의 절규에 가깝다(*Avellaneda, 1986: 48*). 공포는 침묵을 낳았고, 침묵은 공범처럼 여겨졌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망명길에 올랐으며, 이 길에 안토니오 디 베네데토(*Antonio Di Benedetto*), 마누엘 푸익(*Manuel Puig*), 후안 호세 사에르(*Juan Jose Saer*), 다니엘 모야노(*Daniel Moyano*), 움베르토 콘

4) 실종자 가족들의 모임인 오월광장 어머니회(*Asociación Madres de Plaza de Mayo*)의 주장에 따르면 실종자수는 약 30,000-45,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스탄티니(Humberto Constantini), 다빗 비냐스(David Viñas), 뎀포 지아르디넬리(Mempo Giardileli), 노에 지트릭(Noé Jitrik), 루이사 발렌수엘라(Luisa Valenzuela), 오스발도 소리아노(Osvaldo Soriano) 등 많은 문인들이 동참하였다.

이들 문인들은 해외에서 그들의 유일한 무기인 언어로써(Valenzuela, 1983: 7) 군사정권의 폭압과 아르헨티나 민중들의 고통을 서술하고 분석, 평가하면서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에 저항하게 된다. 그것만이 그들이 고향을 등진 유일한 이유였기에, 소리아노는 □더 이상 고통도 망각도 없을 것이다□(*No habrá más penas ni olvido*, 1978)와 □겨울의 병영□(*Cuarteles de invierno*, 1980)을 발표하고, 발렌수엘라는 □전쟁에서처럼□(*Como en la guerra*, 1977), □무기의 교체□(*Cambio de armas*, 1982), □도마뱀 꼬리□(*Cola de lagartija*, 1983) 등의 작품을 연속해서 발표하며, 푸익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사건□(*The Buenos Aires Affair*, 1977), □천사의 음부□(*Pubis angelical*, 1979), □이 책을 읽는 자에게 영원한 저주 있으라□(*Maldición eterna a quien lea estas paginas*, 1980) 등을 통해 군사정권의 압정을 고발하며, 사에르는 □아무도, 아무 것도, 결코 없었다□(*Nadie, nada, nunca*, 1980)와 □진짜 레몬 장수□(*El limonero real*, 1983)같은 작품들을 연속해서 발표하는 것이다. 이들 작품들 속에서 작가들은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감옥이나 겨울의 병영, 정신병원 등에 비유하며, 민중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수용되거나, 병도 없이 병원에 입원해 강제로 수술을 받는 환자들로 비유된다. 군사정권이 국가 재건을 위한 더러운 전쟁의 수행 명분으로 아르헨티나의 심각한 병을 내세운 것을 빗대고 있는 것이다. 병에 걸리지 않은 환자 아닌 환자를 수술하는 무자격 의사, 그리고 그 잘못된 수술로 인해 진짜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는 이상한 환자의 상황이 작가들이 인식하는 아르헨티나의 상황인 것이다.

작가들이 이러한 어두운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는 이러한 상황을 결코 망각하지 말자는 자기다짐이며,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맹세인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의 기록은 <더러운 전쟁>이 종식되고 83년 민정이 수립된 후에도 멈추지 않는다. 발렌수엘라의 □침대

에서 바라본 국가의 현실□(*Realidad nacional desde la cama*, 1991), □균형□(*Simetrías*, 1993)이나, 푸익의 □열대의 밤이 질 때□(*Cae la noche tropical*, 1988) 그리고 사에르의 □주석□(*Glosa*, 1986), □강변없는 강□(*El río sin orillas*, 1991), □지울 수 없는 것□(*Lo imborrable*, 1993), □수색□(*Pesquisa*, 1994)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미래의 역사에서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군부독재가 오게 된 원인에 대한 고찰이 필수 불가결하다. 역사가 사실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면 문학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망제시를 위해선 과거에 대한 성찰과 그 원인에 대한 고찰이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에서 테러의 만행이 자행된 것은 <더러운 전쟁>기만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전의 페론의 3차 집권기에도 이러한 만행이 자행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앞에서 언급한 작가들 대부분이 1976년 이전부터 이 문제를 천착해 오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발렌수엘라의 □이곳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Aquí pasan cosas raras*, 1975)나 푸익의 □거미여인의 키스□(*El beso de la mujer araña*, 1976)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거미여인의 키스□의 몰리나와 발렌틴이 감옥에 수용되어 사랑을 이루어 가는 배경은 페론의 3차 집권기인 것이다. 또한 <더러운 전쟁>기에 발표된 소설이라 할지라도 그 배경은 페론 정부하의 아르헨티나의 사회, 정치 상황인 경우도 많다. 발렌수엘라의 소설 □전쟁에서처럼□이나 푸익의 □천사의 음부□ 등도 배경은 페론 치하이다. 아르헨티나의 군부독재와 더러운 전쟁의 원인이 페론주의의 환상과 신화에서 비롯됐다고 인식하는 작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늙고 병든 페론과 그의 부인 이사벨은 집권기간 내내 아르헨티나를 통치할 어떠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페론을 지지하기 위해 결집했던 각 정파들의 분열과 정치적 투쟁, 그리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동원했던 테러 행위들이 군부의 정치개입을 불러들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작가들이 페론의 3차 집권기에 주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페론 신화는 자연스럽게 예비타에게까지 이어진다.

토마스 엘로이 마르티네스(Tomás Eloy Martínez)는 □성녀 에비타□(Santa Evita, 1995)와 □페론에 대한 소설□(La novela de Perón, 1996) 등을 통해 페론주의와 그 신화를 직접적으로 재조명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작가이다.

그러나 이 시기 모든 작가들이 망명이라는 수단을 택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아르헨티나에 잔류해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작가들도 있었다. 1977년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Carta a mis amigos*)를 마지막으로 군사정권에 의해 실종된 로돌포 왈쉬(Rodolfo Walsh)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화자의 딸인 비키의 저항과 최후의 모습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내용으로 쓰여진 이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 비키(Vicki)의 입을 빌어 “군사정권, 당신들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했다”(2000: 282)고 외친다. 이렇듯 국내에 남아 정권을 직접 고발하는 글을 쓴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었다. “파시스트의 나라, 좀비의 나라에서 독재에 대한 모든 저항은 망명지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Sarlo, 1988: 101). 그렇기에 망명 작가들이 페론주의와 군사정권의 잔학상을 직접적으로 고발하면서 그들의 분노와 향수를 달래는데 반해, 아르헨티나에 남아서 저항하던 작가들의 작품은 수많은 상징과 언어의 이중성에 기대는 등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띤다. 리카르도 피글리아(Ricardo Piglia), 아나 마리아 슈아(Ana María Shua) 등이 그들로, 그들은 친구들이 허겁지겁 망명길에 오르는 것을 바라보거나 수많은 사람들의 실종소식을 들으면서 또는 산마르틴 광장에서 벌어진 학살소식을 접하면서도, 큰 소리로 외치거나 따져보지도 못한 채 묵묵히 울분을 삼키고 참아내야만 하는 작가들이었다. 베아트리스 사를로의 말에 의하면 이런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망명길에 동참하지 못한 이유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를 버리고 살아 가야하는 뿌리뽑힌 삶에 대한 두려움 단 한가지 때문이었다(Sarlo, 1988: 104). 그러나 망명을 택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권력의 만행과 검열이라는 이중고를 견뎌내야만 했다. 군사정권은 그들을 항상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으며, 불신의 사회에 살게 만

들었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게 하는 힘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다. 리카르도 피글리아가 후에 □비평과 허구□(*Crítica y ficción*)에서 밝힌 역사에 대한 언술은 음미해 볼 만하다.

아무 것도 변화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모든 출구가 봉쇄되어 현재의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지만, 다른 비슷한 상황들이 새로운 출구를 발견함으로써 종식되었음을 역사는 가르쳐준다고 마기는 말했다(Piglia, 2000a: 39).

검열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 작가들이 선택한 수단은 독특한 공간의 창출과 상상력의 교차 및 중첩 그리고 현재의 메타포로서 역사를 선택하는 것 등이었다. 언어의 다성적 특징을 살려 대화적 긴장을 창출하고, 장르의 교차 및 혼성을 시도하는 등 전통적인 리얼리즘 문학과는 다른 새로운 문학을 생성하는 길만이 그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현재의 메타포로서 과거의 역사를 선택한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피글리아의 □인공호흡□(*Respiración artificial*, 1980)이다. 19세기 로사스(Rosas)의 공포정치 아래서 망명하지 않았던 펠릭스 프리아스(Félix Frías), 엔리께 라푸엔테(Enrique Lafuente) 등의 이야기와 히틀러와 카프카의 만남이라는 환상적 이야기를 중첩시키는 방법으로 <더러운 전쟁>기의 아르헨티나 군부를 홀로코스트로 대변되는 나치정권 및 로사스와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의 군부를 로사스에 빗대 “살인자의 아들이요 손자요 증손자”(Piglia, 2000b: 39)라고 묘사한 부분은 가히 압권이라 할 만하다.

아나 마리아 슈아의 □나는 환자다□(*Soy paciente*, 1980)는 언어의 이중성에 기대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마리오 세사레오(Mario Cesáreo)는 <더러운 전쟁>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에서 출판된 대부분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사람의 몸은 항상 무엇인가 병에 걸려있으며, 작품은 그 치료법 즉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는 탐정구조로 되어있다고 분석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아나 마리아 슈아의 작품이다. 스페인어 *paciente*는 <환자>라는 의미와 <참을성이 있

는>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있는데, <환자>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아르헨티나가 병에 걸려있다는 의미가 되어 군부의 의도에 순응하는 듯이 보이지만, <참을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역으로 군사정권의 압제를 인내로써 저항하면서 미래를 기다린다는 저항의 문학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을 과거의 역사와 비유하면서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과거의 독재정권이 비참하게 몰락했던 경험을 기억하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간직한 채 인내로써 현재의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남아있는 자들의 전략이었다. 그렇기에 그들의 작품은 역사소설의 기법을 떠나거나, 원인을 찾아나가는 탐정소설의 기법을 자주 사용하고, 언어의 이중성을 통해 검열을 피하면서, 군부정권이 강요하는 신화의 허상들을 밝혀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군사정권에 저항하던 문학과 그 이후 <더러운 전쟁>을 기억하는 문학들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봤으며, 다음 장에선 그중 대표적인 작품 하나씩을 골라 조금 자세하게 분석해 보려고 한다. 푸익의 □천사의 음부□는 망명작가를 대표해서 골랐으며, 피글리아의 □인공호흡□은 국내에서 저항한 작가의 작품을 대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로이 마르티네스의 □산타 에비타□와 호르헤 마론나(Jorge Maronna)페세티(Luis Maria Pescetti)가 공동으로 집필한 □카피라이트□(Copyright)는 군사정부가 패퇴한 뒤의 작품경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 III.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들: □천사의 음부□와 □인공호흡□을 중심으로

1979년에 발표된 푸익의 다섯 번째 소설 □천사의 음부□는 망명작가들의 작품형태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다른 많은 작품들처럼 이 작품의 공간도 밀폐된 공간의 전형인 멕시코의 한 병원이다. 이미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거미여인의 키스□의 배경이 밀폐된 감옥이었다면, 이 소설의 배경은 또 다른 밀폐된 공간인 멕시코의

한 병원이다. 주인공인 아니타(Anita)는 암으로 멕시코의 한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페미니스트이자 변호사인 멕시코 친구 베아트리스(Beatriz)와 망명 전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애인이었던 좌익 페론주의자요 인권변호사인 포지(Pozzi)의 방문을 받는데, 그는 아니타의 약혼자였던 우익 페론주의자이자 갑부인 알레한드로(Alejandro)를 납치하고자 아니타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렇듯 전형적인 밀폐된 공간과 환자인 주인공,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변인물들과의 대화를 통해 1975년 페론 정부하의 아르헨티나의 사회·정치 상황을 재구성한다.

이 작품엔 2가지 층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주로 주간에 이루어지는 베아트리스, 포지와 의 대화를 통해 아니타의 의식과 과거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주는 외면적인 이야기 층위와 야간에 꾸는 꿈을 통해 그녀의 욕망과 무의식적 불안을 표현하고 있는 내면적인 층위가 그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강요하는 남성 우월적인 성문화와 역할에 대한 비판은 양쪽의 층위에 공히 존재하는 요소이다. 푸익에 의하면 페론주의는 권력과 폭력에 경도된 남성우월주의 문화의 한 형태로 독일의 나치즘과 동일한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남자들의 세상이 축구, 권투, 사냥과 같은 세상이라면 /.../ 사실 그들 세계는 모든 종류의 전쟁과 폭력으로 가득 찬 실세계와 흡사하다. /.../ 전쟁과 국가간의 히스테리적인 공격, 약자들을 수탈하는 세상이다. 그것은 그들이 통치자이기 때문이다. **술취한 채 귀가해서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히스테릭한 남편과 히틀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그건 똑같은 것이다**(Puig, 1979: 230-231)(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이런 남성우월주의 문화는 미래사회가 도래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은 항상 남성우월주의자인 남성들에 의해 배신당하고 이용당할 것이다. 아니타는 밤 동안에 꿈을 꾸는데, 그녀의 꿈에는 1930년대의 <여주인>과 북극시대에 살고 있는 <W218>이라는 한 젊은 여자가 등장한다. <W218>은 노인과 불구자 및 기형아들에게 2년 동안 섹스치료를 하는 의무병으로 근무하고, 그녀의 삶은 중앙전자

시스템에 연결된 휴대용 컴퓨터에 의해 지배된다. 2년간 개인적인 성관계가 금지된 미래 전체주의 국가에서 그녀는 자신보다 나은 멋지고 지적이며 이해심 많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남자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LKJS>를 만나 그가 그녀의 이상형이라 믿으며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생각과는 달리 그녀의 사랑을 이용하려는 남성우월주의자였을 뿐이다. 그녀는 21번째 생일을 맞던 날 저녁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이상한 능력을 지녔음을 깨닫는다. 독신자 방에서 애인인 <LKJS>를 만나는 동안 그녀는 그녀의 이상한 능력 때문에 그 남자가 남성우월주의자이며, 그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한다. 이로 인해 그녀는 그를 살해하려고 시도하며, 남자들만으로 구성된 재판에서 <영원한 얼음병원>에서 성을 제공하도록 선고받는다. 그런데 사실은 남성우월주의를 강요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남성들 또한 이러한 사회의 피해자이라는 것이 푸익의 생각이다. 유형지로 떠나는 기차역에서 만난 <LKJS>의 참회의 흐느낌과 이에 대한 <W218>의 위로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몹시 괴롭습니다. 그리고 전에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욱 괴롭습니다. 내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 누구 위에 군림하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나쁜 짓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도 착취하고 싶지 않고, 그 누구보다 잘난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내게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가르쳐 준 것들입니다.

/.../

당신을 탓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는 우리보다 더 힘센 상급기관의 장난감에 불과했어요(Puig, 1979: 254-255)(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남성우월주의 문화에 대한 비판은 아르헨티나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등장한 인물들인 포지와 알레한드로에 대한 묘사에서도 드러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남성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들이다. 극우 페론주의자요 갑부인 알레한드로는 “거짓말도 사실로 바꿀 수 있는 권력층에 있는”(104) 인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도청, 가택수색, 부당 해고 및 협박 등을 수시로 해대는 인물이다. 당시의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권력을 담당한 군부가 저지른 모든 잔혹한 행위들의 이미지가 그에게 덧씌워져 있는 것이다. 좌익 인권변호사인 포지에 대한 묘사에서도 목적을 위해서는 탈법적인 수단마저 불사하지 않는 남성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그는 알레한드로를 납치하기 위해 아니타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에서 멕시코까지 여행한다. 그녀의 사랑을 이용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고, 이로 인해 그녀는 또 한번 배신감을 느낀다. 언뜻 보기엔 인권변호사로서 정치범들을 변호하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긍정적인 인물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이데올로기조차 공유하지 않는 한 순진한 여성의 사랑을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모습 또한 갖고있는 것이다. 목적을 위해서는 “검은 것을 흰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는(38)” 유능한 변호사이며, 자신이 속한 단체의 부정적인 모습에는 “정치는 유토피아적 환상이 아니라(118)”는 이유로 합리화한다. 그렇기에 폭력적인 납치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으며, 무장한 게릴라로서 활동하다 죽을 수 있는 것이다.5)

5) 무장한 게릴라로 죽은 부분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그가 무장하고 경찰에 대항했다는 내용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를 그대로 옮겨 실은 신문보도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아니타도 그가 정말로 무장해서 저항하다 죽었는지, 아니면 단지 정치범들을 변호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난... 그가 무장하고 있었고... 그래서 죽었다는 사실만 알아도 괜찮을 것 같아. 정말로 그랬다면... 죽어도 마땅하니까... 하지만 만약 그들이 그가 젊었고... 정치범들을 변호했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면... 남 미칠 것만 같아(294).

이러한 모호한 태도는 이미 전작인 □거미여인의 키스□에서도 드러난다. □거미여인의 키스□에서 몰리나의 죽음도 극좌파에 의해 사살된 것이라고 묘사되지만 이 또한 정부의 감시기관인 CISEL이 관계기관에 배포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 난 결코 자유사회주의의 뿌리를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난 거만한 전체주의를 혐오하는 거야.
- 그럼 폭력은요?
- 폭력 역시 혐오해. 폭력을 혐오했기 때문에 페론주의로 다가가기 시작했던 거라구.
- 하지만 당신은 내가 알레한드로 납치에 개입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폭력이 아닌가요?
- 그건 구체적 상황 속에서의 구체적 폭력이야.
- 포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난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 일상생활과 마찬가지로 정치도 유토피아적 환상이 아니라, 현실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는 거야. 비록 우리가 폭력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가끔 현실은 그런 폭력을 수용하도록 강요하지(Puig, 1979: 118)(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아르헨티나의 군부독재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가 당시의 군부정권 뿐만 아니라 페론주의를 고발한 것은 아르헨티나의 비극의 원인이 바로 좌파와 페론주의 잘못된 결합에 기인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Roffé, 1985: 136).

이듬해인 1980년에 출판된 피글리아의 □인공호흡□은 아르헨티나에 남아 군부정권의 검열을 견디면서도 그들이 강요하는 신화의 허상들을 밝혀내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중의 하나이다. 군부가 정권을 잡은 뒤 많은 지식인들이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지만 이는 아르헨티나 내에서는 결코 대답할 수 없는 상처요 고통이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탐정소설과 역사소설의 형태를 배합해 만들어 낸 피글리아의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정치적 탄압을 교묘히 극복한 저항문학의 교본처럼 여겨진다.

이 작품에도 역시 두 개의 이야기 층위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로사스의 몰락 직전에 자살한 엔리케 오소리오(Enrique Ossorio)에 관한 이야기이며, 또 다른 하나는 오소리오의 죽음에 얽힌 수수께끼를 풀려고 노력하는 마르셀로 마기(Marcelo Maggi)에 관한 이야기이다. 소설은 군사정권이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인 1976년 4월 작중화자인 에밀리오 렌지(Emilio Renzi)가 첫 소설을 출판한 후 삼촌인 마기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한다. 마기는 76년 당시 콩코르디아 지방

의 역사선생으로 1943년 저지르지 않은 범죄행위로 인해 감옥에 갇힌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1943년은 또 다른 군부쿠데타인 라우손(Rawson)의 쿠데타가 일어났던 해로 그는 급진주의자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며, 풀려나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떠나야만 했던 인물이다. 군부의 억압을 가까이서 살펴보려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서는 절망한 채 고향을 등져야만 했던 마기는 부인인 에스페란사(Esperanza)의 증조부인 오소리오의 죽음에 얽힌 비밀에 의문점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오소리오의 아르헨티나 독립전쟁 영웅의 아들로 1837년 로사스의 개인비서가 되어 그의 총애를 받았지만 후에 라바예(Lavalle)를 위해 스파이 행위를 했던 인물이다. 이렇듯 이 작품에선 아르헨티나의 역사를 형성하고 있는 핵심 축들인 1830년대 로사스의 독재정치, 1943년 라우손의 쿠데타, 45년 페론의 1차 집권기에 겪었던 한 가족의 비극의 역사가 1976년 현재의 역사와 중첩되어 등장한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소설의 전형적인 형태인 가족사안에 사회사를 포함하는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사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끊임없는 수난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이래 이놈의 집구석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태어나고 죽고, 그리고 군인들 열병식만이 있었지(Piglia, 2000b: 15).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이래 아르헨티나엔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은 채 단지 수많은 군부 쿠데타의 전시장이 되어버렸다는 피글리아의 언급은 절규에 가깝다. 하지만 그러한 절규는 현재의 군사정권을 과거의 독재자와 동일시하는 효과도 거둔다.

상원의원이 말하기를 <난 그 사람에게 말했어, 폭풍우는 지나가야만 한다고. 왔던 것처럼 멀리 갈 거라고 말했어. 난 이 사람들을 잘 안다고 말했어. 이 사람들은 머물려고 왔어. 이 사람들이 말한 데서 한마디도 보태지 말게나. 이 사람들은 뻔뻔스러운 사람들이야. 거짓말쟁이들이고, **이 사람들은 살인자들의 아들이요 손자요 증손자야. 범죄자들의 혈통에 속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지.** 한마디만 하자

면, 이들 범죄자들은 패배자들이야. 그러나 그는 뭘 했지? 그는 사물들을 가까이서 보기를 원했어. 그러자 그 즉시 체포됐지. 숨어있기에 내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나? 그러나, 아니야. 그는 거리로 나가 감옥으로 끌려갔지. 그곳에서 파멸한 거야. 그는 낙담해서 출소했어. 자네 눈엔 그가 낙담해서 출소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지? **나는 그날 밤 확신에 이르렀어,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동안엔 저항하는 법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이야.**> 상원의원은 낙관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항하는 법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저항했는가? 자네가 보기에 그가 저항한 것 같은가? 나는 했네. 나는 저항했던 말일세. 여기 이렇게 시체처럼 웅크리고 있지만 저항하고 있네. 내가 마지막 저항자가 되는 건 아닐까? 밖에서 뉴스들과 메시지들이 전달되지만 가끔씩 생각한다네, 완전히 나만 혼자 남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지.>(Piglia, 2000b: 39)(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마르셀로 마기를 가두었던 43년 라우손 정권이 **살인자들을 계승한 아들이요 손자요 증손자들**이라면 76년 군부쿠데타 세력은 무엇이겠는가? 사에르가 망명지에서 군부를 로사스와 같은 도살자에 비유했다면 피글리아는 국내에서 서슬퍼런 검열을 피해 그들을 살인자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이들이 절망감에 빠져 아르헨티나를 떠났다면, 그는 국내에서 비록 “시체처럼 숨어있을지라도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고국을 떠나는 망명은 시간이 멈춰버린 죽은 공간인 유토피아에 사는 것을 의미했다. 군사정권이 들어서기 전의 추억을 회상하며, 그들이 물러난 뒤에 돌아올 고국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해보는 과거와 미래사이에 낀 죽은 시간, 죽은 공간을 의미했다.

무엇보다도 내겐 망명이라는 것이 유토피아였어. 그런 곳은 없어. 유배, 대탈출, 두 개의 시간 사이에 매달린 공간.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조국에 대한 추억을 갖고있지.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 조국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지. 내게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낀 이런 죽은 시간이 유토피아야. 그런 의미에서 망명은 유토피아지.(Piglia, 2000b: 69-70)

그렇기에 그는 역사에서 배운 과거의 교훈을 떠올리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갖고 끈질기게 살아남는 방법으로 군부에 저항하기로 결

심한 것이다. 로사스 정권이건, 라우손이건 모두 패하고 물러났기에 그는 희망을 갖고 버텨낼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잃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망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잃어버려야 할 게 희망이라네. 이 사람아, 자네도 이 말을 명심하고, 굴복하지 말게나. 세상은 돌고 돌아 마지막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테니까(Piglia, 2000b: 77).

#### IV. <더러운 전쟁> 이후의 기억들: □산타 에비타□와 □카피라이트□를 중심으로

1995년에 발표된 엘로이 마르티네스의 소설 □산타 에비타□는 군사정권이 몰락한 후의 아르헨티나 상황을 비교적 잘 대변해주는 소설이다. “무조건적인 대학살과 공포정치를 참을 수 없어서”(Eloy Martínez, 1995: 243-244) 해외로 망명했던 작가들이 군사정권의 패퇴 후 고국에 돌아왔지만 사회는 철저히 양분되어 있었다. 피해자들은 군사정권에 대한 단죄를 요구했고 가해자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변했다. 반성 없는 가해자들의 저항 속에 알폰신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결국 실패하고 메넴의 집권과 신자유주의 정책의 선택으로 사회는 다시 보수화로 회귀하면서 민중들은 또 한번 절망한다. “과거는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지 않고 늘 되돌아오고, 그와 함께 잃어버렸던 열정들도 되돌아오곤 했다. 인간이란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에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모양이었다.”(Eloy Martínez, 1995: 243) 이러한 민중들의 절망은 자연스럽게 에비타에 대한 환상과 그리움으로 연결된다. 그녀는 “모든 힘과 정열을 바쳐 민중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녀의 계획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노력했던 반대 세력”<sup>6)</sup>이 존

6) 환 카를로스 데산소 감독의 1996년 작 영화 □에바 페론□의 시나리오 작가 호세 파블로 페인만의 언급으로, 송병선이 쓴 □영화 속의 문학 읽기□중 『에비타와 에바 페론』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재했으며, 결국 암에 걸려 33세에 생을 마감한 신화적인 인물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에서 그녀만큼 이중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로 드물다. 그녀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녀를 민중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한 사심 없는 여인으로 기억하며, 그러기에 그녀를 “‘가난한 자들의 수호신’ ‘희망의 여신’ ‘해방자인 성 마르틴 장군’ ‘정신적 지주’ ‘국가의 명예 부통령’ ‘노동의 순교자’ ‘팜파의 여주인’ ‘라플라타의 주인’ ‘킬메스.산 라파엘.마드레 데 디오스의 주인’”(Eloy Martínez, 1995: 20) 등등으로 부르면서 민중의 희망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그녀를 증오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남자를 이용해 정상에 오른 창녀로서, “권위주의적이고 잔인하며 말투까지 천하고 속된”(Eloy Martínez, 1995: 79) <야만성의 전형>으로 기억했다. 그러므로 “인디오들이나, 부도덕한 흑인들, 크로토 부족들, 도둑들, 야생의 가우초들, 폴란드 배로 밀입국한 결핵에 걸린 창녀들, 시골 촌놈들”(Eloy Martínez, 1995: 70)처럼 아르헨티나에서 사라져야 할 악이라고 믿었었다. 이렇듯 양분된 아르헨티나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예비타만한 인물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비타에 대한 평가를 이토록 극과 극으로 나눠놓았을까? 페인만에 의하면 그것은 그녀의 두 가지 열정에 기인한다. 그녀는 첫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으며, 둘째는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잠재우려 노력했다(송병선, 2001: 45-59). 이러한 민중적인 모습과 독재라는 상반된 모습이 양분된 평가를 낳는 것이다. 민중들에게 그것은 변화의 가능성을 의미했다. “에비타가 살아 있을 때 세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Eloy Martínez, 1995: 185)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 더 많은 가능성들을 꿈꿀 수 있었다. 반면에, 중산층들은 “야만인들이 어둠을 틈타서 무더기로 몰려와 자신들의 재산과 집, 직업을 다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악몽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었다.”(Eloy Martínez, 1995: 18). 훌리오 코르타사르(Julio Cortazar)의 『점령된 집』(Casa tomada)은 당시 중산층들의 강박적인 두려움을 잘 묘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자신이 문명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에비타가 야만성의 부활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믿었었고”(Eloy Martínez, 1995: 70), 엘로이 마르티네스 또한 문명인이었기에 에비타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한평생 서로를 증오하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수많은 영혼들을 화해시키지 않고선 아르헨티나의 미래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선 민중이 우상처럼 떠받드는 에비타에 대해 재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에비타에겐 군사정권의 수많은 조작과 왜곡마저 물리치고 부활하는 신비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래 문장들은 군사정권이 민중들에게 에비타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독재자와 그의 아내의 사진이나 동상들을 공공장소에 전시하는 행위나, ‘페론주의’나 ‘제삼의 위치’같은 단어들과 PP(페론당)이나 PV(페론 돌아와요)라는 약자를 사용하는 행위, 독재자를 위해 시위를 모집하는 행위는 육 개월에서 삼 년의 징역에 처한다(Eloy Martínez, 1995: 164).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증오심ियो. 그녀를 모독할 수 있고 영원히 생매장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 말ियो. 스위스에 비밀 계좌가 있는지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소. 정부 재산으로 보석들을 구입했는지도 조사했지만,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소. 그녀가 갖고있는 보석들은 다 선물받은 것들이요. 혹시나 나치 스파이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몇 달을 허비했는지 모르요. 신문도 읽지 않는 여자인데 무슨 놈의 얼어죽을 나치 스파이였겠소?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잡다한 이야기들을 모아 출판하려고 준비중ियो. □2인자의 감춰진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였소. 사백 페이지도 넘어요(Eloy Martínez, 1995: 300).

군부 세력들로 표상되는 보수세력들이 아르헨티나의 권력층에서 물러난 지 십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회는 다시 보수화의 길로 회귀했다. “그들은 권력에서 물러나기 전에 잔인한 대학살을 벌였다. 그들은 목표로 삼은 희생자가 집에 있나 확인하기 위해 한밤중에 전화를 거는 습관이 있었다. 그리고는 정확히 오분 후에 그들 집으로 들이닥쳐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조국의 앞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고문했다. 특별하게 지은 죄도 없이 생각

만 조금 달라도 혹시 복수의 손길이 자기 집 대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마음 졸여야 했다”(Eloy Martínez, 1995: 386). 그런데 이런 보수세력들의 폭력성은 아르헨티나만의 문제일까?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비이성적 폭력의 근저엔 항상 에비타와 페론으로 대변되는 포퓰리즘과 그에 대한 보수세력의 저항만이 존재할까? 호르헤 마론나와 페세티의 소설 □카피라이트□는 그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을 보여준다.

2001년 호르헤 마론나와 페세티가 공동으로 발표한 소설 □카피라이트□는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소설이다. “나는 지금은 이름조차 떠올리기 싫은 라 만차 지방의 어딘가에서, 총살형 집행 대원들 앞에 선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그레고리오 잠자가 악몽에서 깨어났을 때 끔찍한 벌레로 변해 침대에 있었던 먼 옛날 오후를 떠올려야 했다.”(Maronna and Pescetti, 2001: 7)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카피라이트□는 말 그대로 난장판에서 한번 실컷 돌아보는 카니발 그 자체이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에 따로 거주하는 두 작가가 인터넷을 통해 공동으로 쓴 이 작품엔 기존 사회의 모든 권위들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작품의 내용답게 정치를 풍자하는 장면들도 끊임없이 등장한다. 어느 날 비를 피하기 위해 우연히 서점에 들어갔던 루카스(Lucas Modím de Bastos)는 우연히 미셸(Michelle)이라는 미인을 만나게 되고, 문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녀를 유혹하기 위해 소설을 쓰게 된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단 한 페이지의 글도 제대로 쓸 수 없었던 문학의 백치(Maronna and Pescetti, 2001: 20-21)였던 그가 소설을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명작들의 부분 부분을 짜깁기하는 표절이라는 방법밖엔 없었고,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소설은 말 그대로 내용도 주제도 알 수 없는 모자이크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러한 소설이 우연한 실수들을 통해서 <오늘의 작가상>과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는 등 말 그대로 난장판이 벌어지고 독자들은 그 난장판을 통해 사회의 모든 가치들이 전복되는 씁쓸한 경험을 갖게 된다.

소설은 두 개의 층위로 진행되는데, 하나는 루카스가 집필한 소설 속의 소설 <카피라이트>를 통해 문학을 풍자하는 부분이며, 두 번째

는 루카스와 관련된 사회에 관한 풍자이다. 그런데 본 논문의 주제는 군사정권의 폭력성과 그에 대한 기억의 방식이므로 이 글에서 논의될 주제는 아무래도 후자에 국한된다. 즉, 사회의 기존 권위에 대한 풍자, 그 중에서도 정치와 관련된 풍자 부분이 이 글에서 다뤄질 내용인 것이다. 소설 속엔 라틴아메리카의 어느 국가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조작되고 왜곡되는 지 잘 보여준다. 작품 초반 87%의 지지율을 보이던 야당인 민주국민전선 페나데(Fenadé)의 대통령 후보 스마르베크타(Smárbekta) 박사는 도지(Doursey)를 중심으로 한 미국인 선거 전문가들의 작전과 군터(Günter)에 의해 조작된 섹스 비디오 스캔들로 인해 정역 5년형과 영구적인 피선거권 박탈을 받고 낙마하며, 3%의 지지율 밖에 얻지 못했던 무능하고 음탕한 대통령은 군사재판이라는 철권적인 수단과 조기의회해산 등을 통해 재집권에 성공하며 15년 간의 독재체제를 연장하기에 이른다. 선거를 도운 미국인 선거고문들은 금융거래자유화조치를 이끌어내고 군터는 농업법의 통과를 얻게된다. 마약과 성에 물든 부패한 정치권력이 공작과 선거조작을 통해 재집권에 성공하여 국가의 부를 유출시키는 것이다.

**승리감에 들떠있는 도지**의 부축을 받으며 취임식 연설에서 대통령은 그의 첫 정책들을 발표했다. 취임연설은 소녀들에 대한 대통령 사면으로 시작됐으며, 석방된 소녀들은 가족들과 다시 만나 포옹을 한 채 연설의 끝을 참관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이 손을 뺀 장면,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벗어나게 된 소녀와 그 부모들이 대통령에 감사하며 울면서 입맞춤하는 장면 등 모든 장면이 카메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정치행위 금지 조치를 당한 스마르베크타도 인도적인 이유로 사면했다. 사전 통보가 요구됐던 금융거래량의 한도를 없애는 **금융거래의 무제한적 비밀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이 계속 발표됐다. 액수가 얼마가 되든 돈을 송금하고 수취하는 제한이 없게 될 것이며, 금융기관이 계좌를 추적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전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유가 덧붙여졌고, 그 주주에 대한 보장 및 면세가 보장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내외에서 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며, 그렇게 됨으로써 국가경제를 되살리고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찬란한 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가

기 위한 것임이 부연 설명되었다.

취임식에 내빈으로 초청된 줄 플라마리에와 군터는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이제 **농업장려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대통령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었다. 라이엔바하라 명명된 변종에 대해 “국가 밀” 선포식이 시행되었다. 라이엔바하 밀은 경이로운 유전자변형의 조작물로 일반 밀보다 세 배의 밀가루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전적으로 수출 주력 품종이 될 것이었다. 군터는 미소를 지었고, 플라마리에는 **그것이 군터가 대통령에게 은밀히 요구한 것에 대한 응답임을 알고 긴장한 채, 금융정상화 세계기금에 급히 전화 연락을 하기 위해 자리를 나갔다**(Maronna and Pescetti, 2001: 213-214)(강조는 필자의 것).

사실 라틴아메리카의 빈번한 쿠데타는 항상 경제적 이권과 맞닿아 있었다. 에두아르도 갈레아노(Eduardo Galeano)의 지적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의 끊임없는 쿠데타와 혁명.스파이극.아마존 밀림 속에서의 사건은 모두 지하자원의 부산물인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빈번한 쿠데타는 항상 석유 이권의 공여 전후에 발발하고 있으며”(갈레아노, 1999: 249), 가이아나의 세디 제간 사회주의 정권은 보크사이트와 망간 때문에 CIA의 공작에 의해 붕괴됐고, 조선의 발견은 태평양전쟁을 불러일으켰다. 구리는 칠레의 사회주의 정권인 아옌데 정권을 붕괴시킨 가장 큰 이유였으며, 사탕수수.니켈.망간 등은 미국이 쿠바혁명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였다. 그러한 지하자원 중 가장 매력적인 지하자원은 바로 석유이다. 석유는 천연가스보다 더하여 현대 세계를 움직이는 주요한 원료이고, 화학공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원료이며, 군사활동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적인 전략물자이다. 또한 석유만큼 자본주의 체제에서 독점화가 발달되어 있는 부는 없다. 아르헨티나의 수많은 군사쿠데타가 그러한 매력적인 석유 이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1930년 9월 6일 민족주의 지도자 이포니토 이리고젠이 호세 페리스 우리블의 반란에 의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아르헨티나 국회는 석유의 국유화법을 가결하려 하고 있었다. 라몬 카스티소 정부는 43년 6월 미국 자본에 의한 석유채굴을 촉진하는 협정에 조인할 단계에 이르렀을 때 붕괴했다. 55년 9월 후안 도밍고 페론은 국회가 스탠더드

오일 오브 캘리포니아에의 개발권을 승인하려 할 때 망명하고 있었다. 아르투로 프론디시는 석유채굴에 관심을 가진 기업에 나라의 하층토 모두를 제공하는 입찰공고를 냈을 때 삼군에 극히 심각한 군사적 위기를 여러 차례 불러 일으켰다. 59년 8월의 입찰은 응찰자가 없어 취소되었다.

곧바로 재입찰을 발표했지만 60년 10월에 이번에도 무효가 되었다. 프론디시는 카르텔 가맹의 미국 기업에게 몇몇 개발권을 주었는데, 영국의 이해는 62년 3월의 그의 실각과 무관하지 않았다. 아르투로 이라아 대통령은 그들의 개발권을 취소하고 66년에 타도되었다. 이듬해 후안 카를로스 옹가니아 대통령은 내분 속에서 미국을 최후의 승리자로 만드는 탄화수소법을 공포했다(갈레아노, 1999: 289-290).

석유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쿠데타를 초래해 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두 나라인 파라과이와 볼리비아간에 전쟁<sup>7)</sup>도 일으켰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가장 악명 높은 독재정부로 전복되어야만 하는 것도 석유 자원 때문이며, 이라크전쟁이 발발한 것도 모두 석유 때문이다. 군사쿠데타와 수많은 전쟁의 배후엔 석유와 관련된 이권이 존재하는 것이다. 전쟁이나 쿠데타 또는 선거에 승리한 정권은 국내자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자유치를 표방하며, 결국은 국가의 기간산업 및 자원이 제국주의에 인도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을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불순분자로 단죄하며 치유해야 될 병에 걸린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정적을 소수의 반란집단으로 매도하는 소설 속 대통령처럼 말이다.

- 이런 것을 기사화 할 생각은 아니겠쥬? 그렇쥬? -그녀의 옆에 앉으면서 대통령이 물었다.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거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을 알 대비가 되어있지 않아요. 우리의 조국은 항상 스마르벡타 같은 소수의 반란 집단에 위협받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 당의 깨끗한 전통들을 흠집내고, 위대한 국가의 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정직하고 사심 없는 우리의 명예로운 노력들을 더럽히려고 하고 있어요.

7) 1932년에서 35년까지 진행된 차코 전쟁을 일컫는다.

시종들이 박수를 치며 열광적으로 환호했다. 대통령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 어찌면 당신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 오랫동안 꿈꿔 왔던 여행이나, 가정의 가구를 바꾼다든지, 또는 빛을 다 갚는다 라든지...(Maronna and Pescetti, 2001: 63-64).

## V. 결론

1976년에서 83년까지 이어진 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은 사회와 그 구성원들에게서 이성과 합리적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공포만 남겨놓았다. 60년대와 70년대의 건강하고 진취적이었던 민중들의 사회변화에 대한 욕구는 강요된 침묵이라는 새로운 사회문화를 창출해냈다. 어설픈 저항은 죽음과 실종만을 가져올 뿐이었다. 그랬기에 그를 견딜 수 없었던 수많은 지식인, 작가들은 고국을 떠나야만 했다. 그들은 이국 땅에서 향수를 달래며 분노와 싸워야 했다. 남겨진 자들의 설움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역사에 영원한 암흑은 없었다. 로사스의 독재정권도, 수십 차례에 걸친 군부 쿠데타도 모두 막을 내리고 역사의 뒀안길로 쓸쓸히 퇴장했다. 하지만 군사정권이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왈쉬처럼 국내에서 직접적인 고발을 행하다 희생된 사람들, 푸익처럼 국외에서 아르헨티나의 암울한 현실을 고발한 작가들, 그리고 역사에 대한 믿음 하나로 암울한 시절을 꿋꿋이 버텨온 피글리아 같은 작가들 덕분에 군사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군사정권의 종말이 아르헨티나에 활기찬 미래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알폰신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보수층들의 반발로 실패하고 말았으며, 뒤이은 메넴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도 아르헨티나의 국부만을 유출한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오랜 기간 군부독재와 식민경험이라는 암울한 경험을 공유한 우리의 경우를 생각할 때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후의 정체성 형성 노력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 재건

과정>과 <더러운 전쟁>이라는 용어의 차이가 아직까지 상존하는 것은 아직도 과거에 대한 원인분석과 치유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성적인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핑계로 흐지부지 진행된 과거청산 작업은 비극적 역사가 언제라도 재발할 위험성을 잉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80년대의 경제위기 속에 폐기된 마르크스주의 패러다임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확산 속에 진행된 신자유주의 정책 또한 실패한 것도 우리의 눈길을 잡아끈다. 80년대 말 포스트모더니즘이 범람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효율성만이 강조되는 우리의 경우와 비슷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러운 전쟁> 시기 아르헨티나 문학과 그 이후 세대들의 기억의 방식에 대한 재조명은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과거사에 대한 망각을 극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것만이 새로운 비극의 탄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배운 과거의 경험을 영원히 기억한 채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세워야만 반복되는 역사의 비극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Abstract

Los últimos recuerdos dolorosos y de deshonra en la política argentina que ha padecido tantos dictadores y golpes de Estado militares desde el siglo XIX, son los de la llamada <guerra sucia>. Entre 1976 y 1983, la guerra sucia argentina ha acabado con todo lo racional y ha dejado a los ciudadanos sólo el terror. El deseo sano y activo del cambio social del pueblo se ha transformado en el silencio forzado, porque la resistencia podría provocar la muerte y la desaparición. Por ello, la mayoría de los intelectuales -entre ellos los escritores- prefirieron salir del país para luchar contra los dictadores militares. En el extranjero han escrito obras en las que denuncian los delitos de los militares. Los que se quedaron en Argentina tuvieron que tolerar la censura con la sola

esperanza en la historia que enseña que no hay oscuridad eterna. En la historia, dictadores como Rosas y otros militares siempre han terminado destruidos por la resistencia del pueblo.

El presente artículo consta de cinco capítulos. En el primero tratamos la introducción al problema, objeto de nuestro estudio. En el segundo trabajamos la situación histórica y literaria argentina después del año 1970. En el tercero, analizamos las obras de Manuel Puig y de Ricardo Piglia como ejemplos de resistencia a los militares. □Pubis angelical□ de Manuel Puig representa al tipo de obras en las que se resiste a los militares desde el exilio. □Respiración artificial□ de Ricardo Piglia, las obras de los que se quedaron en el país. En el cuarto capítulo tratamos las obras de Tomás Eloy Martínez, de Jorge Maronna y Luis María Pescetti como ejemplos que abordan los recuerdos sobre la guerra sucia. En □Santa Evita□ Eloy Martínez reinterpreta la mitología de Evita al buscar la solución de la reconciliación de los argentinos divididos. Jorge Maronna y Luis María Pescetti denuncian la intriga imperialista como causa principal del deseo fracasado de cambio social. Y en un capítulo final reunimos las conclusiones del estudio.

Key Words: Literatura Argentina, Guerra Sucia, Resistencia, Exilio, Recuerdos /  
아르헨티나 문학, 더러운 전쟁, 저항, 망명, 기억

논문투고일자: 2003. 10. 15

게재확정일자: 2003. 11. 14

-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1997), 「라틴아메리카의 고독」, in 송병선 편저, □가르시아 마르케스□, 문학과 지성사, pp. 187-194.
- 김광우(2003), □몽크, 쉴레, 클림트의 표현주의□, 미술문화.
- 송병선(1997), □가르시아 마르케스□, 문학과 지성사.
- \_\_\_\_\_(2001), □영화 속의 문학 읽기□, 책이 있는 마을.
- E. 갈레아노(1999), □수탈된 대지□, 박광순 역, 범우사.
- Amícola, José(1992), *Manuel Puig y la tela que atrapa al lector*, Bs.As.: Grupo Editor Latinoamericano.
- Avellaneda, Andrés(1986), *Censura, autoritarismo y cultura: Argentina 1960-1983*, Buenos Aires: Centro Editor América Latina.
- Corbatta, Jorgelina(1999), *Narrativas de la Guerra Sucia en Argentina*, Buenos Aires: Corregidor.
- Eloy Martínez, Tomás(1995), *Santa Evita*, México: Joaquín Mortiz.
- Jara, René y Hernán Vidal(1987), *Ficción y política: la narrativa argentina durante el proceso militar*, Bs.As.: Alianza.
- Jordán, Alberto R.(1993), *El Proceso 1976/1983*, Buenos Aires: Emecé.
- Lafforgue, Martín(1999), *Antiborges*, Argentina: Javier Vergara.
- Maronna, Jorge and Luis María Pescetti(2001), *Copyright: plagios literarios y poder político al desnudo*, Barcelona: Plaza & Janés.
- Masiello, Francine(1988), “La Argentina durante el proceso: las múltiples resistencias de la cultura”, in Saul Sosnowski, *Represión y reconstrucción de una cultura: el caso argentino*, Buenos Aires: Eudeba, pp. 11-29.
- Orgambide, Pedro(1999), “Borges y su pensamiento”, in Martín Lafforgue, *Antiborges*, Argentina: Javier Vergara, pp. 257-331.
- Piglia, Ricardo(1992), *La ciudad ausente*, Bs.As.: Sudamericana.
- \_\_\_\_\_(2000a), *Crítica y ficción*, Bs.As.: Planeta.
- \_\_\_\_\_(2000b), *Respiración artificial*, Bs.As.: La Nación.

- Puig, Manuel(1979), *Pubis angelical*, Barcelona: Seix Barral.
- Roffé, Reina(1985), “Manuel Puig: del kitsch a Lacan”, *Espejo de escritores*, Hanover: Norte, pp. 129-146.
- Saer, Juan José(1980), *Nadie, nada, nunca*, México: Siglo XXI.
- \_\_\_\_\_(1995), *La historia y la política en la ficción argentina*, Santa Fe: Univ. Nac. del Litoral.
- Sarlo, Beatriz(1988), “El campo intelectual: un espacio doblemente fracturado”, in Saúl Sosnowski, *Represión y reconstrucción de una cultura: el caso argentino*, Buenos Aires: Eudeba, pp. 96-108.
- Valenzuela, Luisa(1982), *Cambio de armas*, Hanover: Norte.
- \_\_\_\_\_(1983), *Cola de lagartija*, Bs.As.: Bruguera.
- Walsh, Rodolfo(2000), “Carta a mis amigos”, in Jorge Lafforgue, *Textos de y sobre Rodolfo Walsh*, Bs.As.: Alianza, pp. 280-282.

- 「백지」를 중심으로 -

윤영순(고려대)\*

I.  
II.  
III. 「   」  
IV.

우리가 옥타비오 파스의 시 「백지」(Blanco, 1967)를 읽을 때, 시의 내용은 우주, 사랑, 언어, 인식 등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글자들은 병풍이 펼쳐지듯 차례로 나타나 만났다 헤어졌다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어떤 절대적 경지로 안내하려는 만다라와 같은 명상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시인 파스가 언어에 대한 한계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극복하려 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백지」가 탄생한 배경과 아울러 언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 I. 언어의 한계

파스는 □활과 리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 Young-Sun Yun(Korea University), "La función de palabras en Octavio Paz - en torno a Blanco -".

모든 철학의 모호성은 철학이 언어에 치명적으로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철학자들은 말이란 실재를 포착하기에는 너무 조악한 도구라고 확신한다. 그렇다면, 말없이 철학이 성립될 수 있을까? 논리학이나 수학의 경우처럼, 상징이 아무리 추상적이고 순수하다 해도 상징 역시 언어이다. 게다가, 기호는 반드시 설명되어야 하는데, 언어 이외의 다른 설명 방법은 없다. 말이라는 지시체가 없이 순전히 상징적이고 수학적 언어로 된 철학이란 불가능하다. 그런 철학은 인간과 인간에게 생기는 문제들—모든 철학의 핵심 주제—을 포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말과 분리불가분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말없이 인간은 포착되지 않는다. 인간은 말로 된 존재이다. 그리고 말도 인간처럼 태어나고 죽기 때문에, 말을 이용하는 모든 철학은 역사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쪽에는 말이 표현할 수 없는 실재가 있고, 다른 한 쪽에는 단지 말로써만 표현될 수 있는 인간의 실재가 있다(Paz, 1998: 36-37).

인간 존재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하는 철학 분야에 있어서 언어는 필수적이다. 모든 철학의 오류가 언어의 잘못된 사용에 기인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언어 없이는 아무런 개념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언어 없이는 결코 자신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운명을 살고 있다. 언어는 삶의 유일한 가능성인 동시에 온전한 삶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오토(Rudolf Otto)의 ‘신성한 것’(lo sagrado)에 대한 묘사에 있어 언어의 한계성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신성한 것에 대한 경험 내용은 언어를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사실이지만 현실에서 그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현실 세계의 경험의 축적으로 이루어진 언어를 사용해서 묘사하는 수밖에 없다.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아래와 같이 오토의 분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성스러운 것은 참으로 ‘자연적인’ 여러 실재와는 전적으로 다른 하나의 실재로서 현현한다. 그런데 경외감이나 장엄함 혹은 매혹적인 신비감 등과 같이 자연계나 인간의 세속적인 정신생활을 묘사하는 말에서 빌려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추적 표현법은 그 전혀 다른 것을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에 기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즉 인간의 자연적인 경험을 초월하는 모든 것을 언

어는 부득이 그 경험에서 얻은 용어로 환원시키게 된다(엘리아데, 1998: 48).

인간의 자연적 경험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인간의 경험 내에서 얻어진 어휘들로 묘사하고자 하는 행위는 하나의 패러독스다. 왜냐하면 어떤 신성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세속적인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어느 시에서 읽었지  
 ‘대화는 신성한 일’이라고.  
 하지만 신들은 말을 하지 않아,  
 인간들은 말을 하는데 말이야.  
 그냥 세상을 만들었다 부수었다 하고 있지.  
 신들은 말도 없이  
 무시무시한 놀이를 하고 있는 거지.

:

인간들의 말은  
 죽음의 자식.

:

대화는 인간의 일일 뿐이야.

(“Conversar”, 707)<sup>1)</sup>

신들의 대화를 우리는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침묵과 같은 것이다. 신들의 세계에 속하는 영(靈)이 내려와 그들의 의사를 우리에게 전한다. 하지만 그것은 말이 아니라 빛, 어둠, 바람, 불 등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다. 파스는 인간의 말은 “죽음의 자식”(hija de la muerte)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말은 인간에게만 속해있는데 우리는 “죽는 존재”(mortales)이기 때문이다. 유기체적 인간의 특성은 누구나 그 끝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죽을 운명을 타고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기호인 동시에 시간이다. 침묵은 신의 일이고 인간은

1) 이 글에 인용된 파스의 시는 □시모음집□(Obra poética)에 실려 있는 것이다. 편의상 인용 시의 하단에 시 제목과 해당 쪽 수만 적도록 한다.

시간의 냄새가 나는 말의 존재인 것이다. 시의 마지막에서 이 시에 동기를 준 파스가 읽은 시의 명제인 “대화는 신성한 일”(conversar es divino)은 “대화는 인간의 일”(conversar es humano)로 바뀐다. 마치 언어가 굴레가 아니라 인간이 신성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시인은 번번이 좌절을 맞본다. 시인은 비몽사몽간에(en duermeverela) 거대한 물줄기의 흐름소리를 듣는다. 이 소리는 조금 전 까지도 마음대로 구사했던 개념의 언어들이 확신을 잃어버린 채 헤매게 하는 힘을 가진 소리다.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 따라서 시인의 사고는 본질을 결여한 껍데기인 단어들로 가득 찬 물웅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 그리고 말들은 이미지화 작용을 멈춘 채 더 이상 아무 것도 지칭할 수 없다.

나의 생각은 이랴 이랴 재촉하지만 앞으로 나가지 않고  
쓰러졌다 일어났다 하다가  
언어의 갇힌 물웅덩이에 굴러 떨어진다.

:

이미지는 하나 돌썩 달아나고 말은 얼굴을 덮어버린다.  
(“No hay salida”, 249)

## II. 따예르 세대와 언어

파스는 에프라인 우에르따(Efraín Huerta), 라파엘 솔라나(Rafael Solana), 알베르토 킨페로 알바레스(Alberto Quintero Álvarez)와 함께 □따예르 □(Taller, 1938-1941)라는 잡지를 간행한다. 이로써 멕시코에서는 곤템뽀라네오스 세대(Los Contemporáneos)를 잇는 따예르 세대가 탄생하게 된다. 그의 앞 세대가 혁명의 부패를 경험하고 스페인의 27세대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상징주의, 순수주의, 아방가르드,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아 한시바빠 멕시코의 문학을 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보편적 테마, 즉 죽음, 에로티즘, 꿈 등을 다루면서

현실에서 멀어져 갔다면, 따예르 세대는 ‘태초의 언어’에 대한 추구를 천명하였다. 창세기에 세상을 생겨나게 하던 하나님의 언어, 처음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사물을 지칭하고 자연과 대화하던 말과 사물이 곧바로 일치하던 시절의 상상 속의 언어를 추구한다. 그러나 그것은 앞 세대와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처음 시작은 어떤 그룹을 만들려는 강박관념이나 앞 세대, 즉 폰뎀뵤라네오스 세대에 즉각적으로 반발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앞 세대가 밑그림을 그렸던 시적 고뇌와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이 발견된다”(Correa Pérez, 1991: 28).

파스 자신도 「멕시코 근대시」(*Poesía mexicana moderna*)라는 글에서 그 선배들의 영향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과 폰뎀뵤라네오스 세대와 구분 짓는 자신들의 주요 관심사를 덧붙인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문학적인 것에 대한 혐오, 개인적 언어에 반대하여 원초적 언어에 대한 추구가 우리 세대와 폰뎀뵤라네오스 세대를 구별하는 요소이다. 시는 표현의 행위를 넘어 생사를 거는 활동이었다... 시는 일종의 영적 행위였다 ... 우리 모두에게 시는 경험으로서 다가왔다, 다시 말하면 시는 생생한 그 무엇이다. 우리는 합일(*comunión*)<sup>2)</sup>의 가장 높은 단계 중의 하나를 시 속에서 보았던 것이다. 이렇듯 사랑과 시가 분열 이전 태초의 인간을 회복하려는 하나의 시도였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Paz, 1971b: 56).

겉보기에는 시를 통한 원초적 언어에 대한 추구가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활동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의식을 규정짓는 언어에 대한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혁명’(*revolución*)이라는 말 속에는 원래로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원초적 언어는 원초적 인간, 인간의 순수 상태로 되돌리는 힘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인간의 변화는 곧 사회의 변화를 요구한다. 물론 그 반대도 성립한다. 그러므로 원초적 언어의 추구는 사회와의 결별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 혁명의 길이

2) “*comunión*”이란 말은 원래 가톨릭의 “성체 배령”을 의미하지만 파스는 이 말을 가톨릭에 국한하지 않고 ‘어떤 절대적 경지와 영적 만남’을 나타내기 위해 자주 사용한다.

라고 믿는 것이다. 또한 파예르 시인들에게는 사랑과 시가 동일한 사실에 대해 표현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었다. 사랑은 원초적 인간인 아담적 인간을 추구하고 시는 아담의 언어를 추구한다. 결국 이것은 같은 것이며 시와 사랑의 경험은 우리 존재의 기초를 흔들어 놓는 일이며 존재를 피안으로 옮겨놓는다(Müller-Bergh, 1979: 17-18).<sup>3)</sup>

사실, 아담의 언어에 대한 파예르 시인들의 향수는 이루어지기 힘든 어떤 하나의 모토 같은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원초적 언어에 대한 예로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면 파스는 그 향수를 달래기 위해 어떠한 시도를 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잃어버린 말은 찾아내야 한다, 안으로 또 밖으로  
 그것을 꿈꿔야 한다,  
 밤의 문신을 읽어내고 정오의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  
 햇빛에 목욕을 하고 밤의 과일들을 먹으며  
 별과 강이 쓰는 글자를 해독해야 한다,  
 피와 바다, 땅과 몸이 말해주는 걸 기억하고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안으로도 밖으로도 위로도 아래로도 아닌 교차로  
 모든 길들이 시작되는 곳으로,  
 빛은 물소리로 노래하고 물은 신록의 소리로 노래하고  
 새벽에는 온갖 과실이 하늘에 열려있고 낮과 밤이 화해하며  
 잔잔한 강물처럼 흐르고 있고  
 사랑에 빠진 남녀처럼 낮과 밤이 서로를 애무하며  
 거대한 포옹을 하고  
 세월을 머금은 다리 아래로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계절과 인간이 흘러간다,  
 태초부터 살아 온 생의 한 가운데로, 끝과 시작을 넘어  
 저 깊은 곳으로.

(“El cántaro roto”, 259)

3) 잡지 □파예르□(Taller)를 참조해도 됨(팩시밀리 본 Taller(1938-1941), I-IV, 17-18).

시 속의 주인공은 벌판에서 갈증으로 고통 받으며 물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물은 보이지 않고 향아리는 깨어져 있다. 그러한 현실 앞에 화자는 이렇게 외친다: “꿈꿔야 한다”(hay que soñar). 그것은 다시 말해 ‘상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막에서 물은 생명과 동의어인 것처럼 시인이 찾으려는 언어는 그만큼 절실한 것이다. 이 시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잃어버리다”(perder)란 말은 과거에 존재했던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말 그대로 과거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 과거는 신화적 시간이며 절대적 상태에서 다가갈 수 있다는 시인의 믿음 속에 존재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그의 시에 등장하는 “태초”란 말은 직선적 시간 개념이 아니라 절대성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태초의 언어를 잃어버린 시인은 자연 속에서 잃어버린 태초의 언어를 찾으려 한다. 그럴 수 없을 때는 자연에 남아있는 흔적을 읽어내는 수밖에 없다(라이치, 1989: 45-49). 첫 단계로 파스가 찾아낸 것은 아직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아담의 언어는 아니다. 그것은 자연에 깃들여 있는 태초의 흔적, 그것은 하나의 기호이며 구조다. 파스는 새벽빛(alba)을 보면서 낮과 밤이 서로 화해하며 보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파스는 대명사를 태초의 언어에 가까운 형태로 여기고 그것에 대한 집착을 보이기도 한다.

존재의 문이여, 나를 깨워라, 솟아올라라,  
 내게 이 낮의 얼굴을 보여 다오,  
 내게 이 밤의 얼굴을 보여 다오.  
 모두가 서로 교감하고 변화한다,  
 피의 무지개, 맥박의 다리가 놓인다,  
 나를 이 밤의 저 편으로 데려가 다오.  
 내가 너고 모두가 우리인 곳으로,  
 대명사들이 만나 어우러진 왕국으로,

(“Piedra de sol”, 277)

시 『태양의 돌』(Piedra de sol)에서 사랑의 경험을 통하여 ‘나’(yo)는 ‘너’(tú)와의 만남의 상태를 상상한다. 그러나 아직 ‘너’의 얼굴을 보

려는 열망을 안고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계속 갈구해 오던 합일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의 삶을 살고 있다. 그의 삶과 마찬가지로 대상과 만나려는 열망은 진행형이다. 화자는 여기서 우리가 태어날 당시의 상태, 우리의 의식이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추기 이전의 상태를 상상한다. 그것은 ‘나’와 ‘너’가 아무런 선입견이나 외부적 가식 없이 만날 수 있는 “대명사들이 서로 얹혀서 이루어진 왕국”(el reino de pronombres enlazados)이다.

파스는 그의 책 □활과 리라□에서 언어에 있어서의 최소 의미 단위를 고립된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구라고 말한다. 어린이들은 단어를 고립시키지 못하며 살아있는 의미 덩어리(bloques significativos)로 말한다. 또한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거나 방심하면 언어는 어느새 권리를 회복해서 단어들을 끌어 모은다. 그 때는 문법적 규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에 따르게 된다. 어떤 원시적 언어들에 있어서는 지시 대명사가 ‘이것’ ‘저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이것’(este que está de pie),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는 저것”(aquel que está tan cerca que podría tocársele)을 가리킨다. 이러한 대명사들을 파스는 “단어 구”(palabras- frase)라고 소개한다(Paz, 1973: 49-50; Paz, 1998: 62-63). 이처럼 시인은 대명사가 언어의 문법적 횡포가 가해지기 전의 더 자연 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 위의 시에 등장하는 대명사는 □활과 리라□에서 언급하는 ‘구로 인식되는 대명사’를 직접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하지만 파스가 대명사를 글에서 언급할 때는 항상 어떤 원초적 상태를 염두에 두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 III. 「백지」와 언어

#### 1.

시 「백지」에서 언어의 한계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하려 시도하

고 있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시와 아날로지의 관계를 언급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백지」를 덮고 있는 글자들은 기호처럼 펼쳐져있는 이 세상과 아날로지적 상응의 관계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사물과 이름은 동일한 것이라는 인간의 믿음은 인간의 원초적 행위이며, 인간이 기호에 어떤 신비한 힘이 담겨 있다고 보기 시작한 것은 유사 이전부터다. 원시인들은 동굴에 임신한 들소를 그림으로써 실제로 들소가 많아진다고 믿었으며 사냥과 전쟁을 하기 전에 주문을 외움으로써 동물이 많이 잡히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자연을 모방하는 인간의 언어는 현실보다 그렇게 열등한 것이 아니었다. 언어는 그것이 지칭하는 사물들과 거의 동등하거나 때로는 그 대상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여겨졌다.

단어가 가지는 힘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신앙들에 대한 회상이다. 즉, 자연엔 영이 깃들여 있고, 각각의 사물은 스스로의 생명을 갖는다. 객관적 세계의 닳은꼴 언어에도 역시 영이 깃들여 있다. 언어도 우주처럼 부름과 응답의 세계이다. 밀물과 썰물, 합일과 분리, 들숨과 날숨의 세계인 것이다. 어떤 단어들은 서로 끌어당기고, 어떤 단어들은 서로 밀치면서, 모든 단어들은 서로 상응한다. 일상어는 별과 식물을 다스리는 것과 비슷한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들의 집합이다(Paz, 1998: 64).

푸코는 16 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유사성(similitudes)이 서구 문화에서 지식을 구성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유사성에 대한 바탕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 즉 적합(convenientia), 모방적 대립(aemulatio), 유비(analogie), 공감(aympathies)을 들고 있다. 그 중에서 아날로지에 해당하는 ‘유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비>(analogie)는 적합(convenientia) 및 모방적 대립(aemulatio)과 중첩된다. 말하자면 유비는 모방적 대립과 마찬가지로 공간을 가로질러 유사물들 간의 경이로운 대립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적합과 마찬가지로 인접, 유대 및 합치에 관해서도 언급한다. 유비의 힘은 거대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취급하는 相似들은 사물들 그 자체의 가시적이고 실제

적인 相似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유사성은 관계들에 있어서의 좀 더 미묘한 닮음꼴임을 요구할 뿐이다. 그러므로 유비는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의 주어진 지점으로부터 무한한 수의 관계들로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별과 별이 빛나고 있는 하늘 사이의 관계는 식물과 땅 사이에서도, 생물과 생물이 살고 있는 지구 사이에서도, 다이아몬드 같은 광물과 광물이 매장된 암반 사이에서도 발견된다(푸코, 1991: 46).

푸코가 이야기 하듯이 아날로지는 이 세상이 단절 없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는 사고와 분리될 수 없다. 데카르트가 이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본 데 반하여, 라이프니츠는 하나의 거대한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보고 그 유기체의 모든 부분 또한 작은 유기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우주를 반영하는 각각의 모나드의 모습은 화염경에서 말하는 帝釋天의 그물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김용옥, 1989: 88). 쉼표의 사용에 인색한 것이 파스의 시 특징 중의 하나임은 이미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 시보다는 중기와 후기로 갈수록 점점 심해진다. 파스가 이렇게 쉼표를 아끼려는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단 없는 연결의 속성은 이 세상을 이루는 원리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파스는 그의 수필집 □이중불꽃□(*La llama doble*)에서 “에로티즘은 육체의 시이고, 시는 언어의 에로티즘”이라고 말한다(1993: 10). 이때 시인은 글자로 된 시에 작용하는 에로티즘과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주에 흐르는 에로티즘의 흐름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시 속의 글자에도 남자와 여자, 하늘의 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끌림과 밀침의 힘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파스에게 있어 시는 사랑과 싸움, 결합과 분리가 서로 얹혀있는 생명력 가득한 하나의 우주로서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파스가 ‘시 속에서 장미를 피어나게 하라’라고 외치는 비센테 우이도브로(1989: 3)의 순수시와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칠레 시인의 창조주의에서는 현실과는 완전 독립된 언어로만 이루어진 시를 상상한다. 파스는 이와는 다르다. 그에게 있어서 시와 현실은 아날로지적 체계로 서로 상응하면서 대등한 것이기 때문이다.<sup>4)</sup> 파스는 여

기서 더 나아가 시가 역으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우주적인 형제애를 비추는 거울인 시는 인간 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자연 파괴에 맞서서 시는 별들과 입자들, 화학 원소와 의식 사이의 공통점을 보여준다. 시는 우리 상상력을 작용시켜 차이점들을 인식하고 유사점들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우주는 유사성과 대립성으로 짜여진, 살아있는 그물이다. 보편적 형제애의 생생한 증거로서 시는 실사 그 우주가 영웅의 전설이거나 버림받은 소녀의 고독 혹은 내면의 거울 속에 자기의 의식을 비추어 보는 것 등일지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조화와 일치의 정신이다. 시는 기술과 시장에 대한 해독제다(1999: 346).

## 2. 「 」

파스가 인도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쓴 하나의 장시이자 시집 제목이기도 한 「백지」는 백지 속에서 글자들이 서로 모였다 흩어지면서 움직이는 역동성 속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는 하나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시의 머리 부분에는 “열정에 의해 세상은 묶이고 또 열정에 의해 풀어진다”(By passion the world is bound, by passion too it is released)라는 탄트라 불교 경전에서 인용한 구절과 “그 하나의 사물 속에서 무無가 영예로와 지리라”(Avec ce seul objet dont le Néant s'honore)라는 말라르메의 소네트의 한 행을 써놓았다. 이것은 그의 시 「백지」가 말라르메와 탄트라 불교 두 전통에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해 놓은 것이다.

- 
- 4) 세베로 사르두이는 이러한 말과 사물의 우열 없는 대등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주어진 현상에 대한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지만 공존할 수는 있다. 결과조차 원인에 선행할 수 있으며, 이 둘은 카드놀이에서처럼 뒤섞일 수도 있다. 또한 르통베는 불연속적 상황 속에서의 어떤 유사성 혹은 닮음이다. 서로 교통하거나 간섭함이 없이 떨어져 있는 두 사물이 유추적 상응을 나타낼 수 있다. 말이 사물이거나 상태에 대해 상응하는 것처럼, 하나는 다른 것의 분신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 모델이나 복제품 사이에는 어떠한 우열도 없다"(1987: 35).

□너의 투명한 그늘 아래서□(*Bajo tu clara sombra*, 1937)나 □세상의 가장자리에서□(*A la orilla del mundo*, 1942) 같은 파스의 초기 시들은 행의 배열을 임의로 조작한 시들은 볼 수 없고 오히려 11음절이나 소네트 같은 전통 음수율과 시 형식이 자주 나타난다. 그러나 □찬미가를 위한 씨앗□(*Semillas para un himno*, 1954)부터는 시행의 공간 배치를 이용한 효과를 노린 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가벼운 시행 배치의 변화에서 시작된 실험은 나중에 다양한 활자와 여러 줄기의 시행이 엉켜있는 더 과격적 형식의 □백지□(*Blanco*, 1967)나 상형문자를 흉내 낸 □공간시□(*Topoemas*, 1968), 겹쳐진 마분지를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만든 □시각 원반□(*Discos visuales*, 1968) 같은 시들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백지□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는 늘 하던 방법과는 다르게 시 쓰기와 읽기를 성립시키는 두 개의 축, 즉 공간 축과 시간 축을 혼합하는 시도를 했다. 책의 페이지와 철자들은 정신적 경험이 물리적으로 투사되도록 꾸밈으로써 시가 공간적이고 동시에 시간적으로 읽히도록 했다(Paz, 1999: 329).

그동안 축적된 자유로운 시행 배치의 실험과 1957년 장시 『태양의 돌』(*Piedra de sol*)을 쓴 경험이 어우러져 『백지』가 탄생했다고 보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지만, 아마도 그가 『주사위 놀이』를 접하지 못했다면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백지』는 그 형태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프랑스 상징주의의 선구자인 말라르메(*Stéphane Mallarmé*)의 시 중에서 특히 『주사위 놀이』(*Un coup de dés*, 1897)는 『백지』의 형태상의 구성에 있어 큰 동기를 제공해 주었다. 말라르메가 죽기 1년 전 마지막으로 남긴 『주사위 놀이』는 전통적 시 형식을 따랐던 그의 다른 시들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다. 한 눈에 동시에 볼 수 있는 두 페이지가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는데 총 11번 계속해서 옆으로 이어지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다양한 크기의 활자로 된 글자들을 마치 빅뱅 이래로 하늘에 별들이 흩어져 있는 모양이나 오르락내리락 움

직이는 우주의 율동을 옮겨 놓은 듯한 배치로 이루어진 이 시는 병풍을 연상시킨다.<sup>5)</sup> 시의 각 부분들은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긴밀히 연결되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 정해진 독해 순서가 없고 같은 크기의 글자들이 끌어당기기도 하고, 아래가 아니라 옆으로 옮겨가며 읽을 수도 있다, 또한 연이 분화하기도 합쳐지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크기의 활자가 흐르고 있는데, 제일 큰 것은 “UN COUP DE DÉS … JAMAIS … N’ABOLIRA … LE HASARD” 이고 중간 것은 “QUAND BIEN MÊME LANCÉ DANS DES CIRCONSTANCES ÉTERNELLES DU FOND D’UN NAUFRAGE …”로 시작하고, 제일 작은 것은 “que l’Abime blanchi étale furieux …”로 시작한다.<sup>6)</sup> 제일 큰 활자는 이 시의 기본 테마를 이루고 있고 다른 두 활자는 그 사이사이를 메우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인이 서문에 밝힌 대로 마치 ‘백지 위에 펼쳐져 있는 악보’를 보는 듯하다(Mallarmé, 1980; 1998). 따라서 “UN COUP DE DÉS …”라는 주 테마를 바탕으로 발전한 변주들이 울리는 하나의 ‘심포니’다. 낭만주의자들이 선호했던 일화나 웅터린 식의 신들의 메시지를 시로 써서 전해주는 시인의 역할(인간은 신들이 던져놓은 단어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시는 이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한다)을 말라르메는 거부한다. 말라르메는 이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바로 시가 이루어지는 장場을 묘사하거나 재현하려 한다. 즉 신들의 메시지를 ‘기원’이라고 한다면 말라르메에게 있어 그 ‘기원으로 가는 여행’은 좌절당했다. 그래서 그의 시는 ‘기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우연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에서 헤

5) 주사위 놀이는 1897년 5월 *Cosmopolis* 라는 잡지에 처음 출판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시는 1914년에 나타났다. 파스의 백지와 같이 종이 한 장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인쇄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좌에서 우로 계속 이어지는 병풍의 모양을 고려해서 썼음을 알 수 있다. 말라르메는 동시대 상징주의 화가 오딜롱 르동(Odilon Redon, 1840~1916)과 「주사위 놀이」를 삽화를 곁들인 호화 양장으로 제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1898년 갑자기 후두 경련으로 말라르메가 쓰러지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 그 시가 나온 지 불과 1년만의 일이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되었다면 한 장으로 이어지는 시 형태를 취했음이 틀림없다.

6) 불어로 된 시는 Stéphane Mallarmé(1980), *Obra poética*에 실린 것을 참조하였다.

엄치고 있는 인간의 상황을 묘사하고자 한다. 파스는 이러한 새로운 시 형식과 시 자체를 관조하는 메타시적 사고를 수용한다.

「백지」는 「주사위 놀이」와 마찬가지로 병풍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상의 차이점은 후자가 좌에서 우로의 수평적 진행인데 비하여 전자는 위에서 아래로의 수직적 진행이 다를 뿐이다. 「백지」를 읽기 위해서는 이 병풍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시 읽기에 독자를 능동적으로 참여시키는 열린 작품의 하나다. 열린 작품에서 독자는 작가와 공범이 된다. 독서까지 문학행위라고 본다면 창조적 독서는 독자가 문학 창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시는 정해진 페이지가 없고 병풍이 펼쳐짐에 따라 행과 연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가 끝없이 움직이며 진행하듯이 보인다. 따라서 독자는 그때 그때 나타나는 시의 부분을 개별적인 하나의 시로 읽어도 되고 시 전체를 하나의 시로 읽어도 된다. 또한 좌에서 우로 읽어도 되고 위에서 아래로 읽어도 된다(Paz, 1967: “Notas”). 파스가 그의 □시모음집 *Obra poética*□에 시 「백지」를 실으면서 스스로 제안하고 있는 방법대로 읽을 경우 총 22개까지의 시가 된다(Santi, 1995: 278).

시 전체를 펼치면 밤하늘의 별처럼 글자들이 박혀있는 듯이 보이고 각 부분은 글자들의 별자리에 해당한다. 여러 크기의 글자들로 되어 있는 이 시는 때로는 이탤릭체와 때로는 붉은 색을 사용하여 더욱 변화를 준다.<sup>7)</sup> 이 시는 병풍 위에서 기본적으로 세 줄로 펼쳐지는 구조로 되어있다. 가운데 줄은 언어의 변천 과정을 테마로 하고 있다. 침묵에서 시작해서 침묵으로 끝난다. 백지에서 시작해서 노랑, 빨강, 녹색, 청색의 네 단계를 거쳐 다시 백지로 돌아간다. 그러나 마지막 침묵은 처음의 침묵과는 다르다. 백지 위에 펼쳐진 글자들이 처음의 침묵의 의미를 찾아 백지 위를 헤매던 끝에 이르게 되는 투명한 침묵이다. 왼쪽 줄은 세상의 만물을 만들어내고 사라지게 하는 힘의 원동력인 사랑의 테마이다. 시적 대상인 ‘너’의 몸은 단순한 육체를 넘어 전통적 우주의 4원소인 불, 물, 흙, 공기를 상징한다.

7) 말라르메의 시에서는 흑색 잉크만 사용한 반면 「백지」에서는 흑색과 붉은 색 두 종류의 잉크를 사용한다.

오른쪽은 용이 규정한 인식의 4 요소(감각, 인지, 상상, 이해)를 나타낸다. 왼쪽이 불교의 비혜(karuna)에 비견되는 열정, 마음의 작용이라면, 오른쪽은 반야(prajna)에 해당하는 지혜, 인식의 문제이다. 이 두 줄이 만났다 헤어졌다 하면서 시는 전개된다. 그렇다면 가운데 ‘언어’의 줄은 열정과 지혜를 만나게 해주는 가교이며,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해주는 통로인 셈이다.

그러나 파스는 언어가 단순한 매개체로만 머물러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 속에서 각각의 단어들은 서로 에로틱한 행위를 한다. 사람들이 서로가 사랑을 할 때 서로 끌리거나 때로는 서로 멀리하듯, 언어의 세계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 우주 자체의 생성과 유지가 바로 이러한 리듬의 현현이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행성들과 행성들, 별들과 행성들 간에서 이 두 힘의 조화가 있고 미시적으로는 분자와 분자, 중성자와 양성자, 전자 사이에서도 두 힘은 함께 한다. 그리하여 한 단어와 다른 단어, 한 언어와 다른 언어가 만나면 새로운 의미가 탄생하기도 한다. 언어 자체의 생명력과 언어의 힘에 대한 믿음은 탄트라에서 체계적으로 잘 보여준다.

### 3.

구겐하임 장학금이 끝나고 나서도 파스는 1945년 뉴욕에 옮겨 머물면서 호세 환 따블라다(José Juan Tablada)의 작품을 연구한다. 따블라다의 작품은 그에게 동양의 문학과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나서 1940년대 후반과 50년대 중반까지 파스는 프랑스를 거쳐 동양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가졌다. 나중에 멕시코로 돌아올 무렵에 쓴 「일본 문학의 세 시기」(Tres momentos de la literatura japonesa)와 「초현실주의」(El surrealismo)라는 두 글은 동양 예술과 철학에 대한 자세하고도 심오한 그의 이해를 보여준다(1971b: 107-151). 적어도 이 시기에 와서는 파스의 감성 속에 초현실주의의 테마와 동양적 사고, 특히 불교가 서로 교류하기 시작한다.

벤자민 페렛(Benjamin Péret)의 책, □나의 승화□에서 ‘나’의 시간적 흐름이, 햇빛을 받으며 쏟아지는 폭포수같이 형형색색의 물방울로 흩어진다. 2천년 이상 흐른 뒤에 서구의 시는 불교의 기본 가르침을 이루는 것을 발견한다. ‘나’는 환상이며 감흥과 사고와 욕망의 집합체일 뿐이다(Paz, 1971b: 142).

바로 불교와 탄트리즘<sup>8)</sup>이 현실주의에 머무르고 있던 파스의 직관들에 골격을 세우고 지탱해주며, 일상적인 것조차 제의의 영역에서 실행을 가능하게 했다(Martínez Torrón, 1982: 266). □결합과 해체□(*Conjunciones y disyunciones*, 1969)에서 말하듯 파스는 인도의 사원에서 상징적 기호들이 건물 전체를 뒤덮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의 시적 사고를 구체화시키는데 사용한다. 탄트리즘은 이미지들이 육화(encarnación)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Paz, 1991b: 78-79).

탄트리즘은 원초적 진리의 형상으로서 남신인 시바(Shiva)와 여신인 삭티(Sakti)를 섬기며, 그것의 진리가 몸속에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때, 인간의 몸은 우주의 축소판인 소우주라고 여긴다. 탄트리즘적 결합 의식을 통하여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시바와 사크티의 절대성으로 가는 신비적 결합의 행위를 재현한다. 탄트라 의식에서는 소우주와 대우주가 일치한다. 둘의 결합은 대립물들을 화해시키며 주체와 대상을 융합시킨다. 이 때 몸은 우주에 대한 다양한 양상들을 그 자체 내에서 합치시키는 소우주이다.

우주의 축소판으로서의 인간 육체에 대한 관점은 탄트리즘의 중심 사고이고 그것이 마술적 생리학과 에로틱한 연금술로 펼쳐져 있는 것이다. 우주는 몸처럼 호흡하고 몸은 결합과 분리의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 결합과 분리의 법칙은 사물에 원기를 주고 끝없는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이다(Paz, 1992: 56).

시바는 탄트리즘에서 원초적 에너지를 말하며, 본질적 완전체임으

8) 8세기 이후 탄트리즘과 불교가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탄트라 불교(후기 밀교)를 형성한다(석지현, 1978: 22). 파스는 이 탄트라 불교에서 불교와 탄트리즘의 두 요소를 함께 받아들인다.

로 남여 양성이지만, 인간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구체화시켜 등장하는 사크티는 시바의 일부이면서 다른 반쪽이다.<sup>9)</sup> 사크티가 등장하면, 시바는 남성적 에너지로 사크티는 여성적 에너지로 구분된다. 사크티가 시바에게 우주의 근원을 물어보면, 시바는 춤으로 대답한다. 이 두 에너지의 끝없는 대화로부터 세계는 시작된다(석지현, 1978: 28-29).

시바의 우주적 춤은 우주의 흐름이 표현된 창조와 파괴를 통한 신성한 재현이다. 파스는 시인의 입장에서 이 우주 창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된다. 시바는 교리적 의미를 넘어서 우주의 신성성에 대한 감각적 이미지이다. 그의 춤은 모든 움직임과 삶의 표명에 대한 원형이다. 시 「백지」이러한 우주적 리듬을 재현하여 보여준다.

시 「백지」에서 왼쪽 줄의 우주의 4 원소와 오른쪽 줄의 인간의 인식행위의 4 가지 모습이 움직이면서 보여주는 교감은 백지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랑행위이다. 우주의 침묵이 형상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나 우주의 일부인 인간이 그것을 대상화시켜 인식하려는 행위는 모두 열정의 역동적 작용이기 때문이다. 시가 시작되기 전에 탄트라적 세계에 대해 언급한 것은 「백지」가 열정이라는 우주 생성 원리와 그것이 펼쳐지는 각각의 구성 형태 및 색깔들을 담은 만다라를 흉내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파스는 그의 □시모음집□(*Obra poética*)에 재 수록할 때 쓴 해설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시를 읽어감에 따라 페이지가 펼쳐지고 그 순간 공간은 텍스트를 드러낸다. 어떤 의미에서는 텍스트를 만들어낸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탄트라 두루마리 그림이 우리를 부동의 여행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다 (그것을 풀면 우리의 눈앞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의 운명과

9) 탄트리즘은 우주에 있어 여성적 요소의 능동적 역할에 대한 찬양을 보여준다.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고 양육자인 사크티를 통해 나타난다. 그 여신은 “Devi”, “Durga”, “Kali”, “Parvati”, “Una”, “Sati”, “Padma”, “Candi”, “Tripura-Sundari” 등 수 많은 이름을 가진다(Miranda, 1989: 268). 사크티는 절대성에 대해 능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형상들의 원천이다. 탄트리즘에서 시바는 남성성의 극치이며, 이 두 신성들은 모든 형상과 이름 너머의 절대성인 브라만(Brahman)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잠재적 절대성인 시바와 능동적 힘을 가진 사크티 사이 사랑의 관계로부터 형상의 세계인 우주가 탄생한다.

같은 제의가 펼쳐진다). 공간이 흐르면서 텍스트를 생산해 내고 또 시간이 지나가듯 그 텍스트는 사라져 버린다. 시가 채택하고 있는 이러한 진행 형태의 시간적 배치는 공간적 배치하고도 연관되어있는데, 시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여러 다른 부분들이 지역, 색깔, 상징, 만다라의 형상들처럼 나뉘어져서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Paz, 1991a: 481).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원圓”인 만다라는 우주의 지도로서 불교의 우주관과 철학이 형상과 색깔을 가진 이미지로 표현된 것인데, 파스는 그것을 문자로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만다라는 명상을 할 때 매개체나 보조재로 사용된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명상에 젖어들 수도 있지만 형형색색의 모래를 대롱에 담아 흘려서 만다라를 직접 제작하면서 명상할 수도 있다. 마치 씌어진 시를 독자가 읽어서 시정(poesía)에 다가가는 방법과 시인이 시를 쓰는 과정 속에서 시정을 만나는 방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인 자신이 의도한 대로 「백지」를 하나의 만다라로 본다면, 시인이 파악한 세상의 형성 원리를 글자로 옮겨 놓음과 동시에 겸손하게 아직 확실히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근본을 찾으려는 하나의 수행을 의미한다.

엘리어트 와인버거(1995: 197)는 이 시를 위에서 아래로 읽어 내려가는 것을 차크라(chakra)를 가지고 설명한다. 잠자고 있는 우주의 에너지, 군달리니(kundalini)를 인간의 내부에서 불려일으키기 위하여 인간의 육체 안에서 일곱 개의 에너지 중추가 있는 자리를 발견해 내었다. 이 자리가 차크라다. 모든 개개인은 이 우주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속에도 군달리니 삭티가 웅크리고 잠자고 있다. 각종 요가나 행법에 의해 군달리니는 눈을 뜨게 되고 에너지의 중추인 일곱 개의 차크라를 열면서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군달리니가 상승하면서 각각의 차크라에 저장되어 있는 활동 에너지를 흡수하고 최종적으로는 순수의식인 시바와 합치되기에 이른다. 시 「백지」는 “el comienzo / el cimiento”로 시작한다. 이것은 ‘기초’ 또는 ‘처음’(cimiento)을 의미하는 ‘물라다라’(muladhara)라고 하는 첫 차크라에 해당한다. 이어서 나오는 “el simiente / latente”라고 하는 부분은 씨앗(simiente)을 뜻하는 ‘비자’(bija)를 나타낸다. 비자는 모든 물질이 형상

화되기 전 아래에 놓여있는 힘이다. 그러므로 파스가 말한 대로 가운데 기둥이 언어의 기둥이라면 “latente”는 “종자어”(palabra germinal), 즉 ‘비자-만트라’(bija-matra)의 속성을 의미한다.<sup>10)</sup> 소리의 가장 원초적 에너지가 씨앗처럼 모든 가능성을 잉태한 채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은 두 눈썹 사이에 위치한 ‘아즈나’(ajna)라는 여섯 번째 차크라에 해당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시선에 실재를 담는다”(Da realidad a la mirada)로 끝난다. “아니오와 예”(No y Sí)가 상징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소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등장하는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는 모든 요소들이 정화되고 투명해진다. “남은 것은 투명함 뿐”(La transparencia es todo lo que queda)은 시가 이 단계에 있음을 말해준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말장난을 볼 수 있는데, “이름들로 이루어진 나무 / 비현실적 현실”(El árbol de los nombres / Real irreal)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다 / 공기는 무無다”(son palabras / Aire son nada)라는 표현이다. “nada”는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에너지의 진동이 드러난 것’, 즉 ‘소리’를 의미한다.<sup>11)</sup> 예를

10) 아날로지적 체계에 대한 믿음은 모든 사물과 상징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거대한 그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고를 발명해 내었다. 사물과 상징이 우열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보완의 관계에 있다. 이것은 시와 언어의 자체적 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믿음의 신앙적 차원으로 생겨난 것이 만트라(mantra)이다. 만트라에 대한 신앙은 힌두교, 불교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몇 개의 기본음을 바탕으로 생성되었으며 우리들이 우주에서 보거나 느끼는 모든 물체는 각각의 진동을 응축시킨 음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 기본음들은 [m nasal]이나 [k], [t]로 끝나는데 좀 더 복잡한 만트라는 몇 개의 일련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옴’(Om)이다(Bharati, 1969: 101-152; Chevalier, 1993).

11) 진동 에너지로 인식되는 이러한 만트라를 입으로 수천 번 읊으면 축적된 특정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만트라에서 떨리는 에너지가 소리로 나타나는 것을 ‘나다’(nada)라고 하는데 ‘Nada-bindu’는 바로 [m nasal]이고 거기서 우주가 탄생한다. ‘Om’은 ‘Nada-Brahman’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브라만의 소리이기 때문이다. 깨달음의 가장 높은 등급에 이른 사람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Rawson, 1995: 59-61).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진동 에너지라는 사고는 오늘날 서구의 과학자들은 원자를 이루는 미립자(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쿼크’(quark)라고 부르는 진동의 구조로 되어있다고 믿고 있다. 사물은 물질로 되어있기 보다는 어떤 에너지를 함유한 움직임일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만트라는 이렇듯 말 자체의 힘에 대한 아날로지적 믿음에 기인한 것이다.

들어, ‘□, nada-bindu’는 “근원적 진동”이며 거기서 자연의 소리가 생성된다. 또 ‘nada-Brahman’은 브라만의 소리라는 ‘옴 Om’이다. 여기에 쓰인 “son”과 “nada”는 각각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son”은 ‘ser’ 동사의 3인칭 복수이기도 하고 ‘소리’이기도 하다. “nada”는 ‘무無’를 뜻하는 스페인어의 ‘nada’이기도 하고 산스크리트어의 ‘소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언어유희로 파스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소리는 공기의 떨림으로 되어있고 말은 소리로 되어있다. 따라서 “단어들이다 / 공기는 무無다”(son palabras / Aire son nada)에서 네 단어 ‘son’, ‘palabras’, ‘aire’, ‘son’은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마지막 단어인 “nada”에 와서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는 상반된 의미(‘무無’와 ‘소리’)로 인해 앞의 단어들은 모두 ‘사라짐과 나타남’(desaparición-aparición), ‘실재와 비실재’(real-irreal), ‘말과 침묵’(habla-silencio)의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된다.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 속에 썩어진 글자들이 결국은 “nada”로 이루어져 있으며 “nada”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 “nada”의 구체적 모습은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시 「백지」는 마지막 일곱 번째 차크라에 이른 특성은 보여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단계는 ‘깨달음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단계는 글자로 묘사할 수 없는 경지이기 때문에, 시는 더 이상 썩어지지 않고 멈춘다. 이 점에 대해서 진 프랑코(1972: 160)는 「태양의 돌」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라면, 「백지」는 “지금, 여기의 시”며 초월적 상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추는 만다라라고 말한다. 한편 기예르모 수끄레는 시인은 단지 기호들을 풀어놓았을 뿐이고 시 읽기가 더 중요하며, 독자의 관점에서 「백지」는 의미를 발견하는 시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생성의 시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 시는 미완성인 열린 시다.

「백지」는 다른 모험을 암시한다. 이미 정형화되어 끝난 시가 아니라, 계속해서 무언가를 잉태하고 있는 시이다. 글쓰기는 의미를 찾는 기호라는 나무를 단지 심는 행위일 뿐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세상이 응축되듯이, 시를 만들어내는 행위 속에 시가 응축되어 있다. 그러나 시를 쓰는 행위는 그 시를 읽는 행위에 의해서 의미를 갖는다. 시

를 읽는다는 것은 독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시로 하여금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로 거기서 제목이 생긴 것이다. 이 시는 이 세상처럼 백지 텍스트이다. 썼지만 씌어지지 않았다. 말을 했지만 말해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이 점을 감안하여 독자들도 이 시를 읽으며 개인적 경험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읽는다는 것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만드는 일이다(Sucre, 1974: 236).

조나단 킬러(1978: 37-38)는 조오지 무닝(Georges Mounin)의 기호학 이론을 언급하면서, ‘문학은 어떤 기호의 체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학을 말할 때 고정된 코드를 통한 조합과 해독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는 텅 빈 공간을 나타내기 위한 일련의 기표들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기표들이 그 공간을 직접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표들이 둥글게 에워싸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그 공간은 다른 방식으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실체를 직접 묘사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주위를 묘사함으로써 실체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으로서, 불교에서 부정-부정(*neti, neti*)을 통해서 실체에 이르고자 하는 방식과도 유사하며, 파스가 회전하는 기호들에서 언급한 내용도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종이와 글자 사이에 상호 해석이라는 새로운 관계가 성립한다. 서양에서야 새로운 것이지만 극동과 아랍의 시에서는 전통적인 것이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백지의 공간은 침묵을 나타내고(아마도 아무 말도 없는 자체로 인해서), 기호들이 말하지 않고 있는 그 무엇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공간은 글자가 된다. 글자는 총체성을 보여주려 한다. 하지만 글자는 어떤 결핍에 의지하고 있다 ... 변화하는 공간 속의 글자, 허공 속에 뿔어지는 말, 백지 위의 단어들. 시는 의미를 찾는 기호들의 모임이며, 아직 떠오르지 않은 태양의 주위를 맴도는 상형문자다(Paz, 1971a: 336-338).

“의미를 찾는 기호들의 모임”라는 말은 글자가 더 이상 세상의 반영이나 결정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임을 말한다(Paz, 1990: 11). 현대 물리학에서 모든 사물들과 입자들이 결정된 존재이기를 포기하고 끝없이 변하고 생성하고 있고 그것

을 바탕으로 한 세상도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면 세상의 기호를 읽어서 본질에 다가가고자 하는 그의 시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 IV. 맺는 말

사회적 현실보다 인류의 보편적 테마에 관심을 기울인 폰뎀뵐라네 오스 세대를 이어 등장한 파예르 세대는 거기서 더 나아가 아담의 언어를 추구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원초적 순수한 상태, 즉 자신의 탄생과 존재의 비밀에 대한 탐구와 동일시된다. 세상에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신의 언어를 좇아 헤매는 노력은 자연을 형성시키고 유지시키는 원리를 탐구하게 되고, 그 원리를 자연과 아날로지 관계에 있는 「백지」 위의 글자들 사이에도 적용시킨다. 좌우의 글자들은 서로 만났다 헤어졌다 하면서 세상 속 인간의 역사를 펼쳐놓는다. 그러나 「백지」는 아직 완성된 시가 아니다. 시인이 백지에 뿌려놓은 글자들은 아직 떠오르지 않은 태양의 주위를 돌며 희미하게 그 태양의 윤곽을 그리고 있을 뿐이다. 그 천체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닫고 올라왔던 글자로 된 사다리와 이쪽 언덕에서 타고 간 글자로 된 배를 버려야할 것이다. 우리가 좇아왔던 목표물은 글자가 사라진 하얀 백지이기 때문이다.<sup>12)</sup> 여기에는 두 가지 언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백지 위의 글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글자들이 임무를 다하고 사라지고 난 후에 남는 백지 상태의 투명한 언어, 투명한 침묵이다. 이것이 파스가 추구해온 ‘아담의 언어’일 것이다.

12) 스페인어의 ‘blanco’는 ‘흰색’, ‘백지’, ‘공백’이란 뜻 이외에 ‘과녁’, ‘목표물’이란 뜻이 있다. 이러한 패러독스에 대해서는 존 페인(1986: 66)도 언급하고 있다.

## Abstract

La generación de Taller declaró la búsqueda de la palabra adánica. Esta actividad implica la indagación del hombre original del estado puro, es decir, el secreto de su nacimiento y su ser. Aunque sea así, el poeta empieza con la interpretación de los principios de la naturaleza que forman y mantienen todas las cosas, ya que las palabras de Dios quedan en el mundo sólo como una huella. Luego el poeta los aplica a las letras en “Blanco”, apoyado en la creencia de la analogía entre las cosas de la naturaleza y las letras. La columna izquierda de los versos y la derecha se unen y se despiden continuamente desarrollando la historia de los hombres. “Blanco” no es un poema terminado sino un poema de devenir, en el cual el lector crea un sentido posible. Las escrituras que el poeta ha esparcido en blanco sólo están girando alrededor del sol, antes del amanecer, dibujando su perfil. Para ver el sol, tenemos que tirar las escaleras que hemos subido desde abajo y la nave que nos ha transportado desde esta orilla, porque el blanco(meta) que hemos seguido es el silencio blanco donde desaparecen las palabras. Ese silencio transparente es la palabra adánica.

Key Words: Octavio Paz, Blanco, Poesía Latinoamericana / 옥타비오 파스, 백지, 중남미시

논문투고일자: 2003. 9. 25

게재확정일자: 2003. 11. 14

- 김용옥(1989), □노자철학 이것이다□, 통나무.
- 멀치아 엘리아데(1998), □성과 속□, (이은봉 역), 한길사.
- 미셸 푸코(1991), □말과 사물□, (이광래 역), 민음사.
- 빈센트 B. 라이치(1989), □해체비평이란 무엇인가□, (권택영 역), 문예출판사.
- 석지현(1978), □밀교□, 현암사.
- Bharati, Aghananda(1969), *The Tantric Tradition*, London: Rider & Company.
- Chevalier, Jean(1993), *Diccionario de los símbolos*, Barcelona: Herder.
- Correa Pérez, Alicia(1991), "El nacimiento de Octavio Paz en Taller", *Universidad Cristbal Colón*, enero-abril, pp. 27-32.
- Culler, Jonathan(1978), *La poética estructuralista: el estructuralismo, la linística y el estudio de la literatura*, Barcelona: Anagrama.
- Franco, Jean(1972), "¡Oh mundo por poblar, hoja en blanco", *Revista Iberoamericana*, (Homenaje a Octavio Paz), Vol. 37, No. 74, pp. 147-160.
- Fein, John M.(1986), *Toward Octavio Paz: A Reading of His Major Poems 1957-1976*, Lexington, Kentucky: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 Huidobro, Vicente(1989), *Obra selecta*, Caracas: Ayacucho.
- Mallarmé, Stéphane(1980), *Obra poética*, (trad. por Ricardo Silva-Santistvan), Madrid: Hiperión.
- \_\_\_\_\_(1998), *Un tiro de dados*, México: Ditoria.
- Martínez Torrón, Diego(1982), "Escritura, Cuerpo de silencio", in Pere Gimferrer(ed.), *Octavio Paz*, Madrid: Taurus, pp. 258-280.
- Miranda, Roberto Santiago(1989), *El pensamiento oriental en la obra de Octavio Paz*, (tesis doctoral),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Müller-Bergh, Klaus(1979), "La poesía de Octavio Paz en los años treinta", in Alfredo Roggiano(ed.), *Octavio Paz*, Madrid: Fundamentos, pp. 53-72.
- Octavio Paz(1967), *Blanco*, México: Joaquín Mortiz.
- \_\_\_\_\_(1971a), *Octavio Paz: Los signos en rotación y otros ensayos*, Madrid: Alianza.
- \_\_\_\_\_(1971b), "Poesía mexicana moderna", in Octavio Paz, *Las peras del olmo*, (prólogo y selección de Carlos Fuentes), Barcelona: Seix Barral, pp. 49-58.
- \_\_\_\_\_(1973), *El arco y la lira*,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_\_\_\_\_(1990), "Poésia en Movimiento", in Octavio Paz, *Poesía en Movimiento*, México: Siglo XXI, pp. 3-34.
- \_\_\_\_\_(1991a), *Obra poética(1935-1988)*, Barcelona: Seix Barral, 1990; reimpresión en México.
- \_\_\_\_\_(1991b), *Conjuncioes y disyunciones*, México: Joaquín Mortiz.
- \_\_\_\_\_(1992), *El signo y el garabato*, México: Joaquín Mortiz.
- \_\_\_\_\_(1998), □활과 리라□, (김홍근/김은중 역), 솔출판사.
- \_\_\_\_\_(1999), □흙의 자식들 외: 낭만주의에서 전위주의까지□ (김은중 역), 솔출판사.
- Rawson, Philip(1995), *The Art of Tantra*, London: Thames and Hudson.
- Santí, Enrico Mario(1995), "Esto no es un poema", in Enrico Mario Santí(ed.), *Archivo Blanco*, México: Equilibrista, pp. 235-321.
- Sarduy, Severo(1987), *Ensayos generales sobre el barroco*, Buenos Aires: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Sucre, Guillermo(1974), "Blanco: Un archipiélago de signos", in Ángel Flores(ed.), *Aproximaciones a Octavio Paz*, México: Joaquín Mortiz, pp. 232-236.
- Taller(1938-1941)*, Edición facsimilar, I-IV.

Weinberger, Eliot(1995), “Paz en la India”, in Enrico Mario Santí,  
*Archivo Blanco*, México: Equilibrista, pp. 189-202.

이성훈(서울대)\*

본고에서는 1992년 활동을 시작하여 2000년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기까지 중남미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연구영역과 방법론을 모색했던 중남미 하위주체 연구그룹(*Grupo de Estudios Latinoamericanos del Subalterno*: 이하 GELS)의 성과와 그 한계에 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그룹의 구성원들은 주로 미국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적인 연구자들로, 연구그룹이라는 집합적인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개개인의 지적 성향과 연구방법론에 있어 매우 이질적이다. 그들은 서구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화’ 혹은 ‘총체화’ 경향으로 인해, 주변부 사회가 분석의 대상화하는 한편 지적 영역 역시 식민화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적 작업을 하나의 균질적이고 통합적인 이론틀에 맞추기 보다는 다양한 이론적 가능성들의 느슨한 연대를 통해 중남미사회를 분석하는 이론적 연대와 실천을 지향했다. 그들의 이러한 인문학과 사회과학 담론의 소통에 사용되고 있는 거대담론, 혹은 거대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현실 분석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민족, 계급 등의 개념에 대한 비판과 ‘하위주체’라고 하는 대안 모색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은 구하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 하위주체 연구그룹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들은 “창립선언문(*Manifiesto inaugural*)”(1992)의

---

\* Seong-Hun Lee(Seoul National University), “Outcomes and Limitations of Latin American Subaltern Studies”.

서두에서 중남미에서 일어난 일련의 과정, 즉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 혁명적 기획들의 좌절, 재민주화과정, 매스미디어의 영향, 탈국가적인 새로운 경제질서의 등장 등이 새로운 정치적 사유와 실천 형식을 모색하게 했고, 여기에 구하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 하위주체연구 그룹의 문제의식과 연구방법론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GELS는 하위주체의 개념화와 중남미학의 관계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단계의 특성을 드러내는 주된 사건으로 쿠바혁명, 68운동, 산디스타 혁명을 들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쿠바혁명은 불만족스러운 문화적 정치적 실천이었다. 정치권력을 교체했다는 측면에서 성공한 혁명이라는 일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치과정의 주체로서 중상계층의 재현에 중점을 둬으로써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또 다양한 문화적 실천을 통해 성, 인종, 언어들의 주체가 문제화 되었지만 해결책이 “계급적이고 단일한 주체(sujeto clasista unitario)”로 귀결됨으로써 이런 주체들로 환원되는 혹은 동일한 지식 엘리트에 의해 생산된 이론적, 문화적 텍스트의 전유에 치중했다는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68년대 이후 정치 영역의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적 생산의 영역에서 증언이나 다큐형식들이 고급한 재형형식들을 대체하게 된다. 또한 봄세대들과 달리 이들 증언적 텍스트들에 등장한 하위주체들은 텍스트 자체의 구성의 일부가 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 역시 지속적인 사회운동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적 사회질서의 모색은 계급 중심적이고 ‘국가주의적’인 패러다임의 틀에 갇혀 있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결국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재현에 실패한 것이다. 80년대에 들어와 문화, 민주화, 전지구화, 그리고 ‘탈’ 개념 등이 키워드가 됨으로써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하위주체 연구그룹이나 버밍햄 그룹의 이론적 작업으로 인해 중남미 연구자들도 중남미에 재현의 식민적, 혹은 신식민적 시스템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비판하기 시작한다. 특히 전지구화와 탈국가화라는 이론적 전제하에서, 하위주체그룹은 새로운 이론적 모색을 진행했다. 국가라는 영토를 가진 조직 속에서 하위주체

가 억압되고 존재성이 부정당했다고 한다면, 탈 국가시기에 가능한 하위주체의 형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형성 이전의 존재 형식들에까지 확장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국가라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엘리트나 하위주체 그룹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해진 재현들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중남미의 경우 국가 형성기에 있어 다양한 하위주체의 개입이 무시되고, 프리오요 엘리트 문화 중심의 국가가 형성됨으로써, 일정하게 국가주의적 기획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식민적이고 ‘국가적’인 인식론들이 하위주체들을 순전하게 재현의 대상으로만 간주했기 때문에, 하위주체의 활동은 ‘분출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출적인 행위를 통해 하위주체는 사회적 통제의 수직적 시스템과 단절하고, 재현의 헤게모니 형태들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하위주체는 국가나 그 대리인들에게 ‘협상’을 강요하게 하는 것이다. 주체의 재현에 부과되는 다양한 형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협상의 테이블에서 다양한 하위주체들의 목소리를 재현하고, 그들의 전략을 모색하는 작업이 바로 중남미 하위주체 연구그룹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일레아나 로드리게스(Ileana Rodriguez)는 이 그룹의 멤버들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Gerge Mason Univ.에서 개최된 모임에 창립 멤버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호세 라바사(José Rabasa), 하비에르 산히네스(Javier Sanjinés), 로베르토 카(Roberto Carr), 존 비벌리(John Beverley), 일레아나 로드리게스이다. 그녀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들은 주로 프레드릭 제익슨이 주재하던 문학 연구모임에서 만났고, 남아시아 그룹의 연구성과가 중남미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구방법론이 되리라는 판단을 통해 새로운 연구그룹을 형성한 것이다. 이후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있었던 두 번째 모임에 발터 미놀로, 마리아 밀라그로스 로페스, 마이클 클락 등이 참여했다. 여기에서 결합한 연구자들은 주로 탈식민주의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고, 이른바 ‘최종심급에서의 결정론’과 관련된 주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또한 소외 이론이 아니라 일상의 문화가 갖는 맥락을 이론화 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했다. 즉 보다 명확하게 기존의 국가주의적이고 계급중심적인 분석틀과의 절연을 모색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알베르토 모레이라스, 개러스 윌리엄스(Gareth Williams), 존 크라니우스카스(John Kraniauskas), 조세피나 살다냐(Josefina Saldaña), 압둘 무스타파(Abdul Mustafa), 사라 카스트로-클라렌(Sara Castro-Klaren), 페르난도 코로닐(Fernando Coronil) 등이 푸에르토리코에서 있었던 모임을 통해 이 그룹에 참여했다.

그녀에 의하면 GELS의 성원들은 대부분 1960년대 좌파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후 맑시즘, 종속이론, 인종, 페미니즘 등의 이론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관심들을 유지해온 그들에게 문학과 정치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였다. 이런 맥락에서 70년대 중반 존 비벌리, 일레아나 로드리게스, 그리고 당시 UC San Diego의 교수였던 프레드릭 제임슨 등이 위에 언급한 바 있는 <맑시즘 문학연구 모임>을 구성하게 되고, 이후 존 비벌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 에르난 비달과 안토니오 사하레아스에 의해 미네소타 대학에 <이데올로기와 문학연구소>(Institute of Ideologies and Literature)가 설립되고 일레아나가 여기서 리더로 활동한다. 이 두 조직이 이후 역사학의 영역에서 통학문적이거나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던 파트리시아 시드와 마운 등의 역사학자들과 결합게 됨으로써 중남미 하위주체 연구그룹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언급한 것처럼, 이들이 구하를 중심으로 한 하위주체연구 방법론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그들이 60년대 이후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과거의 문제의식으로 인해 남아시아 그룹의 이론적 작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일정한 학문적 연관관계뿐만 아니라 정신적 친연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분과학문에 기반한 전통적인 학문질서에 대한 저항과, 좌우파 공히 가지고 있는 ‘국가주의적’인 경향에 대한 거부에서 그들을 결합하는 연결고리가 만들어 졌다고 본 것이다. 일레아나 로드리

게스는 이 점에 관해 자신들이 모색하고 있던 “새로운 인문주의”와 남아시아 그룹의 작업에서 보이는 “새로운 종류의 감수성”이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GELS는 남아시아그룹의 연구 방법론을 수용하여, 변화된 중남미 현실을 해석하고자하는 이론 그룹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자리메김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론의 수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이 그룹에 대한 많은 비판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GELS는 남아시아 그룹과 같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체의 재현과 이 재현과 관련된 역사 기술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먼저 간략하게 남아시아 그룹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란지트 구하, 파르타 차터지, 기야넨드라 판디 등으로 대표되는 남아시아 그룹은 □하위주체 연구□라는 연구물을 통해, 인도를 위시한 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이견을 제시한다. 즉 그간의 역사 연구와 역사 기술이 엘리트 중심적인 관점에서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엘리트적인 왜곡을 수정하기 위해 그들은 ‘아래로부터의 역사’, 즉 하위주체의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하고자 하며, 지금까지 역사기술과 하위주체의 재현에 있어 엘리트들이 행해왔던 역할에 대해 비판적인 재검토를 시도한다.

남아시아 그룹이 역사기술을 둘러싼 논의를 시작한 것은, 기존의 역사기술이 반식민적 민족주의의 현실을 명확하게 포착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자각에서 시작된다. 이들은 민족주의와 맑시즘 양 진영에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지만, 기본적으로 좌파 진영의 계급개념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인도라는 사회에서 계급 개념이 담지해 내지 못하는 사회적 힘을 하위주체라는 개념을 통해 극복하고자한 것이다. 즉 그들은 주변부 모더니티를 경험한 국가들에서 계급개념은 인종이나, 성과 같은 범주들을 넘어서질 수 없는 평면적인 개념으로 간주하고 그 대안으로 하위주체라는 개념을 내세우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하위주체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하위주체의 재현에 개입한 지식인 계층에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이 점은 마운의 작업에 대한 존 비벌리의 언급을 통해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일레아나 로드리게스는 □수렴하는 시간□(*Tiempo de convergencias*)에서 하위주체그룹의 연구를 정리하기 위해 세 가지 논제를 들고 있다. 하나는 하위주체 연구와 그 정의의 다양성이 갖는 현재적 의미가 무엇인가, 두번째는 중남미학(*estudios latinoamericanos*)과 남아시아의 하위주체연구의 관계, 마지막으로 국가, 문화, 하위주체간의 상관관계가 그것이다.

하위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그녀는 남아시아 그룹의 다양한 견해를 언급한 후 중남미적 맥락에서의 새로운 해석을 덧붙인다. 그녀에 의하면 하위성은 “지배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통제하거나 혹은 전유할 수 없는 것을 지시하기 위한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지배 담론 내에서 모순과 전위를 강화하고 전복의 가능성을 담보한 타자”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또 한편으로 중남미적 특수성을 매개시키는 방법으로 하위주체 연구의 현재적 생산 조건을 언급한다. 하위주체성이 유럽적이고, 지배적인 헤게모니적 인식의 다양한 한계 혹은 부정에 대한 메타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남미현실을 설명하는 특수한 삶의 형태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지역성 혹은 지정학”이라는 개념이 가능하고, 하위주체연구의 중남미적 형태의 적실성이 보장되게 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하위주체는 피억압자들에 체화되어 있는 사회적 위치를 말하거나, 국가간 권력을 결정짓는 모든 종류의 식민적 관계에서 발동하고 있는 권력의 식민성을 작동시키고 어떤 조건을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하위주체는 하위주체연구 내에서도 다양하게 절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룹내부의 논쟁에서도 다양한 논의를 유발하고 있다.

역사학 연구자로 하위주체 연구그룹의 아젠다를 수행하고 있는 플로렌시아 마온 역시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좌절이 결과한 이론진영의 무력함에서 탈피하기 위해, 새로운 현실전유방법을 모색했다. 그녀 또한 민족과 계급개념에 기반한 유럽적 모델에 대한 불만족을 토로하고 하위주체그룹 연구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지만, 동시에 외래적 이론의 수입이 갖는 위험성도 경고하고 있다.

마온은 자신의 저서 □농민과 국가□(*Peasant and Nation*)에서 국가

형성기에 멕시코와 페루 농민들이 지배 엘리트들의 내셔널리즘/민주적 담론과 어떻게 갈등하고, 또 이 과정을 통해 헤게모니가 어떻게 재생산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의 농민들은 일련의 탈중심화된 투쟁의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신들 나름의 ‘지역적’ 국가관을 통해, 서구의 내셔널리즘/민주적 담론과 국가형태에 저항한 것이다. 그녀에 의하면, 민주주의와 내셔널리즘이 서구 식민주의와 역사적으로 결합한 것이 중남미의 내셔널리즘/민주적 담론 내에 기본적인 모순을 만들었다. 한쪽으로 평등, 자유 등의 보편적 담론이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실제로 대중들은 유럽적이고 계급적, 혹은 젠더 배제에 따라 앞의 보편적 권리인 시민의 권리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마온의 기획은 이런 상황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와 행위자들을 복구하는 것이다. 그녀는 친족, 세대적 권위, 집단적 소유형태 기초한 농업 공동체에 주목하여, 이러한 공동체 헤게모니의 형식과 그녀가 ‘지역적 지식인’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활동과 새로운 민족국가가 강제하는 제도적이고 억압적인 기제 사이의 복잡한 상호관계와 협상에서 보여지는 모순과 갈등을 꼼꼼하게 추적한 것이다. 이러한 상호 관계가 그들의 균열 속에서 드러나며 ‘대안적 민족주의’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현재의 멕시코나 페루에서 보이는 민족국가의 종류를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하위주체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복원해 냄으로써, 중남미 현재에 개입해 있는, 혹은 가려져 있는 하위주체의 재현 가능성을 확보해 낸다.

마온의 이론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작업이 실제로 하위주체의 재현과 얼마나 기여하는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비벌리는 다양한 목소리간의 대화로서 역사가 재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가 내러티브가 필요한데, 마온의 경우 ‘전지적인 화자’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 한계를 보여주고 비판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그녀가 시도한 ‘아래로부터의 역사’는 농민주체들이 실제로 19세기 멕시코와 페루의 국가형성기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급진적 이중성’과 국가의 공식역사가 보

여주는 단일성 사이의 갈등을 해소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녀가 담아내고 싶어하던 하위주체 행위자들의 ‘부정’과 카운터 헤게모니의 동력을 지배 헤게모니에 고착시키고 말았다는 비판 역시 가능하다.

GELS의 논의와 관련해서 주목해야할 또 다른 논의는 가르시아 캉플리니의 ‘혼종성’이라는 개념을 둘러싼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남미 문화분석에서 가치중립적으로 용어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혼종성이라는 개념 역시 헤게모니의 정치학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하위주체적 관점에서 혼종성을 다시 사고할 수 있는 비판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가르시아 캉플리니의 혼종성이라는 맥락은 중남미의 모더니티 논자들의 논의가 그러하듯 새로운 지적 엘리트들의 현실전유를 위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문화를 둘러싼 논쟁이 보여주듯이 계급적, 성적, 인종적 불평등이 차이로 축소되고, 분리를 다양성으로 해석함으로써 현실의 구체적인 갈등을 은폐하고 혼종성을 일종의 민주적 기획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혼종성 개념에 대한 하위주체적 시각이 존재하는데, 이에 따르면 혼종성이라는 개념이 헤게모니/하위주체간의 대립을 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대립이 경제나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 전지구화와 탈영토화의 진전을 통해 극복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중남미 모더니티를 둘러싼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즉 중남미의 모더니티 논의는 사회문화적 모더니티의 진전에 의해 전개된 논의가 아니라, 중남미에 존재하는 다층적 시간성을 전유하기 엘리트들의 지적 전략이었듯이, 이 혼종성 개념에는 마찬가지로 중남미에 존재하는 이러한 대립을 무화하고 전지구적 아젠다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근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중남미 지식인들의 지적 과잉이라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은 바바의 혼종성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중남미적 문맥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지적한 고부웅의 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는 혼종성이 갖는 저항적 성격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혼종성이 결과된 지난한 파괴의 경험과 현실에 내재한

갈등의 역사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GELS의 활동에 관한 비판은 이 그룹에 속해 있었고, 또 이 그룹의 사망선고를 내린 존 비벌리에 의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그의 견해는 이 그룹이 주로 듀크 대학에 연고를 둔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들어 “듀크 대학 하위주체 연구의 딜레마”라고 제목을 붙인 글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비판은 특정한 듀크 대학 연구자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제1세계 대학, 특히 미국의 대학을 중심으로 이론들이 교역하는 현상과 이 현상 뒤에 숨어있는 학문공동체간의 불균등함과 위계화 현상, 즉 중남미가 1세계 지식인들의 학문적 대상으로 고착되어,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실천의 장이 아니라 서구 지식의 소비처로 전락하게 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 읽힌다. 이런 맥락에서 “듀크 대학처럼 그 자체가 엘리트 교육기관인 듀크 대학에 의해 준비된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하위/지배 관계를 생산/재생산 한다면, 어떻게 하위주체가 헤게모니를 갖게 되는 장소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물론 구성원들 역시 이러한 한계를 자각하고, 그들의 역할을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하위주체와 우리들, 그러니까 미국 내 대학에 기반한 연구자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데 한정하고자 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비벌리의 경우 이런 입장과 하위주체 재현에 개입하고 있는 지식인, 특히 1세계 학문제도 내의 연구자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하위주체연구는 어떤 의미에서 캠퍼스라는 제도 바깥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일례아나는 GELS에 대한 비판을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한다. 먼저 인도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 현실을 분석한 이론을 중남미에 대입시킴으로써, 식민경험과 인종 문제 등 상이한 중남미적 문맥과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여행이론’(traveling theory)이라는 딱지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미국대학을 중심으로 이론이 전개되면서, 중남미 이론진영 내에서 판아메리카니즘 혹은 북미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 점은 지식인의 지리적 위

치가 텍스트의 의미와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입장으로 마벨 모라냐의 경우도 “하위주체의 붐”이라는 글에서 동일한 비판을 하고 있다. 또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하위주체의 재현에 개입해 있는 지식인의 포지셔닝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마욤의 작업에서 보여지듯이 하위주체의 재현에 대한 열망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전면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다시말해 그녀의 작업에 나타나고 있는 ‘지역적 지식인’들의 대안적 내러티브들은 그녀에 의해 패러프레이즈되고 재구술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GELS는 하위주체의 재현, 여기에 개입한 지식인의 역할, 국가와 하위주체의 관계 설정, 하위주체 연구의 장소 등을 둘러싼 제기된 비판과 내부적 한계로 인해 현재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하위주체연구의 성과들을 중남미 연구에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연구 영역과 방법론을 모색해 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 Abstract

This essay briefly examined the outcomes and limitations of “Latin American Subaltern Studies(Grupo de Estudios Latinoamericanos del Subalterno; GELS)” that had explored new research areas and methodologies in Latin American study from 1992 to 2000. The members of this group were independent intellectuals who worked mainly in universities in US. They were quite heterogeneous in their intellectual tendencies and research methodologies even though they are referred as a research group. They criticized that ‘generalization’ or ‘wholization’ tendencies of western theories take the marginal society as an object of analysis and also colonialize the intellectual areas of this society. They tried to accomplish the critical overthrow to its gigantic arguments of western theories. Their critical perspectives on this gigantic arguments or

paradigm, which have been used in many communication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an be seen in their criticisms on the concepts of nation and social class, which used frequently in the analysis of reality, and their search for an alternative called as subaltern.

Ileana summarized the criticisms on GELS as two things. First of all, it failed to notice the its unique context of Latin American colonial history and racial problems by directly applying South Asian realities surrounding India to Latin America. Also, as you can see from its label of 'traveling theory', this theory was developed mainly in the universities in US so there exist concerns for pan-Americanism or influence of North America. Secondly, the most important and essential thing lies in the positioning of intellectuals who were engaged in the reemergence of subaltern. As you can see from the works of Mallon, the eager desire of the reemergence of subaltern resulted in putting their own voice in the front.

In conclusion, it is widely acknowledged that Latin American study has searched for new research areas and methodologies by introducing outputs of GELS, even though today GELS itself is not taking an active part in Latin American study due to its own limitations and criticisms about reemergence of subaltern, the role of intellectuals working in subaltern, and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hips between nation and subaltern.

Key Words: Subaltern Studies, Subalternity, Grupo de Estudios Latinoamericanos del Subalterno, Ileana Rodríguez, John Beverley, Florencia Mallon  
/ 하위주체연구, 하위주체성, 중남미하위주체 연구그룹, 일레아나 로드리게스, 존 비벌리, 플로렌시아 마온

리뷰에세이 투고일자: 2003. 11. 10.

게재확정일자: 2003. 11. 14.

고부웅,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 지성사, 2003.

Beverley, John(2000) "The Dilemma of Subaltern Studies at Duke", *Nepantla*, Vol. 1, Issue. 1, pp. 33-44.

Grupo Latinoamericano de Estudios Subalternos(1992), "Manifiesto inaugural", in Santiago Castro-Gómez y Eduardo Mendieta, Eduardo(eds.)(1998), *Teorías sin disciplina: Latinoamericanismo, poscolonialidad y globalización en debate*, Mexico: Porrúa.(Este Manifiesto fue publicado primero por *Boundary 2*, Vol. 20, No. 3).

Kraniauskas, John(2000), "Hybridity in Transnational Frame: Latin-Americanist and Postcolonial Perspectives on Cultural Studies", *Nepantla*, Vol. 1, Issue. 1, pp. 111-133.

Mallon, Forencia E.(1995), *Peasant and Nation: The Making of Postcolonial Mexico and Peru*, Berkeley/Los Angeles/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ato, Daniel(2000), "Not 'Studying the Subaltern', but Studying with 'Subalten' Social Groups, or, at Least, Studying the Hegemonic Articulations of Power", *Nepantla*, Vol. 1, Issue. 1, pp. 478-498.

Moraña, Mabel, "El boom del subalterno", in Santiago Castro-Gómez y Eduardo Mendieta(eds.)(1998), *Teorías sin disciplina: Latinoamericanismo, poscolonialidad y globalización en debate*, Mexico: Porrúa.

Rodríguez, Ileana(2000), "Cross-Genealogies in Latin American and South Asian Subalten Studies", *Nepantla*, Vol. 1, Issue. 1, pp. 45-57.

\_\_\_\_\_(2001), "Reading Subalterns Across Texts, Disciplines, and Theories: From Representation to Recognition", in

Ileana Rodríguez(ed.), *The Latin American Subaltern Studies Reader*, Durham: Duke UP, pp. 1-34.

---

\_\_\_\_\_(ed.)(2001), *Convergencia de tiempos: Estudios subalternos/contextos latinoamericanos estado, cultura, subalternidad*, Amsterdam/Atlanta, Rodopi.